hyunbulnews.com

현대불교

제850호 2011년 8월 24일 수요일 (음력 7월 25일 · 불기 2555년 · 주간)

바람이 향기를 지니려면 꽃 속을 지나야 합니다. 사회가 향기로우려면 우리 스스로 향기를 내뿜는 꽃이 돼 그런 꽃들이 모인 꽃밭을 이뤄야 합니다.



– 前 조계종교육원장 청화 스님



꿈·희망의 날개짓… 훨훨~ 조계사(주지 토진)와 수덕사(주지 지운)가 내포가야산 성역화 및 조계사 방생법회를 8월 15일 서산 보원사지 일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참여한 사부대중은 한국조류보호협회에서 밀렵꾼들로부터 포획해 치료한 야생조류 30수를 방생했다. 치료를 마치고 건강해진 야생조류들은 사부대중의 바람을 싣고 힘차게 보원사지 하늘로 날아올랐다. **박기범 기자 / 사진= 조계사 제공**

고려 最古 목불

강릉 보현사서 발견

강릉 보현사(주지 승원)에서 고려시대 가장 오래된 목불로 추정되는 불상이 발견됐다.

주지 승원 스님은 "사찰 내 불상을 일제 조사한 결과 보현당에 있는 보살좌상이 고려 전기인 12세기에 조성한 목조 불상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고려 전기 목불로는 유일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가장 오래된 고려 목불은 1200년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충남 개심사 아미타삼존불상이었다. 통일신라시대 목불로는 경남 해인사에 현존하는 비로자나불이 883년 헌강왕 9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보현사는 "기존 불상과는 다른 얼굴 모습과 수인 등으로 '중국 불상이다', '들여온 지 오래되지 않았다' 는 얘기가 전해져 조사가 늦었다"고 밝혔다.

높이 70cm, 폭 44cm인 불상은 뼈대를 나무로 만들고 옷자락 등은 얇은 천에 옻칠을 해 겹겹이 붙인 목건칠불(木乾漆佛)이다.

이 불상을 조사한 문명대 한국미술사연구소 소장은 "도드라진 특징들로 봤을 때 고려 전기의 불상이 틀림없다. 보현사 불상은 고려시대 귀족불교의 정수를 보여주는 듯 굉장히 화려하며 장식적"이라고 말했다. 문 소장은 보현사 불상이 ▷직선 중심의 조선시대 불상과 달리 고려시대의 유려한 곡선인 점 ▷가슴의 띠 매듭이 13세기와 달리 단순한 점 ▷가사걸이 장식이 통일신라시대보다 세밀해진 점 등을 근거로 12세기 고려 전기 불상이라고 추정했다.

이와 함께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복장 유물도 불상의 조성연도를 짐작케 한다. 복장에서는 발원문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지원(至原) 29년(1292년)이라고 간행연도가 기록된 다라니 3점과 〈묘법연화경〉 4권, 길이가 8m에 이르는 필사본 다라니를 비롯해 쇠 후령통, 구슬, 각종 곡식을 싼 천주머니 등이 발견됐다.



노덕현 기자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사직

"건강상 이유", 16일 사표 수리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이 최근 총무원장직을 돌연 사직했다.

천태종은 "정산 스님이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제출해, 8월 16일자로 수리됐다"고 17일 밝혔다.

스님은 잔여 임기 2년 8개월을 앞두고 급작스레 사직했다. 이에 따라 천태종 총무원은 새 총무원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조동섭 기자**

태고종 前 총무원장 운산 스님 멸빈



태고종 초심원(원장 효성)은 8월 19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회의를 열어, 前 총무원장 운산 스님에게 멸빈 및 44억여 원의 배상청구 판결을 내렸다.

초심원은 운산 스님이 ▷총무원장으로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기채 및 대여행위를 임의로 해 종단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점 ▷부채 상환을 요구했으나 이행치 않고 총무원장 탄핵에 이어 삼원장 탄핵을 주도하는 등 종단 혼란을 야기한 점을 판결 이유로 들었다. **조동섭 기자**

외주위탁 수익사업 재점검할 때

재향군인회 위기 보도되자 조계종 상조사업 우려 높아

재향군인회의 5600억 부채 부도설로 인해 조계종 수익사업이 위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외주 위탁 형태의 천편일률적 조계종단 수익사업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MBC는 8월 15일 재향군인회가 2007년 이후 16개 수익사업을 진행했지만 사업이 부진하다고 보도했다. 재향군인회가 지난달 신용평가사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빚이 2898억, 1년 안에 갚아야 할 단기성 어음이 2700억 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은 지난 해 7월 재향군인회 상조회 (주)향군가족과 상조업무 협약식을 열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당시 종단은 전국적으로 민간 상조 회사들의 비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에 의해 설립된 재향군인회가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향군인회는 조계종과 협약을 맺기 직전인 지난해 6월에도 운영 중인 고속도로 휴게소 일부 운영비를 도로공사 직원과 재향군인회 간부에게 상납해 물의를 빚은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종단은 법에 근거한 단체라는 이유로 재향군인회 상조와 업무협약을 강행했다.

종단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불자들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재무부장 도문 스님은 "재향군인회는 상조회비 중 회원비, 수납액 중 모집수당을 제외한 전액을 주식, 펀드, 부동산등 투기성 투자 및 사업을 배제한 제1금융권에 예탁 중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스님은 "재향군인회 상조회는 현재 고객환급의무금 대비 지급보유비율 112%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계종 재무부 관계자는 "수익구조와 관련해서는 종단도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창건주 권리 어디까지 인정되나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법안)는 8월 24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사찰법 제정안 성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02)2011-1865

조동섭 기자

불교계 최고 영향력 '법정 스님'

〈시사저널〉 설문조사

시사주간지 〈시사저널〉 조사 결과, 불교계에서 故 법정 스님이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조사됐다.

8월 9일자 〈시사저널〉에 따르면 종교 분야에서는 이웃 종교인들이 여전히 강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계에서는 故 법정 스님이 가장 영향력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전체 종교인 중 4위(응답율 13.5%)에 머물렀다.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인으로는 응답자 중 34.7%가 故 김수환 前 추기경을 꼽았다. 김수환 前 추기경은 지난해 조사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정진석 추기경으로 조사됐으며,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5위(10.4%)를 차지했다. 故 성철 스님(9.2%)은 6위, 前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10위(1.3%)였다. **박기범 기자**



"기업의 사회공헌은 당연한 의무"

범현대家 재단 설립에 조계종 환영 논평내

범현대가 그룹들이 사회복지재단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아산나눔재단' 을 설립한다는 소식에 조계종이 환영 논평을 냈다.

조계종 대변인 정만 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은 8월 16일 '국민의 아픔과 함께하고 더 나누는 종교와 기업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제하의 논평을 발표했다.

이어 조계종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교와 기업 같은 분야에서 공적인 역할을 함께 해야 한다. 기업의 사회공헌과 사회적 기여는 특별한 일이 아닌 당연한 의무"라며 "더 많은 기업과 개인, 종교단체들이 국민과 함께 하길 기원하며 조계종 역시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850호 CONTENTS

휴휴암 사태 관련 인터뷰 · 홍법 스님 2
내포가야산 성역화 선포 및 조계사 방생법회 에릭, 법정 스님 비하 발언 3
현장속으로 지율 스님 내성천 답사기 5



불교상담개발원 내부갈등 6
특집 · 석굴암 Ⅱ 14 · 16 · 17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www.hyunbulshop.com

길 막혀 답답! VS 교회에 길 내줘 분통?

양양 휴휴암

사찰 경내의 사유지를 두고 신도와 10대 기업인 동부그룹 측 인부가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양양 휴휴암(회주 홍법)은 "8월 17일 오전 3시경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 측 인부 100여 명이 포크레인 2대, 덤프트럭 2대와 함께 경내를 기습 진입했다"고 발표했다.

휴휴암은 "경내에서 기도 중이던 신도 200여 명이 이들을 항의·저지하는 과정에서 신도 1명이 병원으로 후송됐다. 중장비는 오후 2시 현재, 신도들에 의해 경내에 점거당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 측 용역들은 휴휴암 경내의 김 회장 소유지에 나무를 심는다는 이유로 휴휴암에 진입해 50여 그루를 임시로 심었다.

휴휴암 회주 홍법 스님은 "휴휴암 내 김준기 회장 토지는 500여 평에 달한다. 그동안 휴휴암이 사용하면서 김 회장 측에 토지매입을 요구했으나 무리한 금액을 원해 갈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문제가 된 땅은 동부그룹 측이 매입하기 전부터 도로로 쓰였다"며 "동부그룹이 매입해 방치한 땅을 사유지라며 철조망 등



사유지 처분 이견 갈등

동부그룹과 신도들 충돌

을 치고 신도의 접근을 막는 것은 불교탄압이다"고 주장했다.

동부그룹은 "휴휴암 내 토지가 농지로 돼 있어 토지소유자인 김 회장이 범법자가 되지 않기 위해 나무를 심은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2009년 양양군청이 김준기 회장 소유 토지에 아무 경작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려 2011년말까지 원상복구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동부그룹 홍보실 김동건 차장은 "휴휴암이 그 땅에 들어선 것은 1996년이지만 동부그룹은 관광지 개발차원에서 1970년대 토지를 매입했다"며 "휴휴암이 사유지를 무단점유해 2000년부터 문제제기해 왔다"고 말했다. 또, "휴휴암 측이 토지매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동부그룹은 나무 50여 그루를 심기 위해 오전 3시, 100여 명의 인부를 동원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조동섭 기자**

파주 보광사

파주 보광사가 사찰 토지를 교회 납골당 집입로 내줘 종단 및 본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파주 보광사(주지 수은)는 수년째 사찰 앞 납골당 설치를 놓고 새문안교회 측과 갈등을 겪어왔다. 새문안교회가 납골당 설치를 위해 보광사 앞 부지를 매입해 공사를 시작했지만, 반드시 확보해야할 진입도로 예정 부지 중 일부에 보광사 소유 토지가 포함돼 있던 것.

새문안교회는 보광사 측에 사찰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게 해달라며 사용승인을 요청했지만 보

교회 납골당 진입로 승인

종단, "종법 위반 검토"

광사는 이를 허락하지 않아왔다.

이런 갈등 관계 속에서 보광사 주지 초격 스님 후임으로 수은 스님이 6월 임명됐다. 인수인계 과정에서 보광사 새 집행부는 새문안교회에 사찰 토지의 도로 사용을 허락했던 것.

최근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광사가 개신교 납골당을 허용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해종행위라는 고발도 잇따랐다.

이 같은 비난에는 사찰지를 임대하거나 매매 행위 등을 할 때 필요한 총무원장 허가가 없었다는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조계종 제25교구(봉선사) 신도회는 "개신교 납골당과 부대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지는 못할망정 동조한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광사 측은 납골당 공사는 2009년부터 파주시청이 허가한 사안으로 보광사가 도로 사용승인을 계속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보광사 관계자는 "새문안교회가 보광사 토지를 진입로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보광사 토지 전체에 대한 보증료와 사용료를 납부하고 보광사 주차장에 화장실을 건립해 주는 조건을 제시해 새문안교회 측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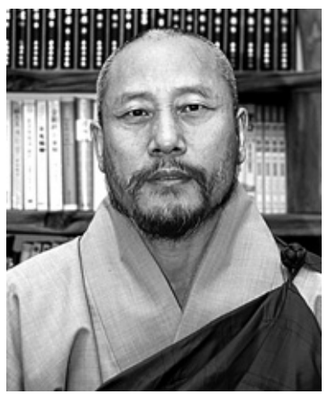
보광사 한동철 종무실장은 "종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전에 총무원장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착오"라면서도 "이번 일과 관련해 교구본사와 총무원이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은 신임 주지 길들이기, 표적 감사"라고 주장했다.

조계종 호법부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놀리는 땅 팔면 될 일"

양양 휴휴암 회주 홍법 스님



"쓰지도 않는 땅을 자기 땅이라도 울타리를 쳐 길을 막아놨습니다. 법당 앞마당에 알박기, 불교탄압이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양양 휴휴암(회주 홍법)에 8월 17일 오전 3시 경, 인부 100여 명과 중장비가 진입해 신도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 휴휴암 경내에 자리한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의 땅에 나무를 심기 위해 일어난 일이다. 이에 대해 휴휴암 회주 홍법 스님(사진)의 목소리는 격앙돼 있었다.

홍법 스님은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은 30여 년 전부터 양양군 현남면 일대에 40여 만평을 사들여 놓고는 개발도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1996년 휴휴암을 창건했다. 법당 앞 김준기 회장 땅 때문에 불사마다 걸림이 있었다. 2000년 들어 동부그룹 측이 재산권 행사를 이유로 김 회장 땅에 울타리를 치면서 대중의 불편은 더 커졌다.

홍법 스님은 동부그룹 측의 이 같은 행위가 사유지라는 이유 때문에 공공에 피해를 주는 것이라 생각해 청와대, 조계종 총무원,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스님은 "휴휴암을 찾는 사람과 차량이 많은데 사유지란 이유로 길도 못 넓히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철조망 등을 둘러 자기 땅이라 표시하는 통에 이만저만하게 흉한 것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홍법 스님은 "김준기 회장 때문에 인근의 노인복지시설 보리수마을도 망했다"고 주장했다.

홍법 스님은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을 만나려고 그룹 본사를 찾아가도 총무원장스님이 와도 만나주지 않았다"며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게 대중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한편, 스님의 주장에 대해 동부그룹은 "휴휴암에는 10여 년 전부터 내용증명 등을 통해 수차례 이의제기를 한 바 있고, 이번 식수를 위한 진입은 양양군청의 행정처분에 따른 공정한 행위이다"라고 밝혔다.

또, "휴휴암 측에서 토지매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세상은 용기 있는 한사람으로 인해 바뀐다" 만해 스님(1879~1944)의 사상과 문학을 기리는 '2011만해축전'이 8월 12~14일 백담사를 비롯한 인제군 일원에서 성료됐다. 12일 인제 하늘내린센터에서 열린 입재식에서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총재 자승 스님은 법어에서 "이 세상은 용기 있는 한사람으로 인해 크고 광범위하게 바뀌어 간다. 부처님이 그러하셨고 만해스님이 그러하셨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화쟁리더십 제2기 개강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 함양을 목표로 한 화쟁리더십아카데미가 9월 5일 제2기 강좌를 시작한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와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가 공동주최하는 행사에는 도법 스님, 윤여준 평화교육원 원장 등 1기 강사를 비롯해 임동원 前 국가정보원장, 최완수 간송미술관 실장, 오강남 캐나다 리자이나대 교수, 유필화 성균화대 교수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화쟁리더십아카데미 제2기 강좌는 11주 과정으로 11월 28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수강 정원은 70명, 등록금은 40만원이다. (02)730-0884

조동섭 기자

조계종 최초 해외교구 설립

美 동부 16개 주 담당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은 8월 9일 열린 제33차 종무회의에서 '미국 동부 해외특별교구' 설립을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미국 동부 해외특별교구는 뉴욕 뉴저지 뉴햄프셔 등 16개 주와 온타리오, 퀘벡 등 캐나다 동부 6개주가 관할이다.

미 동부교구 교구장 선출에는 뉴저지 보리사 원영 스님, 뉴욕 원각사 지광 스님, 뉴욕 청아사 석담 스님이 교구선거관리위원으로 참여한다.

한편, 조계종 직능대표선출위원회는 19일 제23차 회의에서 공석이던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에 상화 스님을 선출했다. **조동섭 기자**

봉선사주지, 정수 스님 단독 입후보

8월 26일 산중총회에서 있을 남양주 봉선사 주지 선거에 정수 스님이 단독 입후보했다. 입후보 예정이던 정수·화범 스님이 18일 만남을 갖고 문중의 원융화합을 위해 정수 스님이 단독 입후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봉선사 관계자가 전했다.

정수 스님은 봉선사에서 운경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운경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구족계를 수지하고, 해인사 강원과 중앙승가대를 졸업했다. **조동섭 기자**

박구원 만평



선암사 재적승려 분한신고

귀의 삼보하옵고
오랫동안 재적승 승적정리가 이행되지 못하여 종무행정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실시하는 제29대 주지선거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분한신고를 실시하오니 재적스님들께서는 전원 동참하시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한신고를 필하지 않은 재적승려는 재적승의 자격이 중지됨은 물론
주지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

1. 승적원부 (총무원 발행)
2. 이 력 서 (사진 부착)
3. 건당확인서 (선암사 합동 건당자에 한함)

신고기간 : 2011년 8월 1일 ~ 8월 31일
접 수 처 : 선암사 종무소
문 의 : 061)754-5247. 061)754-5953

태고총림 조계산 선암사 주지 경 담

불자들 생명·문화 살리기 '한마음'

조계사 · 수덕사 내포가야산 성역화 및 조계사 방생법회

조계사(주지 토진)와 수덕사(주지 지운)가 공동 주최한 내포가야산 성역화 선포식과 조계사 백중 하안거 방생법회에 참여하기 위한 불자들은 8월 15일 이른 아침부터 서산 보원사지를 찾았다.

보원사지를 향하는 불자들은 한결같이 최근 계속되는 장맛비를 걱정했다. 그러나 아침까지도 조금씩 떨어지던 빗방울은 법회가 시작할 때쯤 그쳤다. 동작구와 서초구에서 출발한 신도들은 방생법회 준비가 아직 한 참인 8시에 보원사지에 도착했다. 불자들이 예상보다 일찍 도착하자 법회 준비팀의 손길은 더욱 분주해졌다.

"성역화, 종교문제 아니다"

성역화 선포식과 방생법회는 사부대중의 원력을 결집하기 위해 보원사지가 보이는 공터에서 마련됐다. 4000여 명 이상의 신도들이 법회에 참석하자 넓은 공터에 마련된 야외 법당도 비좁아 보일 정도였다. 미처 법당에 들어오지 못한 신도들은 별도로 마련된 곳에서 법회에 함께했다.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의 축원이 시작되자 신도들은 합장을 한 채 마음속으로 저마다의 기도를 올렸다.

토진 스님 축원 후 수덕사 주지 지운 스님이 인사말에 나섰다. 지운 스님은 "모든 불자들의 힘으로 이곳을 우리 시대 불교 성지로 만들자. 내포가야산 성역화는 종교 영역이 아닌 우리 민족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위한 일이다"고 말했다. 토진 스님도 함께 자리해 준 불자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내포가야산은 백제 시대 교역로로 이용됐고, 불교문화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조계사는 5월초부터 수덕사와 힘을 모아 내포가야산 성역화 활동에 동참했다. 조계사(주지 토진), 수덕사(주지 지운), 옥천암(주지 정범), 보원사(주지 정준)는 '내포가야산 성역화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그동안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들은 내포가야산 성역화의 첫 걸음을 내딛는 의미로 서산마애삼존불 전에서 '천년의 미소, 천일의 기도'를 주제로 1000일 기도 입재식을 가졌다. 또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 중인 보원사 출토 불상을 보원사에 모시는 불사도 함께 진행했다.

성역화 선포식 및 방생법회에는 당진군이 지역구인 김낙성 자유선진당 의원과 이철환 당진군수, 서용제 서산시 부시장, 최운현 예산군수 등도 참석했다. 내포가야산을 공유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불교계가 성역화 사업에 나서자 지역 홍보와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낙성 의원은 "내포가야산은 백제 시대 해상교통 중심지였고, 불교문화의 보고이며 성지이다. 이번 선포식이 백제문화와 불교문화가 빛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사와 수덕사는 도농공동체 구현을 위해 서산시와 당진군에 불우이웃돕기 쌀을 기증했다. 또한 법회 후 불자들이 직거래 장터를 통해 이들 지역의 신선한 생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문을 설법한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은 성역화 사업이 불교가 아닌 국가 문화 전체를 위한 일임을 강조했다. 스님은 "내포가야산 성역화는 불교문화가 아닌 우리나라의 우수한 문화를 되살리고 알리는 일이다. 문화 선진국이 진정한 선진국이다"고 말했다.

밀렵된 조류 치료 후 방생

이날 법회에서는 영가들을 위한 제사가 진행됐다. 제사상에는 술을 따르지 않고 절도 1회씩만 올렸다. 영가의 위패를 모신 반야용선이 소전 될 때는 모든 신도들은 합장한 채 영가의 천도를 기원했다.

신도들은 보원사지를 둘러보며 이번 성역화의 중요성을 가슴에 되새겼다. 토진 스님은 신도들에게 보원사지 주변을 둘러싸게 한 뒤 내포가야산 성역화와 보원사 복원을 함께 서원했다.



불자들이 보원사지에 함께 모여 내포 가야산 성역화와 보원사 복원을 서원했다. /사진=조계사 제공

보원사지를 둘러본 신도들은 '백제의 미소'로 꼽히는 서산마애삼존불을 친견했다. 마애삼존불로 오르는 길은 많은 인원이 교행하기 좁은 산길이다. 그러나 4000여명의 신도들은 작은 사고도 없이 좁은 길을 질서 정연하게 오르내렸다. 아이의 손을 잡은 엄마들과 지팡이를 짚은 노보살들도 부처님을 친견하기 위해 산을 올랐다.

방생법회는 야생조류 30수를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는 의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방생된 조류는 한국조류보호협회에서 밀렵꾼들로부터 포획해 치료를 마친 새들이었다.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과 지승동 조계사 신도회 회장, 구자선 조계사 신도회 고문과 평신도들이 함께 방생의식에 참여했다.

토진 스님은 야생조류를 손에 쥐고는 입을 맞추며 새들이 포획의 아픈 기억과 상처를 잊기를 기원했다. 다른 참가자들도 조류를 방생하면서 자신들의 염원과 근심이 사라지기를 서원했다.

참가자들은 내포가야산 성역화와 보원사 복원의 의미를 담아 보원사지 방향으로 새들을 날려 보냈다. 자유를 얻은 새들은 보원사지 하늘을 한 바퀴 날아오른 뒤 가야산의 품속으로 사라졌다.

박기범 기자



"가야산 성역화는 국가문화 발전 위한 것"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법문

이날 법문은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사진)이 설법했다. 스님은 문화의 중요성과 내포가야산 성역화의 참된 의미에 대해 강조했다.

설정 스님은 "이곳은 수 백 개의 사찰과 문화재가 산재한 곳이다. 문화는 하루아침에 완성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신앙과 철학, 신념이 하나로 결합된 것이 문화다"고 말했다.

스님은 삼국통일 과정에서 승자였던 신라의 문화는 잘 보존돼 왔으나 패자인 백제의 문화는 방치됐다며 안타까워했다. 무관심 속에 방치하기에는 백제의 문화가 우수하고 찬란했기 때문이다.

스님은 또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다. 우리가 내포가야산 일원을 성역화 하는 것은 불교문화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문화를 국민에게 알리고 문화재에 담긴 정신과 문화를 통해 삶의 아름다움을 증대시키기 위해 성역화를 선포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내포가야산 성역화가 대한민국을 진정한 문화국가로 성장시키는 발판이 되기를 기원한다는 의미다. 내포가야산 일대는 문화적으로 경주 못지않은 곳으로 꼽히며 더 많은 문화재들이 발굴되고 보존돼야 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설정 스님은 내포가야산 문화재와 동식물들을 보존해 유네스코 등재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포가야산은 그럴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으며 불자들이 그런 목표를 서원할 것을 주문했다.

스님은 "가야산 성역화는 우리나라의 문화 발전과 정착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과거 없이 현재도 없고, 현재 없이는 미래도 없다. 문화재에 담긴 사상과 정신을 복원하면 국민의 삶이 신장될 것이다. 이 지역을 복원하고 발전시켜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우수한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원과 성역화 선포의 의미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이나은 기자의 페이스북 부루나에서는

큰 스님 비난 가만히 있어야 하나

에릭 · 이지훈 트위터 발언 두고 시끌

에릭의 법정 스님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동료 연예인 이지훈이 에릭에게 트위터를 통해 비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 내용을 전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지훈은 에릭에게 "그냥 논쟁하지 말어.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아라. 네가 욱하고 욱할 때 누가 웃을까?"라며 "글자 하나하나에 성령의 담대하심이 느껴진다. 그 어떤 것이 오더라도 이기리라. 욥과 같은 인내와 다니엘과 같은 확신과 담대함과 요셉과 같은 지혜와 명철이 늘 그 안에 거하길 기도할게"라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지훈은 지난 6월 막을 내린 대한불교조계종 최초의 상업 뮤지컬 '원효'의 주인공 '원효'역을 맡은 바 있다. 때문에 페이스북 부루나에서는 이번 이지훈의 트위터 발언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 씨는 이지훈의 트위터 발언을 캡쳐해 부루나에 올린 뒤 "이지훈 씨가 과연 원효에 어울릴만한 인물이었는지 의문이다. 앞으로는 유명하지 않더라도 유망한 불자를 키웠으면 한다"며 불자 연예인 육성을 강조했다.

불자들의 단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씨는 "타 종교인들은 철저하리만큼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잘 뭉친다. 그것이 모두 옳다는 건 아니지만 불자들은 결속력이 부족하다"며 "불자들의 실천력이 약하다. 불자들이 뭉쳐야 큰 힘을 낼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신교인들과 종교적 견해의 논쟁은 시간낭비이므로 그들의 방식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권 씨는 "개신교인들은 이미 목적과 결론을 정해놓고 있어서 타종교인과 자유로운 토론을 한다 해도 소용없다"며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는 차라리 같은 식으로 되돌려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 불교가 우상숭배미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럼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고 물위로 걸었다는 것은 과학이냐?' 라고 되받아치는 것이 더 편하다"고 말했다.

권 씨는 이어 입적한 큰 스님들을 비방하는 공인들에게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법적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계종은 수시로 일어나는 공인들이나 영향력있는 목사들의 망언에 대해 '사자명예훼손죄' 명목으로 소송해야 한다"며 "그래야 성철스님 오도송관련 유언비어나 에릭 사건과 같은 관행이 줄어든다. 도대체 조계종은 무엇하고 있는 것인지 툭하면 사방에서 헛소리를 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이나은 기자

에릭, 법정 스님 비하발언 논란

"법정 스님도 살인했잖나?"

가수 겸 배우 에릭(본명 문정혁)이 법정 스님 비하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에릭은 트위터를 통해 자신에게 고민 상담을 하는 팬들에게 성경 구절을 인용한 위로의 말을 자주 전했다. 이에 한 팔로워는 " '믿지 않는다해 자신의 자식이라 하는 인간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당신네들의 신들은 난 당최 이해할 수가 없다. 지옥에 가서 버림받는 그 억울한 영혼들을 구제하겠다' 라는 말이 있다"며 법정 스님의 말을 소개했다.

이에 에릭은 8월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마음은 얼마나 숭고합니까 마는 법정 스님도 이미 마음속에서 살인을 하셨잖습니까? 구제할 수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못하다"라는 말을 남겨 논란을 야기했다.

에릭의 이 같은 발언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자 에릭은 8월 13일 트위터를 통해 공식 사과에 나섰다. 에릭은 "법정 스님을 존경하는 많은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시다!

사찰등록 !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직할 종단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종정대행 : 목탁 혜은 부원장 : 금당 법성
포교원장 : 불도 천장 교육원장 : 현담 송광 감찰원장 : 일해 공심 비구니 회장 : 대행 보현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일 주 문



생명나눔 장기기증 서약식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8월 25일 부산에서 장기기능 서약식을 봉행한다.



중앙승가대 후기 학위 수여식
중앙승가대 총장 태원 스님은 8월 18일 교내 대강당에서 후기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다.



교구본사 사무장 대만 연수
조계종 총무부장 영담 스님은 8월 20~24일 대만 불광산사 등지에서 '교구본사 사무장(종무실장) 해외연수'를 실시했다.



송광사 제7회 금강산림대법회
순천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10월 14일~11월 4일까지 제7회 금강산림대법회를 개최한다.



대중결사 가족과 함께하는 대중결집대회
청정승가대중결사 의장 만초 스님은 8월 27~28일 공주 마곡사와 전통불교문화원 일대에서 대중결사 가족과 함께하는 대중결집대회를 개최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미래복지포럼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종선 스님은 8월 25일 오후 2시 재단 프로그램실에서 8월 미래복지포럼을 개최한다.



진흥원, 영문 '부디즘 앤 컬쳐' 창간
민병천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8월 1일 '부디즘 앤 컬쳐(Buddhism and Culture)'를 계간으로 창간했다.
(02)719-2606

동국대, 전순표 세스코 회장에게 명예박사



동국대(총장 김희옥)가 8월 19일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전순표 세스코 회장에게 명예경영학 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전순표 회장은 1957년 동국대 농학과를 졸업하고 1973년 동국대 농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전순표 회장은 제24대 동국대 총동창회장(2007~2009)을 역임했다.

바로잡습니다 849호 일주문의 평창 월정사 주지 퇴우 정념 스님의 사진이 양양 낙산사 회주 정념 스님의 사진으로 나갔습니다. 정정 보도 합니다.

보수종교단체 과욕이 문제

사랑의교회 신축 진실 규명촉구 종자연 정윤선 위원장



"사랑의교회는 신축 과정에서 공익을 침해했습니다. 종교의 문제를 떠나 시민사회와 주민,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정윤선 운영위원장(사진)은 뜨거운 날씨 속에 땀을 흘리면서도 사랑의교회 신축의 진실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25개 시민사회단체는 '사랑의교회 신축관련 서초구청의 건축허가와 서울시의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감사청구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8월 18일 서초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사랑의교회 신축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와 건축허가처분무효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감사준비위는 이번 감사청구가 상식을 무시한 종교단체나 부패한 공무원들이 더 이상 이 땅에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공익은 교회권력이건 사찰, 기업 누구도 침해 할 수 없는 영역이다"고 지적했다.
정윤선 운영위원장과 감사청구 준비위는 서초구청이 건축허가 이전부터 사전 준비를 해왔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사랑의교회 신축공사의 건축허가일이 6월 17일이지만 서초구청은 이미 2009년부터 서울시청과 국토해양부 등에 공공도로의 지하점용에 대한 법리해석을 의뢰했다. 우리는 10만인 서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진행, 9월 말 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사랑의 교회가 대법원 맞은편 서초역 3, 4번 출입구 옆에 신축을 진행하면서 인접 공공도로인 참나리길을 폐쇄하고, 서초구청이 지하 예배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이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공공도로 지하를 특정 종교단체가 사적 용도로 점유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미 2008년에 "특정 종교시설의 경우 그 사회·경제·문화적 의미가 매우 제한적인 시설물이므로 그 이용의 편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도로점용허가신청은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신축공사에서는 기존 출입구가 폐쇄되고 서초역 이용자들이 모두 교회부지로 통하는 출입구를 이용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교회 안에 구립 유아원이 설립돼 주민들의 종교 자유와 통행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정윤선 운영위원장은 "이번 일이 진실 규명 없이 끝난다면 사적인 목적으로 공공의 영역을 점용하는 허가들을 막을 수 없게 된다. 권력화된 보수종교단체가 과욕을 보이고 거기에 국가권력이 흔들리면서 발생한 문제다.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일본은 식민지 지배 반성 않는다"

일본서 소송 준비중인 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총장 혜문 스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제자리찾기(사무총장 혜문·사진)와 조계종 중앙신도회 등이 일본이 약탈한 우리 문화재를 찾기 위해 오쿠라 재단을 방문했지만 사실상 거부 의사만을 확인하고 돌아왔다. 혜문 스님과 중앙신도회 등은 8월 10일 일본 오쿠라 재단을 방문해 평양율리사지석탑과 이천고려5층석탑의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단은 우리측에 '약탈' 표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등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다.
양측의 만남은 문화재제자리찾기 측의 반환 요청에도 묵묵부답인 오쿠라 재단이 최근 만남을 요청함에 따라 성사됐다. 문화재제자리찾기와 중앙신도회는 최근 조선왕실의궤 반환이 결정되고 오쿠라 재단측이 먼저 면담을 요청함에 따라 재단측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했다. 혜문 스님은 오쿠라재단이 보여준 자세가 역사에 대한 몰이해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오쿠라 호텔 맞은편에는 미술관인 오쿠라 슈코칸이 자리하고 있다. 미술관 뒤뜰에는 일본 실업가 오쿠라 가하치로가 일제 강점기 때 경기도 이천에서 가져간 이천오층석탑과 평양율리사지석탑이 있다.
평양율리사지석탑은 고려 시대에 제작돼 지금은 터만 남아있는 율리사에 있던 것이다. 이천오층석탑은 고려시대 이천시 관고동에 세워진 것을 조선총독부가 경복궁으로 옮긴 뒤 오쿠라가 1918년 일본으로 반출했다.
문화재제자리찾기와 중앙신도회는 올해 3월 북한의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로부터 일본 오쿠라 호텔이 소장하고 있는 평양율리사지 석탑의 반환운동 권한을 위임 받았다. 이를 토대로 오쿠라 호텔측에 2기의 석탑 반환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면 도쿄 지방재판소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전달했다.
그러나 재단이 반환을 거부함에 따라 민사소송을 준비중이다.
혜문 스님은 "당초 오쿠라 재단이 반환을 거부하면 민사 소송을 계획했었다. 내부 검토를 거쳐 민사 소송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2년은 한국, 2년은 미국서 공부



김영종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지난 8일 캘리포니아주립대학 새크라멘토(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cramento)를 방문해 알랙산더 곤잘레스(Alexander Gonzalez) 총장을 만나 모든 학과에 걸친 '2+2 복수학위제'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라 양교는 복수학위제, 인턴십, 교직원 및 학생 교류 등 학술교류를 추진한다.
김영종 총장은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하는 캘리포니아주립대와 복수학위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동국대 경주캠퍼스 학생들은 2년은 경주에서 2년은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에서 공부하여, 동국대와 캘리포니아주립대 2개의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노덕현 기자

조계사 선림원 여름 명상 캠프

조계사(주진 토진)는 청소년과 부부를 대상으로 선림원 주관으로 여름 명상 캠프를 진행한다. 이번 캠프 '나를 알면 너를 인정해요!'에서는 양파 껍질처럼 겹겹이 둘러싼 나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름캠프는 조계사 일원에서 진행되며 접수는 불교대학 교육국에서 방문접수로 가능하다. 현재 중학생 대상 캠프는 마감된 상태이며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캠프는 8월 27~28일, 고등학생 대상 캠프는 9월 24~25일 실시된다.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명상 캠프는 9월 3~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조계사 관계자는 "이번 명상캠프를 통해 나와 타인을 이해하고 나아가 나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선을 갖춘 조화로운 사회구성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1월 개설된 조계사 선림원은 사회지도층 및 전문 경영인을 대상으로 전통수행법인 참선과 이론을 지도하는 과정이다.
문의: (02)720-1390

박기범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 선무도 관람



김황식 국무총리는 8월 12일 경주 골굴사(주지 적운)를 방문해 선무도 공연을 관람했다.
김 총리는 선무도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골굴사는 800만 경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매일 2회씩 정기 선무도 공연을 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단지불회, 백중 맞아 지역민에 장학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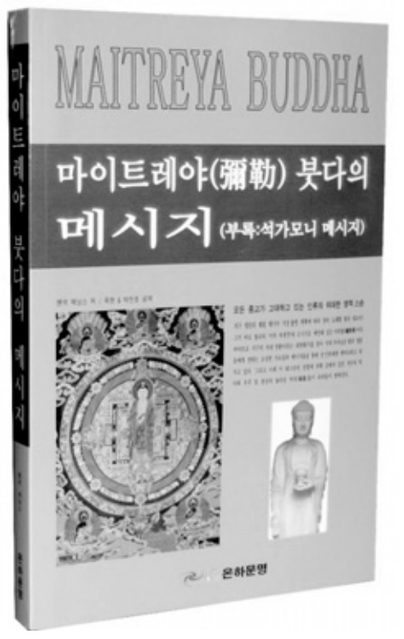
명진 스님과 함께하는 수행모임 '단지불회'는 8월 14일 백중을 맞아 '두 번째 희망나누기' 행사로 이웃과 함께 하는 백일 기도 동참금 2000만원을 충북 제천 중고등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한편, 명진 스님은 지난 3월 충북 제천 보광암에서 수행 정진 중으로 5월 17일부터 '이웃과 함께 하는 100일 기도'를 진행하고 있다. 단지불회는 '첫 번째 희망나누기'로 덕산지역 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축구용품을 지원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미륵부처님과 붓다가 인류에게 직접 전하는 영적 가르침과 지구 행성의 미래에 대한 조망!

전 종교인 필독서

마이트레야(彌勒) 붓다의 메시지



지구촌에 계속 빈발하고 있는 심각한 천재지변과 기상이변들! 머지않아 출현할 모든 종교가 고대하고 있는 인류의 위대한 영적스승인 미륵불이 말법시대와 급박한 지구의 대변혁기를 맞아 인류에게 계시를 내리다!!

- 장차 도래할 메시아적인 세계 교사가 긴급히 전하는 가르침과 메시지들 -

〈마이트레야(Maitreya)〉란 본래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로서 불교에서 말법시대(末法時代)에 지상에 출현해 중생들을 구원하기로 예언돼 있는 미륵(彌勒) 부처님을 뜻한다. 장차 지상에 도래할 구원불(救援佛)이자 미래불(未來佛)인 미륵에 관한 내용은 '중일 아함경'이나 '미륵 삼부경(미륵상생경, 미륵하생경, 미륵대성불경)' 등의 불교 경전들에 설해져 있다.
이 책은 바로 그 미륵 부처님이 지구의 대변화기를 맞아 이 시대의 우리 인류에게 직접 전하는 메시지와 가르침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가능한 이유는 1980년대 이래 서구에서 활성화된 '채널링(Channeling)'이라는 영적교신 방법을 통해서이다. 미륵 부처님은 이 책에서 평이한 언어를 통해 우리가 세속적으로 행복해지고 성공적 삶을 살 수 있는 원리에서부터 영적입문의 길, 깨달음, 현 지구의 상황과 차원상승 문제, 창조적 근원과 천상의 계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소상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또한 부록으로 지구의 현 〈행성 로고스〉인 석가모니 붓다의 심오한 메시지도 첨부돼 있다

"이 지구 행성은 혼자의 힘으로는 자신을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는 단계까지 와 있다. 이 행성은 인간에 의해 강탈당하고 약탈되고 황폐화되었다. 그러므로 어떤 외부의 도움이 없다면 틀림없이 이 행성은 산산조각 나고 말 것이다. 바다와 육지, 대기는 오염되고 유독 성분이 가득하다. 인류도 거기에 중독되어 건강이 좋지 않으며, 많은 이들이 병들어 있다.
게다가 인류는 "개가 개를 먹는" 3차원의 의식(意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3차원적 의식은 경쟁하고 비교하는 자기중심적 성향을 가지며, 생존을 위한 투쟁에 매달려 있다. 마치 공급원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 1부 9장에서 -

고대 마야예언이 지정한 2012년! 지구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오는가?
2012 지구 차원 대전환과 천상의 메시지들



서기 2012년 12월 21일, 동지(冬至)에 마지막 날짜로 끝나 있는 마야력의 비밀은 무엇인가? 이 책은 최근의 과학적 지구변화 정보와 천상에서 오는 여러 메시지들을 통해 2012년에 있게 될 지구와 인류의 대변화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다.
2012년의 문제는 단순히 인류가 멸망하느냐, 생존하느냐의 이분법적 도식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는 우주적인 진화의 주기에 관련된 인류의 영적진화 문제가 깊이 연계돼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가오는 지구의 차원 전환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완벽 가이드북.

朴燦鎬 지음 / 신국판 / 20,000원

도서출판 은하문명 TEL 02)737-8436, FAX 02)737-8486 (www.ufogalaxy.co.kr)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나는 내성천 대변인입니다”

– 지율 스님–


내성천을 걷고 있는 지율 스님. 낙동강 준설공사 영향으로 모래가 유실돼 수심이 깊어졌다.


8월 10일 영주댐 공사현장. 영주댐이 완공되면 상류는 수몰되고 하류는 육지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성천 회룡포에 세워진 2008년 국토해양부가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중 최우수 하천’ 기념비.

영주댐 공사가 한창인 내성천 답사기

“우리가 강이 되어 봅시다. 강을 위한 공사는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닌 강의 입장에서 진행 돼야 합니다.”

‘천성산 지킴이’ 지율 스님이 이번에는 내성천의 대변인을 자처 하고 나섰다.

8월 10일, 내성천 지키기 운동을 하고 있는 지율 스님과 영주댐 공사가 한창인 영주 내성천을 찾았다. 이날 답사에는 ‘내성천 자연습지 복원을 위한 1만평 땅 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내셔널트러스트도 함께했다.

내성천은 낙동강의 제 1지류로 경북 봉화에서 시작해 100km에 달하는 강이다. 강은 봉화-영주-예천을 거쳐 삼강에서 낙동강과 합류한다.

천애 자연을 간직한 내성천

“찰칵. 찰칵. 찰칵.”

아름다운 절경에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 바빴다. 지율 스님은 “이곳도 곧 침수될 예정입니다”라고 말했다.

스님은 “내성천 주변에는 가게도 하나 없어요. 모텔 같은 숙박업소도 당연히 없습니다. 띄엄띄엄 사는 몇 지역 주민들만 살고 있을 뿐입니다.”이렇게 깨끗한 청정한 지역이 요즘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며 내성천이 한국의 하천을 대표 할 만한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율 스님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내성천 하류 ‘회룡포’에는 2008년 12월 국토해양부가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하천 중 최우수 하천’이라는 비석이 서있다. 물이 둘굴에 돌아 나가면서 만든 육지 속 섬마을은 그야말로 절경이다. 회룡포는 TV프로그램 ‘1박 2일’ 촬영팀이 다녀가 대중들에게 친근한 곳이기도 하다.

유네스코유산에 등재돼야 할 강

“내성천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유래를 찾기 힘든 모래강 입니다. 강폭이 50m에 달하는 곳도 있지만 거뜬히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모래강은 모래가 많은, 정확히 말하면 모래톱이 넓게 펼쳐진 강이다. 바다로 치면 갯벌과 흡사하다. 내성천은 드넓은 모래톱이 펼쳐진 모래강으로 수심이 얕고 유속도 느리다. 내성천 상류에서부터 시작되는 모래톱은 지하 10~20m까지 쌓여있다. 이 모래는 지하 6m 까지 수분을 함유해 건기에는 수분 손실을 막고 우기에는 유량을 자동 조절해 주는 자연 조절 장치역할을 한다.

그동안 모래가 많이 퇴적된 강은 지표수가 ‘나쁜 강’으로 치부됐다. 특히, 홍수의 주원인이 되고 강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저평가 돼왔다.

지율 스님은 “우리는 그동안 지표수 중심으로 강을 평가해 왔다. 이제는 모래가 유량을 조절하는 저장고라는 인식을 바로해 하천 평가 기준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모래의 역할을 강조했다.

교원대 지질학부 오경섭 교수는 “모래는 하천의 ‘콩팥’이다. 강물은 다공질 모래층을 통과하면서 자연 수질 정화가 일어난다”고 말했다. 내성천은 거주지인 봉화읍을 관통하는 구간에서도 1급수를 유지해 은어가 서식하고 있다. 내성천의 훌륭한 자연 생태계를 이루는 근간이 모래톱인 것이다.

영주댐과 함께 사라질 내성천

한국을 대표하는 모래강, 아름다운 절경, 희귀보호어종인 희수마자와 천연기념물인 수달 등은 영주댐 완공과 함께 사라질 운명들이다.

내성천 허리를 싹둑 잘라내는 영주댐 공사는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댐이 완공되면 내성천 중상류는 수몰돼 사라진다. 하류는 다른 댐이 들어선 하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듯이 유량이 줄어들어 결국 육지화 된다.

지역민들은 “내성천 버드나무 아래 있으면 천연기념물인 원앙이 비처럼 쏟아진다”고 말한다. 원앙은 한번에 10여 개의 알을 낳는 까닭에 버드나무 군락지가 잘 조성된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장관이다. 내성천 상류부터 하류에 이르기까지 전 구간에서 서식하는 수달역시 천연기념물이다. 은어들의 산란 장소인 내성천이 파괴되면 1999년부터 해마다 열려 온 은어 축제도 사라진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김금호 사무국장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자연의 소중함을 깨달을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밑 빠진 쌀독에 쌀 새듯이

내성천에는 전에는 볼 수 없던 절벽이 생겼다. 유량이 빨라져 모래가 함께 쓸려나간 탓이다. 지율 스님은 “낙동강의 모래를 파내는 준설공사가 진행 될수록 빈곳을 채우려는 모래들이 이동해 생기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우리 눈으로도 변화가 하루하루 느껴지는데 생태계가 얼마나 많이 망가지고 있는지 측정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4대강 사업은 전국토의 지천과 하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라고 호소했다.

이 지역에서 태어나 50년을 살아온 지역주민 이 씨는 “이렇게 모래가 많이 떠내려 간 것은 평생 처음 본다. 물살도 너무 빨라졌다. 낙동강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는 차도 건너가고 어린애들도 쉽게 건너다니던 강이었는데 요즘은 무서워서 건널 수가 없다”고 말했다. 지역주민들은 “낙동강 공사 시작한지 불과 몇 년 만에 내성천은 너무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자고 일어나기가 무섭다”고 입을 모은다.

며느리도 모르는 정부 공사계획

“가장 큰 문제는 아무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곳까지 배를 띄운다는 말도 있는데 그럴 환경이 안 되는 곳인데…전혀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지율 스님은 내성천 공사가 아무 계획 공시 없이 진행 중인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 했다. 정부가 홀로 단행하니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나 환경 조사도 할 수 있고 미리 보존하거나 다른 대안 을 제시할 방도가 없다는 말이다. 스님은 “우리가 하는 일이 정부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는 쪽으로 개발도 되고 공사도 진행 할 수 있도록 정부를 돕고 싶다”고 말했다.

지역민들은 물난리 한 번 난적 없는 지역임에도 이곳에 댐을 세우는 연유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한다. 지역 군수도 영주댐 공사 다음에 또 무엇이 계획돼 있는지 모른다. 일하는 당사자도 모르고, 조사하는 사람도 모른다. 지율 스님은 “정부가 계획하는 일의 1/10도 모른 채 그저 보고만 있어야 한다. 국민에게, 지역주민에게 공사 계획과 그 타당성을 당당하게 밝히고 정부사업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성천이 복원되는 그 날을 위해

“성공도 실패도 없습니다. 영주댐이 완공 된다고해서 ‘내성천 살리기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10년이고 20년이고 내성천의 황폐해지고 사라져가는 자연 생태계를 다 기록해 증거로 남길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 할 그날을 기다립니다. 또 그날이 오면 제가 기록했던 증거들이 복구의 기준이 되어 내성천이 지금과 가장 비슷한 모습으로 남아 복구되기를 바랍니다.”

지율 스님은 “영주댐 공사는 그동안 강에 무관심했던 우리 탓이라며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번 ‘내성천 살리기 운동’을 통해 대중들에게 강의 소중함을 일깨우기만 해도 큰 수확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다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으리라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한부 선고를 받은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처럼 내성천이 망가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지율 스님은 일명 ‘도룡뇽 소송’으로 힘든 나날을 보냈지만 결코 환경운동을 멈출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천진영 기자

내셔널트러스트 ‘내성천 1평 사기’ 운동

내셔널트러스트는 정부에서 미쳐 손을 쓰지 못해 사라져 가고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시민들의 기부금과 증여를 통해 매입해 보존하고자하는 기구다. 2000년에 설립된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내성천 인근 부지 연내 1만평 매입을 목표로 1인 1평 5만원 ‘내성천 1평 사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02)739-3131

후원계좌 하나은행 247-910005-41404

선어사전
옛 선사들의 깨달음의 향기를 온전히 전해주는 선어 해설!
禪語事典
누구나 쉽게 읽으면서 선의 근본 뜻을 이해하고 선문화가 가지는 교결皎潔한 정취를 맛볼 수 있는 선 입문서!
적정寂靜하면서도 활발발한 선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선자禪者들의 필독서!
선어 940여 개, 등사 및 선어록 80여 개 수록!
혜원 편저 | 사륙판 양장 | 512쪽 | 값 23,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전화 (02) 926-8361 ●주문 (02) 3672-7181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중생들을 고난으로부터 구제해주시는 33분 관세음보살님과의 만남!
우리 곁에 계신 33관세음보살 이야기
33관세음보살은 어떻게 탄생했으며, 어떤 모습으로 중생들에게 나투셨는가? 항상 중생들 곁에 계시면서 중생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33분 관세음보살님의 유래와 영험담!
전통과 현대적 기법이 조화를 이루어 그려 모신 33관세음보살도! 중생들의 어려움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어 고난으로부터 구해주는 33분 관세음보살님의 성스럽고 친근한 모습!
방경일 글 • 남종진 그림 | 국판 변형 | 컬러 | 256쪽 | 값 13,000원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불교상담개발원 소통부재로 내홍

8월 5일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 종교 톺아보기 제22회에 불교계 상담봉사자 김선희 씨가 출연했다. 김선희 씨는 "이렇게까지 올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게 됐다"며 입을 열었다.

상담개발원에 소속된 상담가가 직접 내부 문제를 언론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2009년 사무총장이 직장 내 성희롱 발언으로 해임되고 담교 스님이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화합 무드가 조성되던 불교상담개발원 이미지가 또 다시 실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김선희 씨는 방송에서 "상담개발원에서 활동하던 B감사가 담교 스님의 일방적 통보로 부당하게 해임당했다.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해명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어떤 답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씨가 출연한 방송 내용에 대해 사무국은 "사실이 왜곡되고 오해된 부분이 많다. 한 쪽 의견만 듣고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방송을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소통의 부재가 낳은 화
해임이 아닌 임기만료

김성례 사무국장은 "원장 스님은 인터넷 공간을 통해 글로 답하면 오해가 더 커질 것으로 봤다. 댓글 대신 만나서 직접 대화로 풀고자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후 관계자들은 7월 말 식사자리를 마련해 오해를 풀고자 했지만 7월 말 쏟아진 폭우와 원장 스님의 개인사정으로 약속이 미뤄졌고 오해는 증폭됐다.

김선희 씨는 "무시와 외면으로 전혀 소통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성례 사무국장은 "무시가 아니라 좀 더 신중하고자 한 처사였다"며 입장 차이를 보였다.

B감사는 임기 만료된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3개월 간 연락이 없자 연임 여부를 알고 싶었다. 감사 임기가 만료됐더라도 업무감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B감사는 "감사 연임에 대한 사전 통보도 없었으며, 연임거부에 대한 사전설명이 전혀 없었다. 임기만료를 통보받게 된 형식과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례 사무국장도 "B감사에게 미리 연임 문제 등을 상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잘못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방송이 나간 후 19일 담교 스님과 사무국장, 지난해까지 팀장으로 활동했던 김선희 씨, B감사는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김선희 씨는 "자격증 관련한 부실 교육 및 부정 발급 ▷단체장의 지도력 문제 및 사무국 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에 대해 개선안을 요구했지만 답이 없었다.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담교 스님은 만남의 자리 이후 "와전된 부분이 많았으나 모든 오해가 풀렸으며 앞으로 소통을 위해 서로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사무총장 사건으로 와해된 단체의 내실을 다지고 있는 중이고 가시적인 부분은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불교상담개발원은 조계종 포교원 산하기관으로 연 300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지원금으로는 3명의 실무자 임금으로도 부족하다. 실무자도 1명이 더 충원돼야 하나 빠듯한 예산으로 인력 충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상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웠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불교상담개발원은 2009년 前사무총장이 상담원 내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 사건에 따른 해임 조치 등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김선희 씨는 "前 원장 정덕 스님이 사무총장을 내보내기 위해 5명과 협조하여 성희롱 사건으로 공모한 일, 현 원장 스님의 무능으로 인한 불교상담의 진로에 대하여 무대안 · 무소통 · 무대책으로 불교상담개발원의 퇴행 상태는 일련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B감사의 임기 만료 역시 비슷한 사례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계종 포교원 전창훈 포교팀장은 "내부의 문제를 밖에서 찾기 보다는 활동가로서 적극적인 자세로 내부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상언 기자

팔정도 실천해야 평화로운 삶 가능

열린선원 법현 스님, 칠석·백중 특별정진



열린선원(원장 법현 · 사진)은 8월 6~14일 칠석과 백중 사이 9일간을 생사참구 주간으로 정하고 특별정진으로 회향했다.

열린선원은 8월 6일 목정배 동국대 명예교수를 초청해 '만남의 오만가지 인연'을 주제로 견우직녀의 애틋한 사랑이야기와 칠석기도의 인연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나머지 8일간 열린선원은 팔정도의 가르침을 새기며 정진기간을 갖고 14일 법현 스님의 생사참구 회향 법문과 추선공양을 봉행했다.

법현 스님은 법회에서 "세상은 고통스러운데 그 원인은 집착이 뭉쳐있어서 그렇다. 우리는 열반이 없어진 평화로운 상태의 삶을 누릴 수 있다"며 팔정도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법현 스님은 하심(下心)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내 마음이 편하고 밝으면 그 곳이 정토다.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나 자신 스스로가 부족하고 모자른다고 생각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불교계 탈북 청소년·다문화 가정 돕기 확산

탈북 청소년 및 다문화 가정 돕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 진오 스님은 홀로 북한을 탈출한 청소년을 위한 쉼터를 마련한다. 진오 스님은 8월 24일 북한이탈 무연고청소년 그룹홈 '오뚜기쉼터'를 경북 구미시 지산동에 개소한다. 센터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공동운영하며 9~24세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24시간 돌봄체계, 학습지도, 남한생활 적응프로그램, 의료지원, 심리상담, 특기적성 지원, 취업과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회장 이현수)는 1주년 창립기념 행사로 다문화 가정 돕기 바자회 및 박재동 화백 기금 나눔전을 진행한다.

직할교구신도회는 8월 27~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및 조계사 경내에서 창립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자성과 쇄신 결사와 관련한 나눔결사 실천의 일환으로 다문화 가정을 돕기 위한 기금마련 행사로 다채롭게 진행된다. 8월 28일 오후3시에는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문화공연과 창립 1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박재동 화백이 기금마련을 위한 전시회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나무갤러리에서 이틀간 열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계사 경내에서는 직할교구신도회 13개 사찰신도회에서 나눔 바자회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마련된 기금은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마하이주민센터에 지정 기탁할 예정이다.

이상언 이은정 기자

스님과 신부님,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꿈을 찾아주기 위해 스님과 신부, 전문직 종사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은 8월 16~18일 강원도 인제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가톨릭 산하 사회공헌 단체인 바보의 나눔과 소외계층 청소년의 꿈 찾기 '의지나눔 여름캠프'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변호사, 교수, 요리사, 간호사 등 20여 직종의 봉사자들이 저소득가정 및 한부모가정, 조손가정의 청소년을 돕고자 나섰다. 전문직 재능봉사자들은 80여 소외계층 청소년 다양한 직업에 대한 이해, 자존감 향상을 위한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전문직 직업군 특강인 '만나고 싶어요!' 시간에는 VG(Volunteer Generation)밴드를 비롯해 배우 안석환 씨와 여성산악인 오은선 씨, 개그맨 조지훈 씨가 참여했다.

천진영 기자



조계종, 수혜복구 물꼬트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스님들과 고승덕 한나라당 국회의원(서초구 서초을),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8월 17일 서초구 우면산 전원마을 비닐하우스 촌을 찾아 수해 피해 현장을 돌러보고 위로금을 전하고 민원을 청취했다. 노덕현 기자

재가 의견 종단에서 받아들이나

신도단체 대중공의 교구신도회 회장단 연수

종단운영에 재가자들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과 포교원(원장 혜총)은 8월 25~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과 청평 풍림리조트에서 신도회 신도단체 대중공의(大衆功議) 및 교구신도회 회장단 연수를 개최한다.

포교원은 "사부대중 공동체의 추진을 위해 종단 집행부와 신도대표자 간 소통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또한 종단 33대 주요사업인 '신도교육화 조직화'의 세부추진 방향으로 '교구신도회 및 신도 단체 활성화'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종단운영의 재가 영역 구축 △사부대중 공동체의 구체적 실현 △분기별 회의 정례화 △교권도회 조직화 구축을 목적으로 집행부와 교구신도회 회장단, 신도단체 회장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은정 기자

아시아 8개국 청소년 한국 방문

국제선센터, 국제청소년불자 템플스테이

국제선센터(주지 현조)는 8월 25~29일 국제청소년 불자대회 템플스테이(East Asia International Buddhist Youth Exchange 2011)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아시아 8개국 청소년 75명과 한국 청소년 25명이 참가해 한국불교를 배우고 사찰을 돌아본다.

EAIBY는 세계의 젊은 불자들의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모임으로 2010년 대만에서 2009년에는 일본에서 개최됐다. '지금 그리고 여기에, 삶을 깨워라! (Now and Here, awakened life!)'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한국의 국제선센터와 태국에 본부를 둔 세계청소년불자연합이 공동 주최한다.

행사에는 아시아 8개국으로 구성된 세계청소년불자연합(The World Fellowship of Buddhist Youth) 소속 청소년을 비롯해 한국 청소년 불자로 구성된 'CLUB 25'가 참가한다. (02)2650-2200

천진영 기자

봉은사 선지식 초청법회

서울 봉은사(주지 진화)는 8월 21일~9월 25일 매주 일요일 10시 봉은사 법왕루에서 선지식초청 일요법회를 개최한다.

8월 21일 초청법회는 前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의장 영진 스님(문경 대승사 묘적암 주석)을 시작으로 28일 대구 파계사 성전암 현응선원 선덕 일오 스님, 9월 4일 前 각화사 태백선원장 고우 스님(봉화 금봉암 주석), 9월 18일 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 9월 25일 봉화 축서사 문수선원장 무여 스님 순으로 진행된다.

이상언 기자

공생선원 9월 개강



(정엄 스님)

• 참선반 – 금강경 매주 화요일 (무각스님)
• 경전반 – 화엄경 매주 목요일 (정엄스님)
• 입문반 – 일상속의 수행, 선문촬요 수요일, 목요일 (무각스님)



(무각 스님)

오전 10시 30분 . 오후 7시 30분

그대 삶이 경전이다



자세한 문의는 공생선원 종무소(02-900-2448)로 해 주십시오.

대한불교조계종 공생선원

서울시 도봉구 쌍문2동 653번지 삼환프라자 7층
(http://cafe.daum.net/zenmaster)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1년 8월 1일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1년 9월 6일 화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불 교 예 술 대 학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원서교부 : 2011년 8월 1일부터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1년 9월 9일 금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운암은 좌파 아닌 불교독립운동가"

운암 김성숙 선생 사상 조명하는 자리 열려

무저항 비폭력주의
민본 민주공화국 꿈꿔
공산 아닌 민조주의자
그 기반에는 불교중도사상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낸 독립운동가 운암 김성숙(태허 스님) 선생의 항일운동 근저에는 불교의 회통사상이 담겨 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8 · 15광복절을 앞두고 운암 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회장 민성진)는 8월 12일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운암 김성숙 선생의 생애와 사상 재조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차차석 동방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성숙의 불교사상과 그 변용'이란 발제에서 "태허 스님의 정치사상에는 불교자비사상에 입각한 원융사상이 담겨 있다"며 "그의 정치사상을 면밀히 들여다 보면 무저항 · 비폭력주의였다"고 말했다.

봉선사로 출가한 운암 김성숙 선생은 당시 손병희 선생과 만해 한용운 스님, 불교계 독립운동가 김법린 선생을 사찰에서 만나며 사상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 교수는 운암 김성숙 선생은 불교에 입각한 중도적 정치신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운암 김성숙 선생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닌 그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단체에서 활동했다"며 "민본의 민주공화국에 대한 꿈은 좌와 우로 편중되지 않는 그의 중도적 신념을 말한다. 그는 이를 통해 대립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회통을 지향했다"고 평가했다.

차 교수는 "그의 정치사상에는 불교적 가치가 강하게 내재돼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운암 김성숙 선생의 일생은 불교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평생을 헌신했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용운 한국외국어대 안중근 책임연구원은 "운암 김성숙 선생은 민족주의로 좌우파의 중도적 화합을 꾀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파 위주의 정부하에서도 좌우파의 대동단결을 이끌고자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신 연구원은 "1945년 8월 이후 민족주의 좌우세력이 결합된 중경임정과 같은 단체가 정국을 장악하고 운암 김성숙 선생과 같은 이들이 주도했다면 6 · 25전쟁의 비극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성진 기념사업회 회장은 "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서 광복에 헌신하고 광복 후 조국 통일을 위해 고군분투하신 진정한 독립애국지사였다"고 평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치사에서 "태허 스님이 광복을 위해 바친 삶과 정신이 평화적인 통일국가 건설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운암 김성숙 선생 추모제에서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이 추도사를 낭독하고 있다.

운암 김성숙 선생은?

운암(雲巖) 김성숙(金星淑 · 1898~1969)은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역임한 독립투사였다.

불교계에서는 봉선사 태허(太虛) 스님으로 잘 알려져 있는 운암 김성숙 선생은 19세 때 용문사에서 출가했으며 25세 때 스님 신분으로 중국 북경에 유학한 뒤 중국 각지를 돌며 본격적인 항일투쟁을 전개했다.

'변증법전증', '일본경제사론' 등 20여권의 책을 번역 · 저술했고, 김산(장지락) 등 혁명가들의 리더 역할을 했으며, 조선의열단 선전부장, 조선의용대 정치부장, 임시정부 내무차장, 외교연구위원, 국무위원을 지내며 조국해방을 위해 앞장섰다.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과 5 · 16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혁신정당의 수장으로 활약해 정권의 탄압을 받았으며 1969년 4월 12일 피우정(避雨亭)에서 서거했다.

동아일보는 서거 후인 4월 15일자 지면에서 "애국지사 고(故) 김성숙 옹, 중태 이르도록 병원 한 번 못간 가난, 유산은 단칸집 한 채, 퇴원비 만원 없어 허덕여"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낼 정도로 현실에서 궁핍한 삶을 살았다.

비구구족계 근간인 수계의범 나왔다

정진일 박사 '유부갈마의범' 펴내



불교에 귀의한 자가 출가득도 후 비구계를 수지하는 의식을 명기해 불교의 근간 전적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비구구족계 수계의범이 독일어로 출간됐다.

정진일(괴팅겐학술원 산스크리트 불교사전편찬소 연구원) 박사는 최근 〈근본설일체유부출가수근원갈마의범〉(根本說一切有部出家授近圓羯磨儀範)을 복원해 펴냈다.

〈근본설일체유부출가수근원갈마의범〉은 근본설일체유부에 속하는 것으로 범어, 한문, 티베트어 등 3가지 언어로 전승돼 왔다. 이 문헌은 단일 전적 보존의 경우와 갈마본 일부로 보존되는 경우가 있다.

정 박사는 산스크리트본, 티베트본, 두 종류의 한역본, 범어본의 단어색인, 내용 일람 및 난해한 용어의 범어, 티베트어, 한문 대조표까지 수록하고 있다.

산스크리트본은 1930년대 인도 라훌 상크리트야얀에 의해 티베트에서 촬영된 불교전적 사진을 근저에 두고 있다. 단편적으로 보존된 산스크리트본을 구절을 비교 대조해 복원했다. 특히 지나난드에 의한 첫 간행본의 오류를 수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덕현 기자

〈학술단신〉

■ **불교학연구회**
가을논문발표회 발표신청 공고

불교학연구회(회장 박경준)는 9월 25일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가을논문발표회를 개최한다. 가을논문발표회 발표신청은 박사과정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8월 30일까지 논문발표계획서를 학회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며 된다. (ksbs.re.kr)

노덕현 기자


2011년 불교학 연구회 봄 논문 발표회

■ **문화재청,**
전통문화 체험 및 유적 답사

문화재청(청장 최광식)은 8월 6~7일 부여 한국전통문화학교에서 '2011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대잔치'를 개최했다.

전국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행사에는 전국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과 지도교사 등 200여 명이 참가해 강강술래, 탈춤배우기, 풍물배우기 등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7일에는 백제문화단지를 비롯해 사적 제4호 부소산성, 사적 제135호 궁남지 등 주요 문화재 답사도 진행됐다.

문화재청은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을 전국 초 · 중 · 고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서 총 142개 단체(128개 학교) 5058명이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풍성상주



동국대 선학과 교수

더위가 치성하면 못내 그리운 것이 시원한 한줄기 바람이다. 합죽선 하나쯤 들고 다니면 더위가 해결되던 시절도 있었건만 요즘은 그걸로 직성이 풀리지 않는다. 손에는 얼음이 담긴 컵을 들고 주변엔 선풍기나 에어컨이 필수인 세상이 되었다. 현대인에게 뭔가 감내(堪耐)한다는 것은 타인의 일이다. 어디 덥고 추운 것뿐이랴. 온갖 감정도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과 같다.

영화가 상영되기 전에 백색 천에는 한동안 어떠한 영상물도 보이지 않는다. 한참 지나야 영화가 상영된다. 그 내용에는 사랑과 질투, 용기와 비굴, 좌절과 승리 등 다양한 내용이 마음을 감동시켜 영화에 몰입하게 한다. 만약 관객이 영화 내용에 사로잡혀 일상생활을 한다면 퍽이나 불편할 일이다. 그러나 영화가 끝나면 조금 전의 상황은 모두 지워지고 백색의 천만 남는다. 내 생각이 작용하면 삼라만상이 전개되고 내 생각이 쉬면 주변 모두가 종식되고 만다. 생각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공평무사 하다. 아마 자유방임주의자가 아닐까 한다.

마조의 법을 이은 마곡보철(麻谷寶徹) 선사가 있다. 어느 여름날이었다. 찌는 듯 더운 날 방에서 한 사람이 부채질을 하며 더위를 쫓고 있었다. 거기에 한 객승이 방문하였다. 잠깐 수인사를 한 후, 그 객승은 돌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바람의 본질은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부는 것이 아닙니까."

"암, 그렇고 말고."

"그런데 보철 선사께서는 새삼스러이 부채를 사용하십니까?"

질문 끝에도 선사는 자세를 바꾸지 않고 부채를 부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객승은 뭔가 느낀 바가 있어 마음 속 깊이 경배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오등회원(五燈會元)〉 보철장에 나오는 내용이다.

객승이 느낀 것은 무엇일까. 바람의 본성은 어디에도 있는 것이다. 더워서 시원한 바람을 원하면 어느 곳에도 시원한 바람은 있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바람은 어느 곳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바람을 원한다고 해서 생각만하면 바람이 곧 바로 손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부채를 들고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어느 탐구심 강렬한 사람이 바람의 모습을 확연히 보기 위하여 바람을 멈추게 하면 그 때는 이미 바람은 그 속성을 상실하고 만다. 그렇다고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다하여 바람의 존재를 부정하고 나설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풍성상주(風性常住)'라는 공안이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있다. 사람의 마음에 본래 내재해 있는 불성(佛性)은 사람마다 수행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 신체 가운데에도 있는 것이다. 수행과정에 나타나는 일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제일 떨치기 어려운 것이 번뇌가 아닐까 한다. 번뇌는 꼭 버려야만 하는 쓰레기 같은 것만은 아니다. 번뇌도 소중한 것이라고 본다. 마치 굴 껍질 속에 성가신 목새가 아름답고 값진 진주로 변하는 것처럼 말이다.

'생사 즉 열반이요, 번뇌 즉 보리'라는 말도 모두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번뇌를 소멸하고 나야 만이 보리를 증득 할 수 있다는 것도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연유한 것이다. 번뇌를 몽땅 뽑아내어 소멸시키려는 태도는 흡사 그림자를 상자 속에 담으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벗어나려고 한 만큼 이내 따라 붙는 속성을 지닌 것이 번뇌의 진면목인 것이다.

집의 경계는 울타리가 된다. 울타리는 영역의 경계이기도 하다. 경계의 울타리를 작게 치는 것이 손해인 듯 여기기 쉽다. 그러나 내실은 그렇지 않다. 지녀서 받는 고통은 무엇에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 반면에 마음의 울타리는 크게 치면 칠수록 마음의 안락은 더 없이 증폭된다. 마치 자연의 넉넉한 품 만큼이나 여유로움이 생기게 마련이다. 바람이나 물에 흘러내리는 유사(流砂) 마냥 자유롭기 그지없는 일이다.

'팽팽하게 당기다' 혹은 '잡아 늘이다'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stringere에서 유래된 스트레스란 말도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스트레스는 팽팽하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느슨하다는 경우도 있다.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달려있다. 인간이 그토록 희구하는 수명장수를 생각해 보자. 노후 설계가 잘 된 사람의 경우 수명장수는 분명 축복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노후가 보장되지 않고 질병에 시달리는 장수는 자신은 물론 주변에 대단한 스트레스일 뿐이다.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8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1년 8월 중
◆ 개강일시 : 2011년 8월.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약간명)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 과정(42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기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1년 9월 5일(월요일) 오후 3시(목탁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통신교육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CD우송)
· 강의장소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래,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불공시식, 관음, 지장, 신중청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방생의식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접수 또는 방문접수 (우편, 팩스 접수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사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한선빌딩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재가안거 수행결사는 새로운 불교신행문화

14일, 전국 재가불자 1200명 첫 하안거 회향

8월 14일 오후 2시 울산 해남사에서 '재가안거 수행결사' 회향법회가 봉행됐다. 150여 명의 안거 동참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낙자(불자용 가사)를 수하고, 생애 첫 안거증을 가슴에 안았다.

불교NGO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회장 만초, 울산 해남사 주지)는 5월 17일~8월 14일 90일간 '재가안거 수행결사'를 실시했다.

하안거는 보통 출가수행자들이 음력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 90일간 산문 출입을 삼가고 매일 10시간 이상 참선수행에 매진하는 스님들의 전통적인 집단 수행 기간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스님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안거를 재가불자들을 위한 새로운 불교수행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재가자들은 안거기간동안 각자 정한 시간에 삼귀의를 시작으로 108배나 참선, 염불, 사경 등의 '선택수행'을 한 뒤 수행 서원문 낭독으로 하루 수행을 마무리했다. 이때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미소로 인사하고, 친환경적인 생활을 하며, 나눔과 베풂을 실천하는 등 '7보(步) 선행'을 통해 가족 및 이웃과 나누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를 수행 목록표에 매일 ○, △, X로 실천 상황을 기록하고, 보름에 한 번 포살법회에 참석해 주지스님으로부터 수행을 점검받았다.

지난 하안거 기간동안 재가안거 수행결사에는 울산 해남사를 비롯해 부산의 혜원정사, 홍법사, 대광명사, 미타선원 등 전법도량 소속 사찰과 해남 미황사 등 전국 14곳 사찰에서 1200여 명이 동참했다.

건두리(53 · 법명 선덕행 · 경남 창원) 씨는 하안거동안 매일 새벽 잠든 가족에게 참회와 감사의 삼배를 올렸다. 건 씨는 "평생 절에 다녔지만 스님의 법문도 일주문을 나서면 금방 잊어버려서 안타까웠다"며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부처님 전에 빌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가족에게 절을 하기 시작하니 남편과 자녀들의 삶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현재 건씨의 딸도 매일 21배를 하기 시작했다.

해남사의 최연소 동참자 김미정(21 · 성공회대) 씨는 취업스트레스를 내려놓기 위해 하안거에 동참했다. 김 씨는 "중간에 일주일 정도 힘든 일이 있어서 5일간 수행하지 못한 채 포살법회에 갔더니 만초 스님께서 '수행 중 망상도 자신을 성장시키는 의도였다면 괜찮다'고 격려해주셔서 다시 힘을 냈다"며 "90일간 나와의 약속을 지켜낼 수 있어 가슴이 벅차다"고 말했다.

재가안거 수행결사는 전국 14개 사찰이 공동으로 수행정진 프로그램과 매뉴얼을 마련해, 재가불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안거에 동참하는 프로그램이다. 첫 번째 하안거 수행결사에는 전국에서 1200여 재가불자들이 참가해 원만 회향했다.

만초 스님은"기도는 바람을 부처님께 전하고, 명상수행에서 부처님의 해답은 나를 통해 들을 수 있다"며 "다시 칠보선행을 실천함으로서 수행의 기쁨과 깨달음을 타인에게 나누는 3가지 수행의 단계를 이번 하안거에서 배웠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전국에서 1만 여 명이 재가안거 수행결사에 동참한다면 그 불은 꺼지지 않고, 새로운 불교신행문화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복신앙에 치우치던 불교가 재가안거를 통해 좀 더 건강하고, 실천하는 불교로 성장해 진정한 수행의 기쁨을 맛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는 오는 동안거 5000명, 내년 하안거 1만여 명을 목표로 정했다.

박지원 기자



재가안거 수행결사 하안거에 동참한 재가불자들이 하안거 해제일인 8월 14일 울산 해남사에서 회향법회를 하고 있다.

3박 4일간 절에서 미륵부처로 살기

대불련, 선운사·금산사에서 영 부디스트 캠프 개최



대불련 학생들이 여름수련회에서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

전국 대학생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교를 논하는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이인근 · 이하 대불련) 'Young Buddhist Camp'가 8월 11~14일 고창 선운사와 김제 금산사 일대에서 개최됐다.

'자유로운 삶의 주인공, Maitreya'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대불련 영캠프는 입재식에 이어 실상사 도법 스님의 주제 강연, 선운사 보물찾기, 명상순례, 별이 빛나는 문화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마이트레야(Maitreya)'는 미래에 오실 부처님 미륵보살을 뜻하며, 대학생불자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Maitreya라는 의미이다.

11일 고창 선운산 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된 입재식에는 이번 영 캠프를 주최하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 남고사 주지 원혜 스님, 내장사 주지 지선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윤제철 대불련 총동문회장, 최용춘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 정우식 대불청 회장을 비롯한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법어를 통해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논리적 사고에 기반한 실천력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불자들에게 기대가 크다"며 "3박 4일간의 캠프기간동안 모두 미륵부처님으로 자유로운 삶의 주인공이 될 소중한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인근 대불련 중앙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각자 자유로운 삶의 주인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윤제철 대불련 총동문회장은 후배들에게 3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독립유공자 합동 추모

광복 66주년을 맞아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독립유공자 합동추모대재가 부산 홍법사에서 불교식으로 엄수됐다.

홍법사(주지 심산)는 8월 17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제4회 독립유공자 합동추모대재를 봉행했다.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추모기념사업회(회장 박성종) 주최, 홍법사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독립군 무명용사 195만 명의 넋을 위로하는 살풀이와 육법공양, 진혼곡 순으로 진행됐다. 대웅보전 1, 2층 난간에는 오색 연등 대신 독립유공자 1만 2399명의 이름이 새겨진 검은 현수막으로 장엄해 추모했다.

대회장을 맡은 심산 스님은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과 민주발전을 이룩한 것은 애국선열들의 독립의지와 민족자존의 정신이 우리 민족정서 밑바탕에 면면히 이어져 왔기 때문"이라며 "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 호국영령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튼튼한 번영의 뿌리"라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독일 의사·법관들, 한국 전통문화 '원더풀'

한국을 방문한 독일인 의사협회와 법관들의 템플스테이가 8월 9~10일 전북 고창 선운사에서 진행됐다.

2009년에 이어 두 번째 한국불교문화체험에 나선 독일인 30명은 새벽 기상과 함께 예불, 다도와 타종체험, 기공체조 산행(변산 내소사, 도솔암) 트래킹 등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체험을 하면서 한국불교와 전통문화에 대해 질문을 쏟아내며 한국불교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입식 생활이 익숙한 참가자들은 불교예절과 합장, 결가부좌 등이 어색하고 어렵지만 자세를 취해보는 등 한국불교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다.

이들은 한국문화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젓가락을 사용해 신김치를 먹으면서도 연신 즐거운 표정이었다. 매일 진행되는 기체조에는 무더위에 땀을 흠뻑 흘리면서도 어린아이들처럼 즐거워하기도 했다.

그밖에 녹차밭과 차문화 체험관에서 녹차제조(윤전판, 건조기) 과정 등을 둘러보고 차를 직접 우려내 마셔보는 등 차문화 체험에도 참가했다.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에바 씨는 "맛있는 한국 전통 사찰음식을 맛보아 좋았다. 무엇보다 스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수행과정을 느낄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었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독일인 의사협회 회원들과 법관들이 8월 9~10일 전북 고창 선운사에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인 기체조를 체험하고 있다.

백중 삼복(三伏) '자비행' 줄줄이

해인정사, 지역에 쌀 전달 영도라이온스, 삼계탕 보시



영도구노인복지관장 선공 스님(가운데)과 영도라이온스클럽 회원들.

부산 해인정사(주지 수진)는 백중기도 회향을 맞아 지역사회에 자비나눔을 실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주지 수진 스님은 8월 14일 경내 대웅전에서 부산 사하구청(청장 이경훈)에 쌀 108포를 전달했다. 이에 앞서 12일 부산영도라이온스클럽은 사회복지법인 혜원(이사장 원허, 전 법도량 의장) 영도구노인복지관에 삼계탕데이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 후원금은 영도구노인복지관에서 올여름 초복(7월 14일) 500명, 중복(7월 24일) 500명, 말복(8월 13일) 1000명 등 2000여 지역 독거노인에게 삼계탕을 보시했다.

박지원 기자

고창군사회복지시설 국악예술단 '고창'과 협약

고창군사회복지시설은 8월 12일 국악예술단 '고창(高唱)'과 문화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문화예술 발전 및 지역주민과의 문화적 교류를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앞으로 노인의날, 명절행사, 연말행사 등 지역행사 진행시 다채로운 공연활동으로 지역 복지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고창군사회복지시설장 도완 스님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자체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천의선도 태종선사 김영생(삼봉)스님이 평생 체험한 대체의학의 신비를 공개하며 전수자를 찾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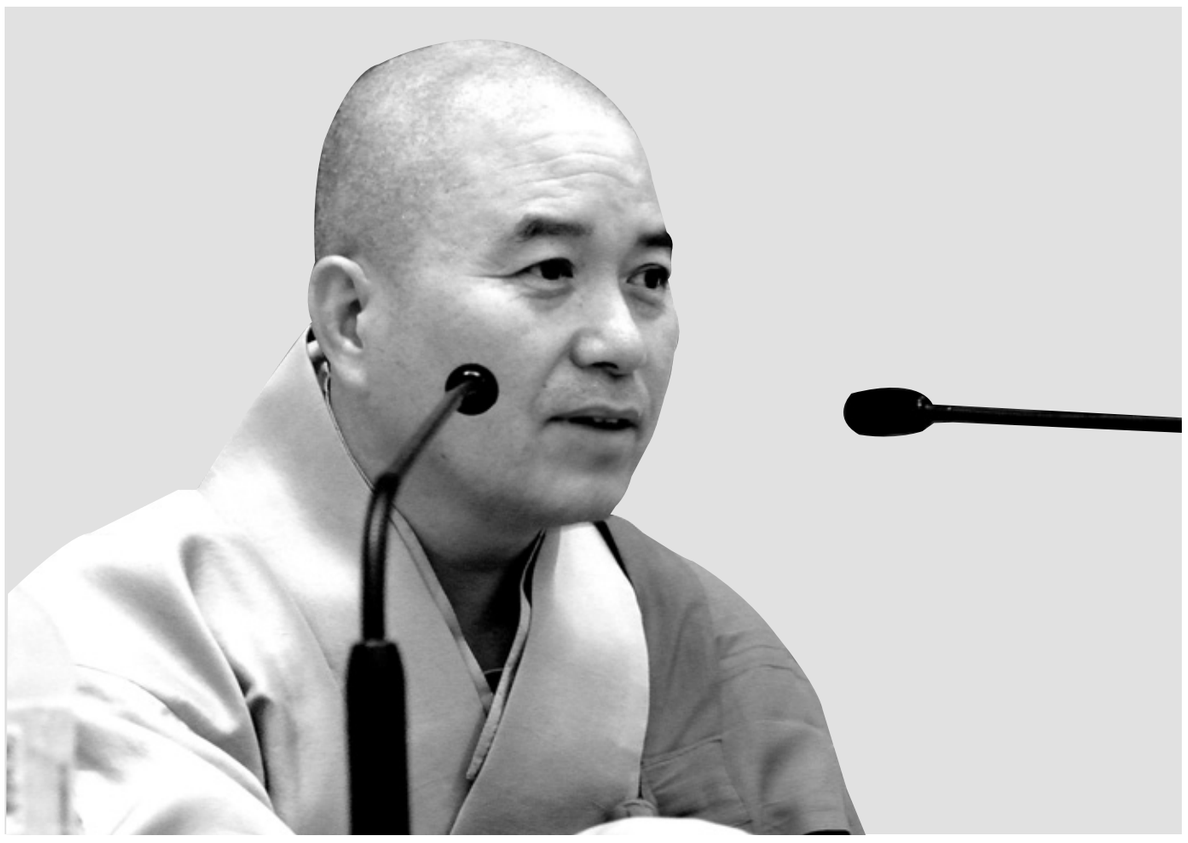
나 金永生은 13세부터 육경신 정신수련에 입신해서 81세가 된 이 시간 까지도 사람은 나면서 가는 날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사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가는 길은 없을까 하는 집념으로 정신 수련 중에 46세 8월에 왼쪽 수족이 마비되어 병원진찰 결과 급성뇌종양이며 수술도 할 수없는 위치라는 진단을 받고 하루하루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77년 음력 1월 15일 육경신 정신 수련 중에 삼매경에 들었는데 천신으로부터 천의선도를 전수 받으며 건강이 회복되었는데 이 지구상에 인구가 70억이 될 때 원인모를 질병이 인명을 휩쓸고 갈터인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대책이 없으니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영능자를 양성해서 인명을 구원해서 후천선경을 이루라는 천명을 받으며 환자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1일 2시간정도 수련시키며 은용해수를 먹이면 어떠한 질병도 회복된다 하시며 은용기 만드는 법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환상에서 깨어나 보니 내 건강이 정상으로 회복되어 있지 않은가.. 신화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도 신기해서 천지신명께 대례 3배를 올리고 논산집에 와서 3일간 잔치를 하고나서 청계천 전기상회를 찾아가 은용해 기구를 만들어 생수 5리터에 은봉을 담구었더니 은이 분해되어 35분 정도 되니 뜨물같이 뿌옇해졌습니다. 너무도 신기해서 내 주변에 고통받는 식도암, 간암, 폐암, 위암, 자궁암, 직장암 환자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시키며 은용해수를 육각수로 만들어 100일씩 복용시켰더니 병원 진찰결과 많은 치유가 있었습니다. 30여년동안 저를 찾아온 암환자가 180여명이 넘는 말기암 환자가 20여년이 넘었는데도 많이 치유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달전에 청주에서 위 전체에 암이 번져 위를 다 들어내야 된다는 진단을 받은 위암 환자가 찾아 왔기에 은용해수를 100일 복용시킨 뒤 재검사 해봤더니 암 세포가 많이 줄어들고 체중도 10kg정도 늘어났다 합니다. 둘째 평생두통, 견비통,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위하수, 전립선이상자, 요실금 환자에게는 천의선도를 전수시키고 1주일에 1번씩 4-5회기를 넣어 주었더니 정상으로 회복된 분이 3천여명이 넘는다.

천의선도를 전수시키는 목적이 몸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몸을 편히 해드리고, 마음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마음을 편히 해드리자는데 있습니다. 천하 제일의 민중의술의 대가란 호칭을 받으면서도 천식 침해환자, 자폐증, 퇴행성관절염에는 자신이 없었는데 최근에 글리코 영양소가 개발되었다. 글리코 영양소는 현재 전 세계 의료분야 및 의학계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는 키워드이며 항생물질 유전자를 잇는 제4의 의료혁명으로 주목받고 있다. 천식침해환자, 자폐증 아이들,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 몇 개월 복용시켰더니 너무도 신기하게 정상으로 회복되는 체험을 해봤기에 각 사찰 스님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드리려 광고합니다. 천의선도 비젼은 종교 지도자님께만 전수합니다.

천의선도 태종선사 삼봉 김영생 스님 합장

장 소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매주 월요일 :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5동 483-39 삼용빌딩 403호
전 화 : 010-4933-4528





두 개의 귀 가진 당신… 수행하면 하나 더 생긴다

상도선원 주지 미산 스님은 8월 11일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에서 '웰빙과 웰다잉'을 주제로 법문을 펼쳤다. 우란분절을 앞두고 열린 법회에서 스님은 앞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삶을 살아갈 것이며, 다가올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미산 스님은 "죽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죽음은 우리와 상관없는 다른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연장선 안에 있는 것"이라며 웰다잉 실천법을 소개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기 마련입니다. 부처님 역시 그랬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죽음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곧 죽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이 평등은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누구나 죽을 수 있다. 둘째,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셋째, 어디서나 죽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는 어느 운명가를 찾아가 점을 봤다고 합니다. 그 운명가는 제가 20살 안에 죽을 운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10살이 되자 정말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10살이 넘어서는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운명가의 말처럼 제가 20살도 못 넘기고 죽을 것이 염려돼, 저를 절로 보내셨습니다. 제가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운명가의 말 덕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당시 제가 머물던 사찰의 원주스님이 주지스님 방에 가서 뭘 갖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주지스님 방을 두드렸는데 인기척이 없길래 저는 그냥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지스님 몸이 차갑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죽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
죽음 이해하면 역동적인 삶 돼

당시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죽음에 대한 강렬한 체험을 한 후로 저는 죽음에 대해 항상 고민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 학교에 가도 공부가 잘 되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려 노는 것도 싫었습니다. 저는 생사문제를 해결하는 일만이 일생의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저는 절에서 나와 선방을 다니며 죽음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저는 20살 이전에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오늘 버젓이 이 자리에 나와 여러분들 앞에서 죽음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가를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죽음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고, 이를 토대로 삶을 살아가면 훨씬 더 역동적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잘 사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옛날에 정진을 하기 위해 나무 위에다 새집처럼 집을 짓고 살던 도림 선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사의 명성을 들은 시인 백락천이 법거량을 하기 위해 도림 선사를 찾았습니다. 백락천은 도림 선사에게 "무엇이 불법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선사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중생공행하며, 나쁜 짓을 하지 않아 네 마음이 깨끗해지면 부처님법이다"고 답하자, 백락천은 "세살 아이도 다 아는 일입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도림 선사는 "세살 아이도 알 수 있는 말이지만, 여든 노인도 행하기 어려운 일이다"고 말했습니다.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여러분 모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나는 중생이다'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처도 아니고, 못난 중생이다' 라는 큰 상(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온전한 존재입니다. 닦아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온전한 존재라고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일단 믿고 출발하면 그 자리에서부터 삶의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두 번째는 바로 '나'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좋고 이롭고 향기롭다고 생각되는 것은 강하게 잡아서 안으로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바로 내 것이라는 집착심을 만들어 냅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이것과 함께 톱니바퀴처럼 도는 마음이 또 다시 생깁니다. 바로 화내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욱하고, 화나는 마음이 속에 있으면 지혜가 들어갈 틈이 안 생깁니다. 마음 전체가 지혜로 가득하면 부처님 마음이지만, 탐진치가 쌓인 마음은 중생의 마음입니다.

잘 살고 싶다면 탐진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말 잘살고 싶어도 잘 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탐진치가 강하게 우리를 잡아당기기 때문입니다.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결국 잘 죽는 길입니다. 잘 살고 싶은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는 '나는 영원히 살고 싶다' 는 생각 때문입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빨리 죽어야지"입니다. 하지만 막상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 더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욕심이 생기면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다. 지혜는 우리 인생과 우주를 바로 볼 줄 아는 안목입니다. 탐진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향해 긍정적으로 살아가면 결국 마음의 여유가 생기며,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나 자신을 부처로 여겨야 행복
불로장생 욕심은 탐진치와 같아

잘 죽기 위해서는 이것부터 실천해야

영원히 살겠다는 것은 누구나 죽는다는 명제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탐진치를 버리고 살다보면 내 주변이 변하게 되고 매사 조그만 일에도 만족감을 느끼게 되며, 이 자리가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떤 존재가 나를 헤치고 불편하게 할지라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먼저 거부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섭수의 마음이 생깁니다.

사람은 두 개의 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행을 잘하고 보살행을 하면 귀가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바로 가슴에 귀가 생깁니다. 머리에 귀가 있으면 분별심이 생겨나지만, 진심으로 가슴으로 듣게 되면 분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 살기 위해 공부하고 수행을 하다보면 웰다잉을 실현하게 됩니다. 웰다잉에는 5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죽음을 잘 이해하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해하면 삶도 잘 이해하게 됩니다. 죽음은 어떤 사람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장소·시간과 상관없이 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둘째, 아름다운 죽음을 위해서는 삶이 알차고 행복해야 합니다. 셋째, 죽음의 모습은 아주 다양합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몰라도 죽음의 모습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괴롭게 죽느냐, 행복하게 죽느냐는 삶을 어떻게 마무리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죽음을 삶의 희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죽는 순간 죽음에 임박해서 맑은 빛을 보는 사람, 맑은 세계가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수행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다섯째, 존엄한 죽음은 최상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잘 죽기 위해서는 항시 마음의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잘 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진정한 삶의 모습을 떠올리면 산다. 둘째, 자신이 떠난 다음 가족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한다. 셋째, 불교명상을 하고 있다면 죽음명상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라. 넷째, 유언장을 잘 쓰고, 세속에 관심을 두지 마라. 다섯째, 삶 이후에도 현재의 삶이 존속됨을 염두 해라. 여섯째, 이웃에게 베풀고 보시하라. 일곱째,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는 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잘 살고 잘 죽을 것인가를 마음속 깊이 간직해 반드시 실천하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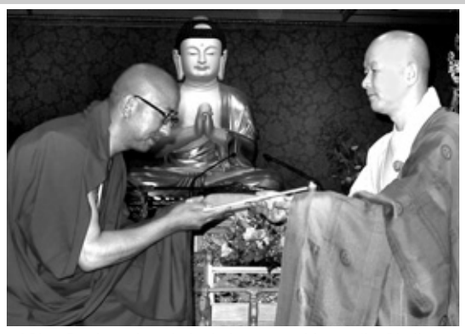
이은정 기자

■ 국제선센터는 8월 14일 승공(僧供) 중심의 우란분재를 재현했다. 천진영 기자


사부대중이 함께 즐길수있는 불교문화 공연


60~80대 어르신이 육법공양에 참여하는 모습


다양한 연령대 사부대중이 승공(僧供)을 올리는 모습


장학금을 받는 캄보디아 린사로스 스님(동국대 4학년)


천도재 올리는 국제선센터 주지 현조 스님과 탄원 스님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www.hypnos114.com

전생·빙의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매월 첫주 월요일 개강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오후 5시 까지 (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 CD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한국최면과학원장 임 재 형 박사 직강

전생요법

도대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제반 문제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KBS 무한지대-큐
MBC TV특종 놀라운 세상
SBS 백만불 미스터리
tvN 엑소시스트 등 각종 TV방송에 다수 출연

빙의치유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가 들어와있는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건 무었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할 수 있다.

사주명리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다니니 횡사 악사요…

커버넌트대학 상담학 박사
미국 스탠톤대학교 교수
국제 임상최면 전문가
심리상담 전문가,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 전문가
한국최면지도사 협회장
미국 국제최면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원

대학교 평생교육원 최면학 강의 및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경찰관서 등 에서 최면 특강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요법의 이론과 실제, 전생·빙의 등

미국 스탠톤대학교 부설 최면연구소
한국최면과학원
http//:www.hypnos114.com

현재 접수중

대전(042) 222-0737
대전 중구 선화동 364-8 (명상센터 3층)
(도청과 대전세무서 중간지점)



이현정 소장의 이제는 다문화 시대 10

기모노 숨기면서 다문화 표방하나

이현정
한국다문화센터 소장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필자가 운영하는 레인보우 합창단을 비롯해 다른 지역의 다문화가정 어린이들과 함께 가칭 '아시아어린이합창단'이라는 이름으로 출연하게 됐다. 식전행사와 애국가제창, 경축공연까지 도맡아 진행을 했다. 행사 준비기간 동안 필자에게도 영광이고 아이들에게도 이런 영광스런 자리가 또 있을까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다그치고 몰아붙이며 노래연습을 시켰다. 심지어는 코피까지 쏟고 숨이 차서 구토까지 하는 아이들을 보고도 계속 연습을 시켜 나갔다.

그러다 복잡하고 답답한 심정이 막 차오르던 때인 공연이 끝날 때쯤 독도 문제로 한·일 문제가 불거지고 있었다.

다문화·세계화시대의 국가는 국가영역과 정통성에 대한 정리를 더욱 확고부동하게 하기 마련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독도에 관해 본능적인 방어와 독립운동의 기질을 세우곤 한다. 광복절을 즈음해 첨예한 신경전이 튕기는 그 와중에 우리에게도 주문이 들어왔다.

합창단을 이끌면서 느꼈던 것은 합창이라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이주민들의 의식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 모으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닌데, 그나마 일본다문화가정은 자녀교육에 엄청난 열의를 보이면서 문화예술교육에도 열심인 국가로 꼽힌다. 그래서 우리합창단도 10개국의 다문화자녀 중 일본다문화가정 출신 아이들이 가장 많고 또 이 아이들이 노래도 잘한다. 애국가를 부를 4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일본다문화자녀를 선정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정도로 잘 부르는 아이들이 많다. 돌연 일본다문화자녀는 반드시 빼라는 지시가 왔다. 순간 당황스러웠다. 일본다문화자녀는 자신이 한국인임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독도에 대해서도 우리 땅이라고 할 만큼 대한민국의 아들과 딸들이다. 아이들은 오히려 아무 문제없는 반면 정부나 어른들이 너무 과민반응을 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정도였다.

또한 아리랑메들리를 부르는데 있어서도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은 독도가 나오는 '홀로아리랑'이다. 이 곡조가 나올 때면 듣는 사람들이 저마다 가슴 뭉클하다는 말을 많이 듣곤 했는데, 이 부분을 빼라는 지시가 행사를 며칠 앞두고 들어왔다. 이를 위해 편곡을 다시하고 이 편곡된 곡으로 아이들을 다시 한 번 몰아세우며 훈련을 수



일본다문화자녀는 자신이 한국인임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 다문화를 표방하려면 대한민국이 더 포용하고 어울리는 배포를 보여줘야 한다. 사진은 레인보우합창단 정기공연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정해서 해야 했다. 오히려 아이들은 왜 이 부분을 빼느냐며 안타까워했다.

또한 우리합창단은 각 나라의 전통의상을 입고 출연하는 데, 기모노는 절대 입히지 말라는 추가주문까지 들어야했다. 과연 이것이 외교문제로 비화될 문제인가? 다문화시대에 이래야 하는가? 다문화라고 표방하면서 떳떳하지 못하고 왜 숨기려드는가? 이럴 때일수록 기모노를 입은 일본다문화자녀가 애국가도 부르고 홀로아리랑도 부른다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하지만,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더 넓게, 더 크게 나아가고, 그래서 더 포용하고, 어울리는 배포를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저런 구분 없이 8·15 경축식을 진행했으면 한다.

K-팝을 세계인이 함께 부르면 뿌듯한 마음이 들듯이, 애국가도, 아리랑도, 그리고 독도노래도 세계가 함께 부르면 더 기쁜 일이 아니겠는가?

정지천 교수의 건강칼럼⑮

오래 살고 싶으면 옥수수를 가까이

세계 3대 장수촌의 하나인 그루지아의 압하지아(옛 소련 코카서스) 지방 사람들은 주식으로 옥수수가루를 반죽해 찐 다음 기름에 살짝 튀기거나 구워 만든 '므차디'라는 거친 빵을 먹고 있다. 중국 서부의 위구르 지방도 장수촌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주식이 귀리가루와 옥수수가루를 반죽하여 만든 '난'이라는 빵이다.

옥수수가 건강장수식이 된 것은 성인병 예방에 좋기 때문이다.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작용이 있으며 심근경색 같은 관상동맥질환을 방지하는 효능이 있다. 옥수수는 혈당을 떨어뜨리고 악성 종양의 생장을 억제하는 항암작용이 있다. 그래서 당뇨병, 동맥경화, 관상동맥질환, 심근경색, 혈액순환장애 환자에게 좋고, 암 예방식이나 암 환자의 건강식으로도 적합하다. 그리고 옥수수 씨눈에는 영양이 풍부한데, 레시틴은 신경 조직에 필요하고, 비타민 E는 노화방지 효과가 있다. 특히 피부의 건조와 노화를 예방하며 피부의 저항력을 높이는 작용이 있다.

한의학에서 옥수수는 '옥미(玉米)' 혹은 '옥촉서(玉蜀黍)'라고 하는데,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중간 성질이다. 먹으면 입맛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을 것인데, 위장을 건실하게 하고 뱃속을 조화시켜 편안하게 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맛이 없고 소화불량이 있거나 설사하는 경우에 좋은데, 특히 더위를 먹은 경우에 적합하다. 또한 이뇨작용이 있어 요도염, 방광염을 비롯해 오줌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으면서 아픈 병증을 치료하고, 각기병과 부종에도 효과가 있다. 그렇지만 비위장이 냉한 분은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옥수수의 약효도 쓸 만하지만 한약재로는 수염이 쓰이고 있다. 옥수수수염은 말려서 쓰는데, '옥미수(玉米鬚), '옥촉수(玉蜀鬚)'라고 한다. 소변을 나오게 하는 효능이 매우 강하고 소염 작용도 있어 몸이 붓는



경우는 물론이고 요도염, 방광염, 신장염 등의 치료에 활용된다. 또한 신장이나 요관에 돌이 생긴 요로결석으로 인해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도 효과가 있다. 그리고 혈압을 떨어뜨리는 작용이 있으며, 황달을 물리치는 효과도 뛰어나 황달성 간염의 치료제로 쓰이고 있다.

옥수수수염은 특히 '전립선비대증'에 효과가 크다. 50세 이후에 소변을 보려고 하면 바로 나오지 않고 한참 걸려야 나오고 힘을 주어야 하며, 힘없이 찔끔찔끔 나오면서 오줌줄기가 가늘고 소변을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며 보고 나도 개운치 못하고 덜 본 것 같다면 거의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수염을 달여 마시면 효과가 크다. 또한 중년 이후에 비만하면서 혈압이 높고 소변이 시원치 않거나 양이 적으며 잘 붓는 분들도 차로 마시면 좋다.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약은 몸에서 물기를 빼내는 것이므로 음기를 손상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곡식이면서 약효가 있는 경우에는 몸에 부작용이나 손상이 거의 없다. 옥수수수염도 소변을 잘 나오게 하면서 음기를 상하게 하지 않고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므로 오래 먹어도 별 탈이 없기에 계속 마셔도 좋다. 단, 몸이 마른 분은 주의해야 한다.



동국대 분당한방병원

'免'일 묵 스님의 위빠사나 수행이야기19 - 자애명상

성냄을 극복하는 방법

우리 삶의 고통의 원인 중 대표적인 것이 성냄이다. 성냄이 일어나면 먼저 자신이 고통스럽다. 마음이 답답해지고 울화통이 치밀어 오르고 심해지면 병이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화를 참지 못하고 타인에게 화를 표출하게 되면 오랫동안 쌓아온 공덕을 한 순간에 없애버리기도 하고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한다.

이처럼 성냄은 매우 위험한 것이므로 화를 나게 한 중생에게 화로써 앙갚음을 하는 것은 화를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극복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애(慈愛)의 마음으로 전환하는 것이 화를 진정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처럼 자애로써 화를 극복하는 수행을 자애명상이라고 한다.

그러면 자애명상을 계발하는 방법을 간단히 살펴본다. 자애명상은 개인에게 자애심을 계발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처음에는 이성(異性)은 피하는 것이 좋다.

원한은 원한으로 극복 될 수 없어
상대를 이해하고 행복을 바라야
자애로운 마음이 화 가라앉힌다

처음부터 이성을 대상으로 하면 이타적인 자애가 아니라 이기적인 욕망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애삼매를 성취한 다음에는 '모든 여성들이 행복하기를!' 하면서 개인이 아니라 그룹으로 자애명상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자애명상을 시작할 때는 자애심을 일으키기가 쉬운 사람부터 계발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자기 자신,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미워하는 사람의 순서대로 수행하는 것이 좋다.

먼저 편안히 앉아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이 가장 행복했던 얼굴을 마음속에 떠올린다. 그다음 떠올린 자신의 모습을 향해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하고 반복해 자애심을 계발한다. 자기 자신에게는 몇 분 정도 잠깐만 수행해도 된다.

자신에게 자애심을 계발한 후에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고통을 싫어하고, 죽기 싫어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고통을 싫어하고, 죽기 싫어하는 것을 반조해 본다. 이와 같이 관찰하면 다른 존재의 행복을 원하는 자애심을 쉽게 계발할 수 있다.

먼저 존경하는 사람에게 자애심을 계발할 때도 자기 자신에게 계발할 때와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사람의 가장 행복한 얼굴을 마음속에 떠올리고 그 모습을 향해 "이 훌륭한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하면서 반복하여 자애심을 계발한다.

이와 같이 지속하다보면 자애심이 깊어지고 자애삼매에도 들 수 있다.

존경하는 사람에게 자애삼매를 계발하는 것을 성공한 사람은 중립적인 사람, 미워하는 사람의 순서대로 자애심이 깊어져서 자애삼매에 들 때까지 수행하면 된다.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게 자애삼매를 계발하는데 성공한 수행자는 자기 자신이나 좋아하는 사람이나 중립적인 사람이나 미워하는 사람이나 조금의 차별 없이 자애심을 계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를 존재들 사이의 '경계 허물기'라고 한다. 다른 존재와 자기 자신을 아무런 차별 없이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을 말한다.

경계 허물기에 성공한 사람은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그룹 전체에 자애심을 계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모든 여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모든 남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모든 동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등과 같이 자애심을 계발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가까이부터 시작하여 멀리 점차 범위를 넓혀가며 자애심을 계발한다.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존재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서울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한국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등과 같이 자애심을 계발하면 된다.

위에서 말한 방법대로 자애명상을 하여 자애삼매를 계발한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많은 이익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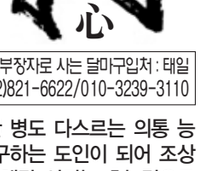
잠을 편안하게 자고, 편안하게 깨어나고, 악몽을 꾸지 않는다.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도 사랑을 받고 원수가 생기지 않는다. 또한 삼매를 닦을 때도 마음이 행복하기 때문에 마음이 쉽게 삼매에 들 수 있고 얼굴빛이 밝아지고 환해지며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다.



일묵 스님(제따와나 방배선원장)

21세기 최대 이슈 즉시 견성도통 성불받는 1만2천 도인경신 대법회
부처님탄생이래 1만2천 부처님 조성완료한 도량만이 천지공사요
만불조정이라 죄와 업장과 일체고액이 소멸하여 만사형통 견성무량대복성취
사불범접이요 요불승덕이라 천탈사기하니 사기자멸이니라

◆천지개벽에 살아남을 수 있는 도인 대열에 득도하여 자신과 중생을 관리할 수 있는 도통군자 출현으로 동방의 빛이 지구촌을 관리하는 1만2천 부처님 조성 도량.
◆경신일 자시와 오시에 1만2천도인 무량대운을 받으므로 지금까지 결혼과 가정과 직장 및 수행자들에게 운이 막히고 사업마장, 결혼마장 되는 것은 자기 조상해탈 못한 영가들의 방해이므로 본인의 삼생의 죄업을 벗고 악한운과 일체고액을 소멸하는 경신일 자시와 오시에 윗대 조상님들이 본인에게 천복대운으로 행운을 열어 운명을 바꾸는 것이며 이 기도로 하늘 땅 모든 대운을 받아 지금까지는 과거 지나간 일들과 미래에 닥쳐오는 운명과 길흉과 철학 점술 예언 예측하는 혜안통을 여는 수행으로 천지와 복덕이 합하고 일월과 밝음이 합하고 귀신과 길흉을 사하고 세월 일시가 합하는 성스러운 대운을 받아 잡신 마장들을 일체 소멸 하는날 이므로 하늘과 땅은 경신수행자에게 보림하는 법을 얻는 천장지법인 것이고 관심법으로 많이 안 배워도 미래에 모든 운명과 건강 출세 신비의 명리철학 오행철학 성명철학 풍수철학 동양철학 등 팔신공 도천명으로지난날과 즉시 도통 말문이 열리는 도법을 성불받아 일체를 관리하는 도통 군자로 자격증을 얻어 철학원과 포교원을 경영하여 평생직업에 구애 받지 않는 자격을 얻어 거부장자되는 대용맹정진 1만2천 부처님 조성된 도량에서 육경신 수행 도통 대법회



천지공사 육경신도통이란? 천하의 비밀법에 자신이 운명을 비켜갈 수 있는 영포태로 죄와 업장소멸하여 자신이 운명을 조종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도통법 인 것이며 천지공사인 것이고 즉시 성불받는 수행인 것이다.

◆천지공사 경신도통으로 혜안통을 열어 상통천문하달지리로 자신의 일체의 고통을 다스리고, 귀신마장의 포망을 넘어 유불선이 하나로 되는 도천명을 득도하는 육경신 도통만이 유행되는 전염병과 그 어떠한 병도 다스르는 의통 능력자인 초능력을 얻어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하는 도인이 되어 조상님들에게 빙이 된 영혼문을 열어 일체 영가를 해탈 시키는 초능력으로 생명에 문을 찾는 대법회 및 저승사자 면허증 반납하는 날이며 1만2천 도통군자 대용맹정진 수행하는 곳에서 생명의 빛이 혜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생명문을 열고 정신과 신심의 문 육신의 문을 열어 운수대통 팔자와 운명이 바뀌어 천하를 다스리는 천지공사 죽음의 뿌리를 끊고 시공을 넘어 견성도통으로 병없이 사는 육경신 기도는 한 번만 하여도 수십년 부귀장수 능력을 얻는 도통법인 것이다.

거부장자로 사는 달마구입처 : 태일 02)821-6622/010-3239-3110

● 입제 : 양력 2011년 9월 1일(음 8월 4일 목요일)(해시)
● 해제 : 양력 2011년 9월 2일(음 8월 5일 금요일)(해시)
● 상담전화 02)821-6622, 821-7767, 010-3239-3110
● 농협 029-01-167866 곽태일 (선착순 접수) 간편한 옷
전철7호선 신대방삼거리역하차 농협지나 300M 두번째 건널목건너 약사회 골목 우측

□서울부산동시법회 : 부산직할시 금정구 장전3동 경문사도량
상담전화 : 051)635-3110 / 010-8533-1601
사단법인 대한불교달마조계종교육원
천지공사웅조미륵달마 경신도통회
삼탑 세계불교 달마종 총 본산 도원.태일 합장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스님! 법당의 엠프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지금 즉시 - 전화주세요...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 스테레오 앰프 300AN
2Channel Stereo Mixing Amplifier Disital Echo

• 高音質 무선마이크

고장난 마이크 완벽하게 수리해 드립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

◆특징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 법당 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일반형)
175,000원(고급형)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참된 나를 찾아 자신을 돌아보다”

해외석학, 무금선원서 4박 5일간 화두정진 들어가

백담사로 가는 길은 수행의 길과 같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굽이 굽이 백담계곡길을 다리가 부서져라 걸으면 탁 트인 백담사가 납자들을 기다린다. 무더위를 뒤로하고 전세계 불교 석학들이 설악산 자락, 백담사에 모여 화두정진에 들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소장 종호)는 8월 15일 백담사 무금 선원에서 제2회 간화선 국제학술대회를 앞두고 개최한 간화선 실참수행을 가졌다.

‘간화선의 원리와 구조’를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는 미국, 중국, 일본 등지의 해외석학 20여 명이 모였다. UCLA 로버트 버스웰 교수, 스미스대 피터 그레고리 교수, 테네시대 미리암 레버링 명예교수 등 세계적인 권위자들이 간화선 실참에 참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간화선의 구조와 원리에 대한 연구는 둘째 치고 자신을 돌아보고 참나를 찾기 위함이었다.

4박 5일간의 이 장정에는 무금선원장 신룡 스님, 상도선원장 미산 스님, 종호 스님도 참석해 이들을 이끌었다.

지도법사인 수불 스님(안국선원장)의 간화선 화두 법문을 시작으로 진행된 수행 실참은 조사어록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또 빠른 의단(疑團) 형성과 지속을 위해 방선(放禪) 시간없이 진행됐으며 수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동과 말이 금지됐다. 매일 저녁에는 소참법문이 내려져 각 경계에서의 극복방법과 화두타파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노덕현 기자**







① 입재식에서 참가한 해외석학들이 수불 스님의 화두법문을 경청하고 있다.
②이날 입재에는 해외 석학을 비롯한 20여 수선납자가 참여했다.
③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무금선원장 신룡 스님, 상도선원장 미산 스님이 입재식 후 간화선 활성화와 세계화에 대한 담소를 나누고 있다.

간화선 실참 동참자 인터뷰

피터 그레고리 교수
“향후 연구에 도움될 것”



피터 그레고리 스미스대 교수는 이번 간화선 실참에 대해 “화두를 물지 못했지만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됐고, 향후 연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터 그레고리 교수는 “수년전 다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 있을 때 잠시 벽을 느꼈다. 그 벽을 넘는 그 경계에서 깨어나 아쉽다. 다른 세계로 나갔거나 죽거나 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원명 한국외대 철학과 교수
“매순간 깨어있어야 한다”



김원명 한국외대 교수 역시 이번 간화선 실참이 처음이다.

보름 전 아버님을 여읜 후 참여한 간화선 실참. 김 교수는 이번 실참을 통해 삶의 해답을 얻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화두는 자신이 간절함을 느껴야 하고, 스님이 주신 화두와 본질은 다르지 않다는 것은 깨어 있어야 함이었다”며 실참 소회를 밝혔다.

김기자 뉴욕주립대 석좌교수
“함께 깨닫는 것 중요”



김기자(테레사)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 석좌교수는 미국에서 한국전통을 알리고 있는 동양무용 · 연극의 권위자다.

김 교수는 “이번 간화선 실침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다. 진리의 세계를 위해 노력하고 혼자 느끼지 않고 다른 이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중요성을 느꼈다. 이것이 ‘대자대비’라고 생각한다”며 화두에 대한 물음에 답했다.

윤희조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
“불교가 살아있는 자리”



윤희조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입재 이후 바로 20여 년 간 불교를 공부했는데 ‘이 화두를 못 풀면 내가 헛것을 공부했구나’는 당혹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이번 실참을 통해 지난 공부를 되돌아보게 됐다”며 “불교에 있어 죽은 공부가 아닌 산 공부가 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수불 스님 화두법문

“오직 모를 뿐, 갑갑함 느끼는 것이 인연”



이날 수불 스님은 정진에 앞서 참가자들이 손가락을 움직이에 한 뒤 ‘무엇이 나로 이렇게 하게 하는가’는 화두를 내렸다.

수불 스님은 “잠과 망상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라”고 당부했다. 또 스님은 “갑갑함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그 벽을 뚫기 위해 더 치열히 정진해야 한다”고 지도했다.

다음은 수불 스님의 간화선 화두법문 전문이다.

화두든 목적은 화두를 통해 정신적인 벽을 타파하기 위함입니다. 화두가 제시되면 바로 정신적인 벽을 느껴야 의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위적인 것이 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 수 있습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큰 가마솥에 물을 넣고 끓일 적에 물 온도를 100도로 끓을 때까지 풀무질을 쉼 없이 하는 것입니다.

50~60도 까지는 쉽게 물 온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90도를 넘어 100도를 넘기기가 힘듭니다. 짧은 시간에 100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문제를 내겠습니다. 문제는 한번 보고 듣고 느끼면 됐습니다.

손가락을 들어 통겨 보십시오.

‘무엇이 나로 이렇게 하게 하는가.’

마음, 손가락, 스님이 시켜서 라는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마음이 하는 것은 왜 아니냐. 부처님이 깨달은 것을 설명하기 위해 붙인 것이 마음입니다. 손가락이나 내가 한 것이 왜 아니냐. 손가락도 나한테 딸린 것입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손가락 스스로 이렇게 통기지도 내려놓지도 못합니다. 그래도 내가 했다고 해야겠습니까. 손가락이 했다고 해야겠습니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게 했습니까.

오직 모를 뿐입니다.

눈앞에 정신적인 벽이 가로 막혀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벽을 놓고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면벽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모르는 그 일을 알려고 해야 합니다.

이 몸을 끌고 다닐 때 ‘이 뭣고’ 합니까.

스스로 끌고 다니는 놈이 ‘뭣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일단의 일을 모를 뿐입니다. 깨닫던지 모르던지. 아니면 엉거주춤 할 뿐입니다. 알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게 했는가?”

다시 한번 문제를 내겠습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했습니까. 그냥 답만 찾으시면 됩니다. 무엇이 마음입니까. 모를 뿐입니다. 그것 몰라서 알려고 애를 쓸 뿐입니다. 배워서 이해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 마음이 무엇인지 모를 뿐입니다.

그 마음 찾으려면 노력해야 합니다. 알려고 할수록 궁금증이 일어납니다. 계속 궁금해야 합니다.

문제를 외운다던지해서 답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답만 찾아야 합니다. 문제는 한번 보고 느꼈습니다. 단지 답을 모를 뿐입니다. 어떠해야 그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갑갑할 뿐입니다.

그것도 인연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인연 없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지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일단의 일에 대해 알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이것은 손가락이 내가 하는 것도 마음이 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무소뿔로 된 쥐틀을 마련해 놓고 쥐를 유혹하는 것과 같습니다. 앞이 뾰족하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 질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장치에 여러분을 밀어 넣어드려야 하는데 같이 최선을 다해서 할 적에 무엇인가 변화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머리로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의심된 것만 의심할 뿐, 의심 단계에서 펼쳐지는 것은 망상으로 내버려 두십시오.

그동안에 들고 있던 화두가 더 잘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무시하십시오. 4박 5일간에는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이상하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 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 세로3.5㎝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2012년 불교달력 특별할인 (8월 1일 ~ 9월 30일) 판매

삼보불교카렌다에서는 「2012년 불교카렌다」를 **특별할인 기간(8월 1일 ~ 9월 30일 까지)**에 주문하시면 **고급스럽고, 질 높은 50여종**의 카렌다를 **가장 저렴하고 신속하게 보급** 해 드립니다.



※다양한 종류(벽걸이, 차걸이비닐캡, 미니스프링, 미니수첩, 탁상, 법요집책자, 각종 불교용품 등)의 카렌다 내용과 이미지는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www.samboca.com)**에서 확인 또는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카다록**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불교카렌다 제작 전문업체 – 삼보불교카렌다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통합검색 삼보불교카렌다 검색 하세요

대표전화. 031) 732-9905 | Fax. 031) 732-8972

혜공 스님과 원효 스님이 똥을 누며 지은 이름



⑭ 포항 오어사(吾漁寺)

도량은 불사중이다. 아담한 도량의 절반 이상이 제 모습이 아니어서 호젓한 절집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없다. 풍경소리, 목탁소리 대신 망치 소리와 기계소리로 도량이 어수선하다. 하지만 앞산 운제산으로 올라가 멀리서 절을 바라보면 서운했던 마음이 사라진다. 많은 것들이 생략된 원경이 다시 호젓한 절을 느끼게 해준다. 호수 위에 절이 하나 떠있다. 오어사다.

오어사는 신라 진평왕 때 창건됐다. 처음에는 항사사(恒沙寺)였다. 자세한 창건 내력은 전해오지 않는다. 항사사가 오어사가 된 이유는 혜공 스님과 원효 스님 때문이다. 혜공 스님은 만년에 항사사에 머물렀다. 분황사에 머물던 원효 스님은 의심나는 게 있으면 혜공 스님을 찾았다. 어느 날 두 스님이 시냇가에서 물고기와 새우를 잡아먹고 돌 위에서 똥을 누고 있었다. 혜공 스님이 말했다. "너는 똥을 누고 나는 고기를 누었다." 이 일이 있은 후 오어(吾漁)사라 고쳐 불렀다고 한다.

산을 내려와 다시 도량에 들었다. 사천왕문도 불사중이어서 작은 죽문으로 들어가야 했다. 절에 가는 맛 중의 하나가 사천왕문인데 아쉬웠다.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고 뒷문으로 들어간 기분이 잠깐 들었다. 피할 수 없는 사천왕의 시선에 숨죽인 '나'를 보고 있으면 맞아야 할 매를 맞는 후련함을 느낀다. 물가를 향해 서있는 사천왕문 위로 매미가 울고, 종각에 걸린 법고엔 말벌 하나가 매달려 북을 치고 있다.

무애가(無碍歌)를 부르며 중생들과 살았던 원효 스님과 법당보다 우물 안이 더 편했다고 하는 선지식의 선지식 혜공 스님. 만날 수만 있다면 꼭 한 번 만나보고 싶은 두 사람. 그들의 흔적이 있다고 생각하니 작은 도량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도량 밟는 의미가 새롭다. 종각도 조만간 불사를 할 모양이다. 기둥마다 줄을 둘러놓았다. 법고에 매달려 있던 말벌이 여전히 북을 치고, 잠자리 두 마리가 기둥 줄에 날아와 앉는다. 나란히 앉아 똥을 누고 있는지도 모른다.

법고에 매달렸던 말벌이 날아갔다. 북을 다 친 모양이다. 기둥 줄에 앉았던 잠자리 두 마리는 여전히 똥을 누고 있다. 누가 똥을 누고 누가 고기를 누었을까. '여시오어(汝屎吾魚)', 같은 것을 다른 마음으로 보면 누구는 똥을 누고 누구는 고기를 눈다. 모든 것을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싶을 때가 오면 오어사에 가볼 일이다. 생과 사, 색과 공, 미와 추까지 모든 것이 다르면서 다르지 않다는 법문이 있기 때문이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오어사 전경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핫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NAVER 검색창에 휘나핫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히앉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 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배출되기때문에몸속 (체온)상승되며 신체의상태가좋아진다.
체온이 1도 상승되면 각자체질에 따라 면역력이8-10강해지는 휘나핫 온열경영은 3-4년전 하루 200-250 명 무료 체험을통하여 많은 체험사례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2011년 지식서비스 최우수기업 선정 사진



휘나핫은 30여종 광물질 (특허획득제 10-096707 호 발명의명칭:세라믹전기발열체및 그 제조방법)특수제작한슈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발열체 와는 비교가 않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핫 반신욕기는특별할인된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보급될것입니다. (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제조원 : (주)휘림건강 ※ 대리점 ,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당뇨,신장질환,동맥경화,고혈압,심장병,부인병,비만치료!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김상욱 지음 | 값 5,000원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계좌 : 농협 170118-56-120962 예금주 : 강봉대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옻나무 진액
참옻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옻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옻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옻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초 주산지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 지하 250 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옻을 만들었습니다.

▶옻에 대한 숱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옻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직한 참옻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옻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마음공부 〈3〉 – 너와 나를 움직이는 마음

우리 함께 마음으로 보아요

부모가 먼저 하는 마음공부

우리는 물질 또는 현상이 마음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생활 속에서는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이는 이면에는 그 현상을 만드는 마음작용이 분명히 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게 되면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해도 최소한 습관적으로 반응할 것인지 보다 지혜롭게 반응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와 변화 가능성을 갖게 된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부모로서 나는 자녀가 보여주는 모습만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자녀의 마음을 느끼는가? 때로 자녀가 부모에게 갖는 묵은 감정이나 내가 자녀에게 규정지어 놓은 어떤 마음들은 쉽게 드러나지 않거나 왜곡되기도 한다. 그래도 마음으로 보려는 시도는 멈추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누군가와의 소통한다는 것은 바로 마음을 통해서이기 때문이다.

교실에서도 유달리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아동이 있다. 교실에서 친구를 다치게 하는 아이는 그 마음이 심하게 위축되기 마련이다. 이럴 때 "왜 화가 났니? 친구가 우니까 많이 놀랐지?" 하면서 화난 마음을 먼저 읽어 주면 그 아동은 친구를 때린 이유를 설명하고, 폭력을 쓰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스스로 느끼게 된다. 또 엄하게 처벌했을 때보다 교실에서의 폭력적인 성향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결과를 보여준다.

지금 자녀를 규정짓고 있는 나의 마음씀은 무엇일까? '무엇을 못한다.', '이런 저런 성격을 가졌다.', '~해야한다.' 등의 마음작용이 자녀를 대할 때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자녀가 보여주는 모습에는 어떠한 마음이 담겨있는가? 를 살펴보자. 그러면 무엇이 자녀와의 원만한 소통을 막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읽어주고,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긍정적인 마음을 끄집어내어주는 부모가 긍정적인 마음을 쓰는 자녀를 만드는 것이다.

오늘의 마음공부 : 마음으로 보아요 – 부모 지도용

■ 활동1. 마음이란 무엇일까?

익숙하게 쓰면서도 자각하기 쉽지 않은 '마음'을 대상화시켜 드러내어 봄으로써 주변의 모든 것에는 마음이 들어 있으며, 마음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고 변화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① 〈할머니의 처방전〉을 같이 읽고, 할머니의 병을 낫게 한 것은 종이조각이 아니라 의사를 믿고 따르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통해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② 우리 주변에서 '마음'을 찾아보게 한다.

- 주변의 유형 · 무형의 사물이나 행동, 상황 등에 깃든 마음을 찾아보면 사물을 존재하게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자녀의 의식을 확장시켜준다. 실제 학교현장에서도 이런 활동을 하고 난 후 학생들의 독해력이 매우 향상되었고, 교우관계에서도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게 됨을 경험하기도 했다.

③ '마음 장터'는 가상공간이지만 실제로 언제든지 펼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기도 하다.

자녀와 함께 마음을 사고파는 놀이를 즐겁게 해보면서 매순간 쓰고 있는 마음의 힘에 대해 생각해보고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 활동2. 마음은 쓰는 대로 나온다.

마음의 법칙을 찾아보면 일상에서 마음작용을 더 쉽게 인식할 수 있다. 이번 활동에서는 마음은 쓰는대로 현상으로 나오며 어떤 마음이든 그 마음을 쓸 수 있는 선택권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충청도 어느 산골에 짚신을 만들어 파는 가난한 스님이 있었다. 하루는 쌀을 사러 장에 가는데 길가에 돈 자루가 떨어져있었다. 세어보니 스무 냥이었다. '이렇게 큰돈을 잃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플꼬.' 스님은 돈을 찾아주려고 장터로 달려갔다. 그때 소장수끼리 하는 이야기가 들렸다.

"여보게, 이를 어쩐담. 소를 사려고 이십 냥이나 갔고 왔는데 어디다 빠뜨렸는지 찾지를 못하겠네. 누가 주워서 돌려주었으며 얼마나 좋겠나."

"그렇게 큰돈을 누가 돌려주겠는가. 잃어버린 돈으로 복 지었다 치고 마음이나 편하게 먹게."

소장수는 힘없이 터덜터덜 길을 걸었다. 스님은 소장수를 따라가서 물었다.

"당신 정말 돈을 잃어버렸소? 얼마를 잃었소? 돈 자루가 어떻게 생겼소?"

스님의 물음에 소장수는 스무 냥의 돈과 때 묻은 돈 자루의 모양을 자세히 말했다. 스님은 바랑에서 돈주머니를 꺼냈다. 그리고 돈주머니에서 두 냥을 꺼내고는 스무 냥을 돌려주었다.

"이 두 냥은 내가 쌀을 사기 위해 같이 넣었던 돈이라오."

소장수는 자루를 쏟아 돈을 세어보더니 갑자기 말을 바꾸었다.

"그 두 냥도 내 겁니다. 아까는 소 값만 말했고 삼베 값을 같이 뭉쳐놓은 것을 깜빡 잊었습니다."

스님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돈을 찾아 준 대가는 고사하고 쌀을 살 돈까지 뺏길 처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할 수 없이 관가에 가서 판결을 받기로 했다. 원님은 상황을 확인한 후 판결을 내렸다.

"스님이 주운 돈은 스무 냥이고 소장수가 잃어버린 돈은 스물 두 냥이라면 이 돈은 분명 소장수 것이 아니요. 그러니 스님은 이 돈을 다시 가져가서 진짜 임자를 찾아주시오."

소장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관가를 나왔다. 마치 죽은 사람처럼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를 본 스님은 소장수에게 다가갔다.

"판결대로라면 돌려줄 수 없으나 이 돈은 당신 거요. 어찌 남의 돈을 가지겠소. 어서 가져가시오"

소장수는 얼른 돈을 받아 쥐었다.

"다음부터는 마음을 잘 쓰도록 하시오. 내가 마음 쓴 대로 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오."

– 예화 '스님과 소장수 이야기' –

-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이 쓴 마음을 알아본다. 소장수의 욕심내는 마음이 되찾은 돈을 잃게 만들 뻔했고, 스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욕심쟁이 소장수를 용서해주고 돈을 돌려주게 했으며, 원님의 지혜로운 마음이 상황에 맞는 판결을 내리게 했다.

내가 어떻게 마음을 쓰는가에 따라 나는 그 마음과 같은 사람이 되어간다.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쓰면 그렇게 변화하고, 하기 싫다는 마음을 쓰면 또 그렇게 움직인다. 마음에 따라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어떤 마음을 쓰느냐에 달려있음을 이해하게 한다.

- 마음의 법칙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전혀 엉뚱한 법칙을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마음의 법칙이라는 문자로 규정짓는 것 보다 학생 나름대로 이해하는 마음의 보편적인 원리를 찾아보려는 시도에 의미가 있으므로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여 정하는 것이 좋다.

다음 주까지 같이 해봐요

오늘 찾은 마음의 법칙을 생활 속에서 찾아 기록해 보고, 이때 내가 쓴 마음도 기록해봅시다.

(예) 나는 지금 다이어트 중이다. 그런데 한밤중에 과자가 너무 먹고 싶었다. 하지만 참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꾹 참고 그냥 잤더니 다음날 몸무게가 0.5kg빠졌다.(날씬해지고 싶은 마음, 참을 수 있다는 마음)

하지만 도저히 못 참겠다는 마음을 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의 마음공부 : 마음으로 보아요 – 자녀 활동용

할머니의 처방전 또 하나의 이야기는 역시 1950년대에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다. 어떤 병원에 매우 기력이 없어 보이는 할머니가 와서 자신의 증세를 이야기 하면서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을 했다. 담당의사는 직감적으로 폐결핵이 아닐까 생각했고, 간단한 검사를 해 본 결과 폐결핵 말기환자임이 판명됐다. 의사는 당시의 의술로써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할머니가 딱한 생각이 들어 처방전을 하나 써 주면서 이것을 석 달간 하루에 한 번씩 드시라고 했다. 할머니가 가고난 뒤에 의사는 그 할머니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두 달 이상은 살지 못할 텐데 하면서 가엾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 다음 환자를 보아야 했고, 금방 이 노파를 잊어버렸다. 그런데 그 뒤로 석 달 후에 그 할머니가 건강한 모습으로 병원을 찾아와서 "병을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라고 하면서 의사에게 정성스럽게 선물을 내미는 것이 아닌가! 의사는 석 달 전의 일을 다시 기억하고는 "아니 도대체 그동안 어떤 치료를 하셨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의사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서 병이 나았다"고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의사의 지식으로는 자신의 처방대로해서 나을 수 없는 상태라고 보았기에 석 달 전 노파가 자신으로부터 처방전을 받아 나간 뒤의 일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물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의사는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그 할머니는 일자무식이었으며, 처방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할머니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 할머니는 처방전을 (글씨가 씌어진 종이쪽지를!) 90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먹으라는 것으로 생각했고, 따라서 처방전을 정성스럽게 90등분해 매일 하나씩을 먹었던 것이며, 그리고 병이 완쾌됐던 것이다! 그 할머니는 매우 단순하고 순수하여 의사의 말을 그대로 믿은 것이며, 이 믿음의 힘이 병을 고친 것이다.

- 할머니의 병을 낫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 이 이야기를 읽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 우리 주변에서 '마음'을 찾아보아요.

- 마음은 보이지 않는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 나는 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고마움	화나는 마음

- 물건에 들어 있는 마음을 찾아보아요. 사람들은 어떤 마음에서 그것을 만들었을까요?

비행기	날고 싶은 마음, 빨리 가고 싶은 마음,
싸움	화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거북선	
컴퓨터	
노래	

● '마음 장터'에 간다면

- 마음을 사거나 팔 수 있는 장터(가게)가 있다면 나는 이 장터에 가서 어떤 마음을 사오고 싶나요?
- 그 마음을 사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 마음 장터에 가서 부모님께 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 부모님께 그 마음을 사드리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 내 마음 중에 마음장터에 가서 팔고 싶은 마음은 무엇인가요?
- 그 마음을 팔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 부모님께 마음 장터에 가서 팔고 오시라고 권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 부모님은 내가 어떤 마음을 팔기를 원하실까요? 또 어떤 마음을 사주고 싶을까요?

● '마음의 법칙'을 찾아보세요.

'공기는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자석은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끌어당긴다'와 같이 마음도 법칙이 있어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법칙을 1가지 찾아보세요.

-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은 어떤 마음을 썼나요?
  · 소장수 _____
  · 스 님 _____
  · 원 님 _____
-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마음의 법칙을 찾아보세요.
  마음은 _____

※체험수기를 보내주세요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마음공부'를 가정에서 직접 실천한 분들, 또는 기사를 통해 새롭게 인식한 내용이나 소감 등을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채택된 독자분들께는 인성교재 '꽃을 피우는 나무' 초 · 중등용 교재를 보내드립니다. bohyung@buddhapia.com 이나은 기자

본지와 한마음과학원 공동기획은 '한나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hannamu.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한마음과학원 (031)471-6926~7

영험한 돌미륵 남해 미륵암 - 대학수학능력시험 입시기도



귀의 삼보하옵고

수능 입시기도는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이 보살의 구도정진을 본받아 신명을 다하여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잃지 않게 하기 부모로서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돌미륵의 영험함이 함께하는 미륵암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입시생을 위한 입시 기도를 봉행합니다.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자녀를 위해 부모의 연으로 청정한 마음을 다해 부처님께 발원한다면 수험생과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할 것입니다.
입시를 앞둔 많은 수험생들과 또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있어 건강과 안녕이 늘 함께 하시길 발원합니다.

남해 미륵암 주지 청운 합장



卍 장소 : 미륵암 대법당 및 야외 돌미륵 법당

미 륵 암 주지 청운 합장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3번지.(물건리 방조어부림 앞)
계좌번호 : 하나은행 511-910006-06204 / 농협 : 831075-51-023041 (예금주 : 미륵암)
종무소 : 055)746-9778 / H·P 011-870-0021

미륵암의 돌미륵님

지금은 방조어부림(방풍리)과 방조제로 인해 남해바다에서 불어오는 거친 풍해를 이겨냈지만 바다를 관장하는 해신의 평안을 빌고자하는 의식은 예로부터 여전히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식은 단지 바다를 상대로 하는 절대 의식에서 발전하여 개인의 안녕과 발전을 염원하는 물건리 토속신앙의 대상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토속신앙의 대상이 바로 물건리 미륵암에 모셔져 있는 돌미륵인 것입니다.

미륵암 주지 청운스님은 물건리 바다 한가운데서 현재의 미륵암으로 광명이 발현하는 두 번의 선몽을 받은 후 돌섬 한 구석에 잠들어 있던 돌미륵을 찾아 미륵암 현위치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계시대로 돌미륵을 모신 후 정성껏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후로 어업자의 만선과 물건마을의 대소 악재는 씻긴 듯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이 물건리는 물론 삼동면 골골 흘러나가 지금은 누구나가 염원에 대한 기도처로서 인식하게 되었고, 그 소원성취 또한 자명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 돌미륵은 그 영험함을 나투어 어업자를 위한 미륵, 사업자를 위한 미륵, 학업자를 위한 미륵으로 남해군민 불자 및 물건마을 불자들의 항상 성불을 이루는 영험한 미륵으로 신앙심으로 높으며, 누구나 꼭 한 가지 소원은 성취하게 하는 미륵보살로 그 영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험함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돌미륵에 대한 기도는 물론이요 적절한 관리와 보존이 우선되어야 하는 필요성은 당연한 것입니다. 미륵암 돌미륵의 지방문화재 지정은 물건리는 물론 삼동면 주민들의 안녕과 염원처로서의 정신적 귀의처를 확인하는 절차임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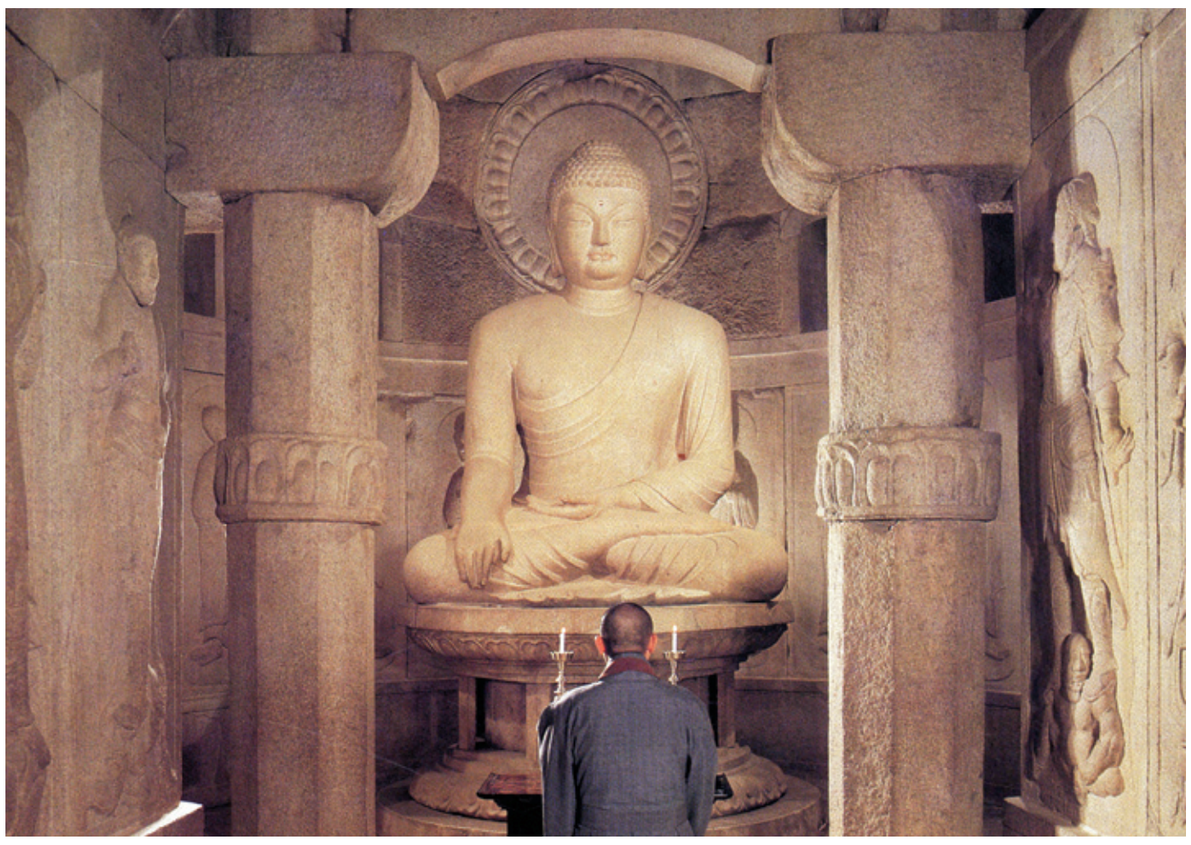


*직접 동참하시지 못하는 불자님을 위해 정성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미륵암의 신비하고
영험한 미륵보살의
원력을 체험하려 오세요!!

원형 외에 따로 짓는 것은 복제… 복원 아니다

본지의 석굴암 관련 특집기사(제847호 보도)에 대해 한국미술사학계 원로이자 석굴암 연구 권위자인 강우방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반론을 보내왔다. 강우방 명예교수의 주장(14면)과 강우방 명예교수의 석굴암 관련 해설(16~17면)을 소개한다.



석굴암 복제가 10년 만에 다시 고개를 들고 나와 정부와 불국사-석굴암, 그리고 방사성폐기물장소를 유치한 경주시까지 힘을 합쳐 나서며 찬반의 논쟁 속으로 몰고 가고 있다. 거기에 학자들 까지 가세하여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다. 어느 난세에도 그렇듯이 곡학아세(曲學阿世: 자기가 배운 것을 올바르게 펴지 못하고 그것을 굽혀가면서 세속에 아부하여 출세하려는 태도나 행동을 가리키는 말)하는 무리들이 나서서 오히려 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들의 학문과 삶을 보면 평생 구차하게 사는 사람들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석굴암의 위대함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다.

승려들은 그 가치를 모르고 시주금에만 눈에 어두워 있으니, 공무원들이라고 그 위대함을 알 리 만무하다. 만일 그들이 계속 목소리를 높이며 주장한다면 실명으로 그들의 평생 동안 살아온 곡학아세의 과정을 들어 단죄할 것이다.

문명대 씨가 현대불교신문에 쓴 기고문에서 1995년 석굴암의 복제품 제작을 처음으로 제기한 주인공임을 알았다. 즉, 1995년경 문명대 씨 주도로 복제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불국사주지의 적극적인 호응 아래 김정기, 김동현, 정재훈 등 4명이 집행소 위원회를 만들어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다.

가히 충격적이다. 그 위원회 가운데 3명은 미술사학자가 아닌 석굴암의 진가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한 사람은 석굴암의 가치를 왜곡시킨 사람이다. 결국 석굴암의 위대성을 절실히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셈이다. 그들은 왜 그런 무모한 일을 감행했을까. 모두 금전 때문이다. 그 일이 성사 되면 각각 복제과정의 큰 몫을 담당할 것이고 적어도 10년 동안은 엄청난 부(富)를 축적할 수 있다.

10년 전 복제문제가 대두됐을 때에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당시 3년 동안 밀실에서 작업이 이뤄진 후, 착공식을 1주일 앞두고 복제문제 기사를 읽었다. 필자가 소스라치게 놀라 조선일보에 반대 의견을 제기해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많은 학자들은 필자의 글에 호응해 힘을 합해 주었고, 1년의 투쟁 만에 마침내 문화재위원회에서 복제품 제작을 취소시킨 바 있다.

이상하게도 그 당시에는 문명대 씨가 찬성의 목소리를 그다지 내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문명대 씨는 전국의 문화재보수공사를 독점해 온 김홍식 씨와 함께 밀실에서 작업했던 것이 틀림없다. 하여튼 조유전 씨 등 최근에는 복제품 제작을 찬성하는 학자들이 하나 둘 본래의 모습을 나타내며 그 무리를 늘리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우선 석굴암의 예술적 위대함을 모르기 때문이요, 다른 하나는 왜 석굴암이 사람들 눈에 띠지 않는 비밀스러운 장소에 만들었는지 그 주변의 자연환경에 주목하지 않기 때문이다.

석굴암이 얼마나 위대한 예술품이며 우리나라 문화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무엇인지 논하고자 한다. 그것을 알면 문제는 자명해진다. 이 문제는 국가예산을 들여 공청회 같은, 불법을 합법화시키는 작업을 할 필요도 없다. (15, 16면 참조)



파순이여, 만약 이 정병을 움직일 수 있다면 나를 바다 밖으로 내 던질 수 있으리라. 이때 파순과 그 무리들이 정병에 줄을 매어 온힘을 다하여 잡아당겼으나 그 정병을 움직일 수 없었다. 정병은 곧 석가모니이다. 정병에서 석가모니가 화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파순과 그 무리는 부동(不動)의 석가모니 세존을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다.

복제는 석굴암 성소(聖所)에 대한 모독이다.

석굴암의 고차원적인 예술과 심오한 사상을 이해하면, 왜 복제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가는 자명해 진다. 복제품 건립에 있어서 정부와 불국사-석굴암, 이를 찬성하는 학자들의 대변자인 문명대 씨는, 다음의 이유로 복제품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문명대 씨의 주장을 반박하기에 앞서, 용어부터 바로 잡을 것을 주장한다. 원형 외에 따로 짓겠다는 것은 복제품이지 제2의 석굴암이 아니다. 그리고 복제를 복원이라 말하지 말라.

"국내외 관람객의 불만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석굴암은 우리나라에서 예술과 자연이 어울린 가장 성스러운 장소이다. 세계적인 종교적 성소이다. 그러므로 관광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몰려온다면 오히려 제한해 줄을 서서 감상도 하고 경배해야 한다. 일본의 대표적인 불상인 목조 몽전(夢殿)관음상은 보전을 위해 가을 한 달 동안만 일반에 공개한다. 그래도 누구 한 사람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다. 석굴암에도 하루 몇 명 이상은 안 된다는 제한을 둬야 한다. 수 백명 학생들의 단체관람인 경우 제한하거나 줄을 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감상해야 한다. 또, 일정 기간을 정해 입장을 금한 다음 석굴암 내부에 통풍을 시킬 필요가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영험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신도들의 원성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필자는 이런 말은 처음 듣는다. 석굴암이 세계에서 가장 영험이 있다는 것은 석굴암의 신성함을 모독하는 것이다. 석굴암은 자력신앙을 웅변하는 불교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곳이지 소원을 비는 기복의 대상이 아니다. 영험을 바라거든 대구 팔공산 갓바위로 가라.

"똑같이 복원하고 완성도 높게 재현함으로써 최고의 예술적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문명대 씨는 똑같은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재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 아닌가. 복원과 복제도 구별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복제를 만드는데 무슨 예술적 기량을 발휘한다는 말인가. 그러려면 복제를 만들려 하지 말고, 석굴암에 견줄만한 기념비적 석굴사원을 현대적 해석을 가하여 창건하는 편이 좋다.

"화강암의 판석이 어느 때 무너져 내릴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현재의 석굴암은 앞으로 영원히 끄떡도 없다. 다만 8부중 가운데 석질이 좋지 않은 몇 개의 판석에서 떨어져 나가는 표면이 걱정이다. 그것도 보존과학적으로 검토하면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복제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안전한 상태의 석굴암을 고의적으로 위험하다고 거짓말해서는 안된다. 아무 것도 모르는 대중은 정말 그런 줄 알 것 아닌가? 그런 협박적이고 선동적인 발언은 삼갔으면 한다.

"완성도 높게만 복원하면 100년 후에는 이 또한 문화재로 등록되기에 충분할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복제품이 문화재로 등록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완전히 똑같은 복제품을 만든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최선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할 것은 뻔하다. 예술작품을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하는 이유는 그 예술품에 예술가의 영혼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가.

"제2석굴암은 환경파괴와 관계없는 석굴암 마당 아래 화장실 옆 계곡과 마당에 걸쳐 복원한다면 석굴암과 거의 동일한 환경이 될 뿐만 아니라 환경파괴와는 전혀 무관하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

이 대목에 이르러서는 할 말을 잃는다. 바로 그 장소에 지으면 지금의 석굴암은 원형을 잃는 것과 같다. 석굴암 본존은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이다. 석가모니께서 정각을 이루려할 때, 악마 파순은 어둠(無明)을 좋아하는 까닭에 석가모니께서 정각을 이루면 세상이 광명으로 가득 차서 자기네들이 숨을 곳이 없어지므로 악마의 무리들을 이끌고 나타나 온갖 방법으로 석가모니를 죽이려 한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그 악마의 무리들을 물리치며 항복을 받고 동시에 정각을 이룬다.

바로 코 밑에 복제를 만들면 석굴암과 거의 같은 환경이라 말하니, 문명대 씨는 현재의 석굴암은 안중에도 없는가 보다. 그렇게 짓는다면, 현재의 석굴암은 자연과의 조화를 잃어 그 위대함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석굴암 본존의 종교적 의도를 무참하게 짓밟는 것이다. 문명대 씨는 악마 파순이의 화신이고 찬성하는 무리는 그 수하의 병졸들인가.

"복제품 만드는데 과감하게 매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문명대 씨는 제2석굴암 건설을 복원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이 석굴암 복원이라고 해도 현재 복원은 다른 문제이다. 지금 존재하는 석굴암을 복원해야 한다. 특히 석굴암 밖의 원래 모습을 전혀 알 수가 없는데 무슨 복원을 한다는 말인가. 복제품을 포장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무엇을 만든다고 과감히 매진한단 말인가. 문명대 씨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사로이 이런 일에 앞장을 서는가! 더구나 학자가 공무원과 승려들에 훨씬 앞서서 복제를 서두르는 까닭이 무엇인가. 학자라는 이름이 부끄럽다. 필자는 이 글을 쓰면서 구태여 날카롭고 긴 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글을 마친다. 끝으로 조언을 한 마디 하겠다. 굳이 그토록 애타게 복제를 만들고 싶다면 불국사 넓은 경내에 만들면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부(富)도 축적할 수 있다.



강우방 원장

일향 한국미술사연구원 · 이화여대 명예교수

강우방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1941년 중국 만주 안동에서 출생해,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고고인류학과를 수료했다. 일본 교토국립박물관 및 도쿄국립박물관에서 동양미술사를 연수한 그는, 미국 하버드대에서 미술사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68년 이래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장과 학예연구실장 등을 역임하고 국립경주박물관장, 이화여대 미술사학과 교수를 지냈다. 현재 이화여대 명예교수, 일향 한국미술사연구원장이다.
저서에는 〈미의 순례〉 〈원융과 조화〉 〈한국 불교조각의 흐름〉 등 다수가 있다.

● 불교서적총판 운주사는 양질의 불서를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불교서적총판 (주)운주사
● 불교서적/음반 도매 ● 불교서점 개설
● 도서관 납품 ● 불교도서전 개최

인터넷 검색창에 「붓다북」을 검색해 주세요.
「붓다북」에서 총서를 구입하시면
소정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붓 다 북 바로가기 QR코드



깊이 있는 연구, 새로운 시각, 다양한 주제!
불교학술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도서출판 운주사의 〈프라즈냐 총서〉



1 불교철학의 역사
D.J. 칼루파하나/김종욱 옮김/신국판양장/544쪽/25,000원
불교 철학의 역사 전체를 붓다 본연의 가르침에 따라 정리한 역작!

2 한국의 불교의례 I
정각 저/신국판양장/460쪽/23,000원
한국불교에서 행해지는 의식 및 의례의 역사와 절차, 의미 등을 규명한 책!

3 밀교학 개론
종석 저/신국판양장/286쪽/12,000원
밀교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종합불교·현실불교로서의 밀교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조명한 책!

4 법화경의 성립과 배경
塚本啓祥 저 · 이정수 역/신국판양장/576쪽/27,000원
법화경 성립의 배경을 문헌학, 고고학, 미술사, 고문서학, 비명학, 고대화폐학에 의거하여 실증한 책!

5 성철선사상
도대현 저/신국판양장/448쪽/23,000원
돈오돈수와 중도로 집약되는 퇴옹 성철의 선사상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한 최초의 책!

6 인도불교사
정순일 저/신국판양장/726쪽/33,000원
인도 불교의 중요 불교교리와 인물, 핵심 개념과 경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

7 주역선해 연구
청화 저/신국판양장/510쪽/25,000원
명말 고승인 우익지욱이 『주역』을 고도의 불교사상으로 재해석한 『주역선해』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서!

8 율장의 승단분열 연구
자현 저/신국판양장/280쪽/15,000원
붓다 당시 승단분열의 역사적 과정을 제바달다의 파법륜승, 파승가를 중심으로 객관적이면서 생생하게 추적한 책!

9 불성론 연구
최현민 저/신국판양장/368쪽/18,000원
본성론적 불성 이해에 기반한 수증관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새로운 불성론과 수행론을 제시한 도겐의 사상을 궁구한 책!

10 불교의 마음챙김과 사상의학
불교와 사상의학 연구회 편/신국판양장/416쪽/23,000원
불교의 수행론인 마음챙김과 한의학의 치유론인 사상의학 간의 다양한 융섭과 그것이 가져오는 창발효과를 규명한 책!

11 청송의 선과 철학
소광희 외 저/신국판양장/312쪽/18,000원
『선의 세계』라는 저서를 통해 동양적 사유의 결정체인 선과 서양철학의 회통을 추구한 청송 고형곤의 사유세계를 정리한 책!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5가 120번지 동일하이빌 지하 1층 ●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 전화 (02) 3672-7181 ● 팩스 (02) 3672-7186 ● www.unjusa.com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74〉

'어흠' 에 어떤 뜻이 있는가?

학승이 물었다.
"사람을 무는 사자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귀의불, 귀의법, 귀의승, 노승을 물지 말아줘."

問 如何是咬人師子
師云 歸依佛 歸依法 歸依僧 莫咬老僧

귀의(歸依)는 '돌아가 의지합니다' 라는 뜻이다. 귀의불은 '부처님께 돌아가 의지합니다' 이고, 귀의법은 '진리에 돌아가 의지합니다' 이고, 귀의승은 '스님께 돌아가 의지합니다' 이다. 불교에 입문했을 때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겠다는 첫 맹세의 노래이다. 여기서 조주 스님은 삼보(三寶)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의미로 썼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다. 부처님을 사자에 비유한다. 그런데 사자가 문다는 것은 부처님이 중생을 깨닫게 하기 위해 중생이 마지막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는 최후의 집착마저 야멸치게 물어뜯어 버린다는 뜻이다.

조주 선사는 사자가 막 자기를 물라고 돌진해 올 때를 시연하면서 그 사자는 무섭다는 뜻을 내보였다.

"나는 당신 편이어요. 나는 이미 버렸어요. 더 이상 버릴 것이 없어요. 그러니 나를 물지 말아주세요!"

선사는 질문에 대해서 반박하고, 순응하고, 긍정하고, 배척하는 것을 설명 없이 행동으로 보이는 수가 있다. 하나의 행동이 수많은 말보다 더 효과적일 때가 있기 때문이다.

학승이 물었다.
"언구(言句)를 떠나서 노스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주 스님은 기침을 한번 했다.

問 離卻言句請師道
師咳嗽

"진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말속에는 진실이 있지 않습니다. 선사시여, 말과 뜻을 떠나서 꼭꼭 숨어있는 진실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조주 선사는 "어흠" 하고 한번 기침을 했다. '어흠' 이 말인가, 글인가, 뜻인가? '어흠' 은 언구를 떠난 도리이다. 알겠는가? '어흠' 에 무슨 뜻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

마음을 쉬고 보라. 허망한 욕심과 환상을 버리고 보라. '어흠' 에 분명 언구를 떠난 도리가 있다. 여기서 잘 탐구해 보라. 어찌하여 이것이 언구를 떠난 도리인가? 만약 여기서 언구를 떠난 도리를 알았거든 방장을 찾아가서 3배를 올린 후에 다짜고짜 물어보라. "언구를 떠난 도리가 무엇입니까?"하고. 그러면 그 방장의 수준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어떻게 하면 옛사람을 비방하지 않고 은혜를 배반하지도 않을 수 있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問 如何得不謗古人不負恩去
師云 闍黎作麼生

불교는 좋은 일을 해도 절대 '했다' 는 것을 내세우지 않아야 참다운 선(善)이라고 말한다. 옛사람은 부처님이고 스승이다. 스승에게 뭘 배웠다라든지 스승님은 이러이러한 진리를 설법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스승을 비방하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스승은 가르쳐도 가르친 것을 내세우지 않고,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가르칠 내용도 없다고 가르친다. 그런데 만약 "스승이 이러한 법을 말했다"거나, "이 분이 나의 스승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스승을 비방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이것이 법이다"라든지, "나의 스승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스승의 말을 자기 말처럼 하는 것이므로 이것 역시 스승을 배반하는 것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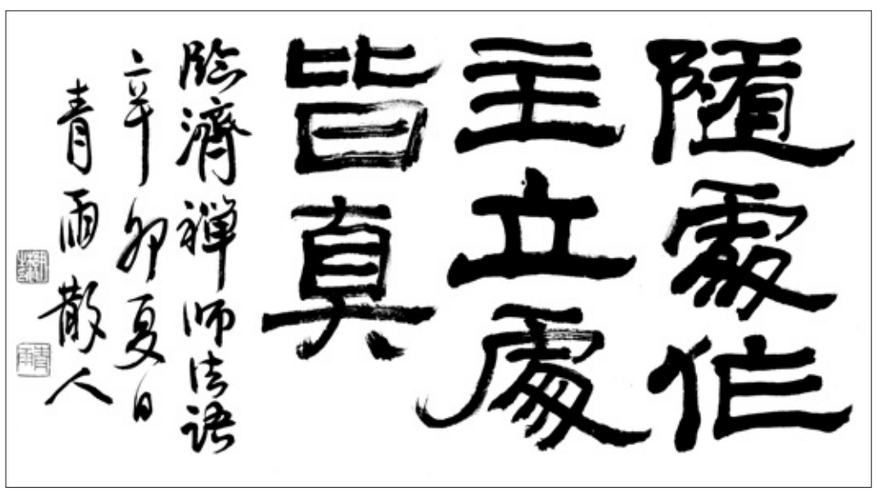
그렇다면 스승을 비방하지 않고 배반하지도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 독자들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처신을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만일 이 납자에게 묻는다면 다음과 같이 말하겠다.

"다만 스승을 비방할 뿐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윤상민의 **서화산책** ㉒ 수처작주 입처개진

지금 있는 그 곳이 모두 진리이다



隨處作主 立處皆眞(수처작주 입처개진)

처하는대로 주인이 되라. 지금 있는 그 곳이 모두 진리이다. 〈임제록〉

隨: 따를 수
處: 곳 처
皆: 다 개
眞: 참 진

수처작주	개입처	임제선사	청우산인



서예가 · 동아미술상 수상

선어록 해제 ㊿ 54
한국선과 선어록 24

천경집(天鏡集)

선의 갈래에 대한 천경의 안목 보인 책

〈천경집〉은 천경 대사(1691~1770)의 글을 모아서 문하인 취운성안(翠雲聖岸)이 3권으로 편록한 것이다. 성안이 쓴 행적에 의하면 휘가 해원(海源)이고, 호는 함월(涵月)이며, 자가 천경(天鏡)이다. 법계로는 청허휴정의 현손에 해당된다. 3세 때 어머니를 잃고 14세 때 도창사(道昌寺)에서 석단(釋丹)스님에게 출가하고, 능허영지(凌虛英智)에게 구족계를 받았다. 이후 여러 선지식을 참하고 환성지안(喚惺志安)에게 6년 동안 삼장(三藏)을 두루 배웠는데 화엄학과 염송에 정통했다. 31세 때부터 75세까지 45년 이상을 남북으로 두루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성실하게 가르침을 베풀었다.

해월천경은 〈천경집〉에서 기존부터 총림에서 전승되던 조사선과 여래선을 격외선에 배대하고 원돈문의 가르침을 의리선에 배대하는 선의 두 가지 갈래에 대해 비판해 자신만의 독특한 입장을 피력한다.

때문에 격외선과 의리선의 두 가지로 분류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주지하다시피 선의 명칭에 4종이 있는 것처럼 선의 체성에도 또한 반드시 4종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의리선과 격외선의 체성은 본디 있기 때문에 가히 알 수가 있겠지만, 여래선과 조사선의 경우는 무엇으로 그 체성을 삼을 것인가. 아둔한 산승이 헤아려본 바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고 말한다. 이에 여래선은 법을 설하는 주체적인 측면에서 말한 것으로 능설의 입장이고, 조사선은 설해진 법의 객체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소설의 입장으로 간주했다. 곧 격외선과 의리선의 두 가지를 격외선과 의리선과 여래선과 조사선의 네 가지로 독립시킨 것이다. 그래서 새롭게 의리선과 격외선을 정의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천경은 화엄학과 염송에 정통했던 인물
격외 · 의리 선의 두 가지 갈래 비판해
격외 · 의리 · 여래 · 조사선 넷을 주장

"여래가 이 세상에 출현한 뜻은 다만 진여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서 일심의 근본으로 뭇 중생들을 가르쳐서 저 하나의 비로자나의 본래면목을 드러내는 것이 곧 원돈문의 의리선이다. 또한 달마조사가 인도에서 중국에 와서 활인검으로 비로자나라는 집착의 소굴을 타파하고 중생 개개인의 본지풍광을 드러내 보이려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소위 '법이 법위(法位)에 머물러 세간상이 그대로 상주도리이다' 는 것으로 격외선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서 하택종의 조사들과 홍주종의 조사들 백여 명의 설법은 모두 원돈문의 요의를 근본으로 삼았고, 규봉종밀은 〈선원제전집〉과 〈법집별행록〉을 찬술해 격외선에 상대해 의리선이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내세웠음을 제시한다. 더욱이 여래선과 조사선을 격외선으로 통칭한 것을 비판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체(事體)로 보면 선과 교가 별개인데 이것은 마치 얼음과 숯처럼 같지가 않고, 법체(法體)로 보면 선과 교가 동일한데 이것은 마치 물과 파도처럼 다름이 없다. 때문에 청량징관은 선과 교를 법체가 동일하다는 입장에 근거해 선지를 달마가 전한 이심전심의 소식도 원교에서 말하는 증입생(證入生)의 도리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통합적으로 설명한 것은 원교의 학자들이 허영과 교만의 병통에 빠져 선과 교의 고하를 모르고서 한 말이다. 때문에 목우자 지눌은 원교에서 말하는 증입생의 도리를 '어로(語路)와 의로(義路)의 흔적을 면하지 못한 짓거리이다' 라고 타파해 격외경절문의 도리를 드러내었다. 이로써 격외선에는 여래선이 들어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기존의 총림에서 "옛날 선종의 제2조 혜가는 달마에게 참하여 인연의 문답으로 여래선을 깨쳤고, 법인의 문답으로 조사선을 깨쳤다. 또한 방온거사는 석두의 휘하에서 여래선을 깨쳤고, 마조의 휘하에서 조사선의 도리를 깨쳤다"고 말하는 예를 비판해 그들이 처음 선지식을 참하여 깨친 것을 여래선의 획득으로 치부해버린 것은 처음에 깨친 도리에 대하여 말후뇌관을 투득(透得)하지 못하고 의로의 흔적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얄팍하게 여래선으로 폄하해 평가한 것이다.

곧 혜가의 스승인 보리달마와 방온거사의 스승인 석두희천이 격외선을 드날리면서 도리어 그들 제자에게 여래선을 지시한 적이 없고, 또한 격외선 가운데 조사선이 있다고 하는데 조사선이 어찌 격외선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들 평가하는 것은 모두 능설과 소설이 다르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소치라고 비판한다.

또한 체중현을 의리선에 배대하고 구중현과 현중현을 여래선에 배대하며, 별도로 일구를 두어 조사선에 배대하기도 하는 점에 대해서는 "체중현을 의리선에 배대하는 것은 그런대로 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구중현을 경절언구에 배대하고, 현중현을 양구와 방과 할 등에 배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도대체 여래선의 어떤 도리에 정전백수자 등의 언구가 있고, 양구와 방과 할의 작용이 있단 말인가. 참으로 황당무계한 말로서 감히 들어줄 수가 없다"고 비판한다. 그 까닭은 삼현 및 별도의 일구는 조사선의 경절문에서 병통을 없애주려는 방편의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여래선에 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설법의 주체적인 측면에서 말한 것은 여래선이고, 설법의 객체적인 측면에서 말한 것은 조사선이며, 여래가 보편적인 본분진여를 드러내 보이려는 것은 여래선이고, 달마조사가 개개인의 본지풍광을 드러내 보이려는 것은 격외선이다. 이로써 선의 네 가지 명칭에 대해 명실상부하게 선의 네 가지 체성으로 각각의 의미를 부여해 파악한 점이 선의 갈래에 대한 해월천경의 안목이었다.



김호귀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오전 7시 20분 -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효능)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전화번호 : 031)673-1285
참나선원 대진스님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www.chorokwon.com 박현숙 원장

정확도 효과성 제일
전국 교보 · 영풍 · 반디앤루니스 · 인터파크 · 예스24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 육임 학습서 ◆
· 효사육임강론 2011개정증보 제8판본 상 · 하 권 45만원
· 효사육임사주감정법 2011개정 제2판본 1권 5만원
· 효사육임요지 2011최신판 1권 5만원 이상3종

◆ 육임 활용서 ◆
· 도사에게 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제6판본 1권 좌정용 3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3판본 순별6권 휴대용 3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좌정용 2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휴대용 25만원
· 오행수법제례의식집 2011개정 제5판본 1권 5만원
· 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 제3판정련본 1권 5만원
· 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15만원 이상8종

◆ 육임 및 각 오행술 분개 CD프로그램 ◆
· 효사활인천역집 2011완결최종판 (종합) 350만원
· 효사육임산책 2011최신판 순별 전6권 수록 90만원
· 효사래정비법 혁신판 수정보완본 월장별 전12권 수록 (대계전서) 70만원
· 도사에게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수록 20만원

· 효사일상생활감정법 2011정련 제5판본 1권수록 20만원
· 효사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정련 제3판본 1권수록 30만원
· 효사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수록 30만원
· 매화역수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월영도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성명학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정통부적보감 2011정련판 수록 5만원
· 토정비결수록 5만원
· 꿈해몽 5만원 이상 13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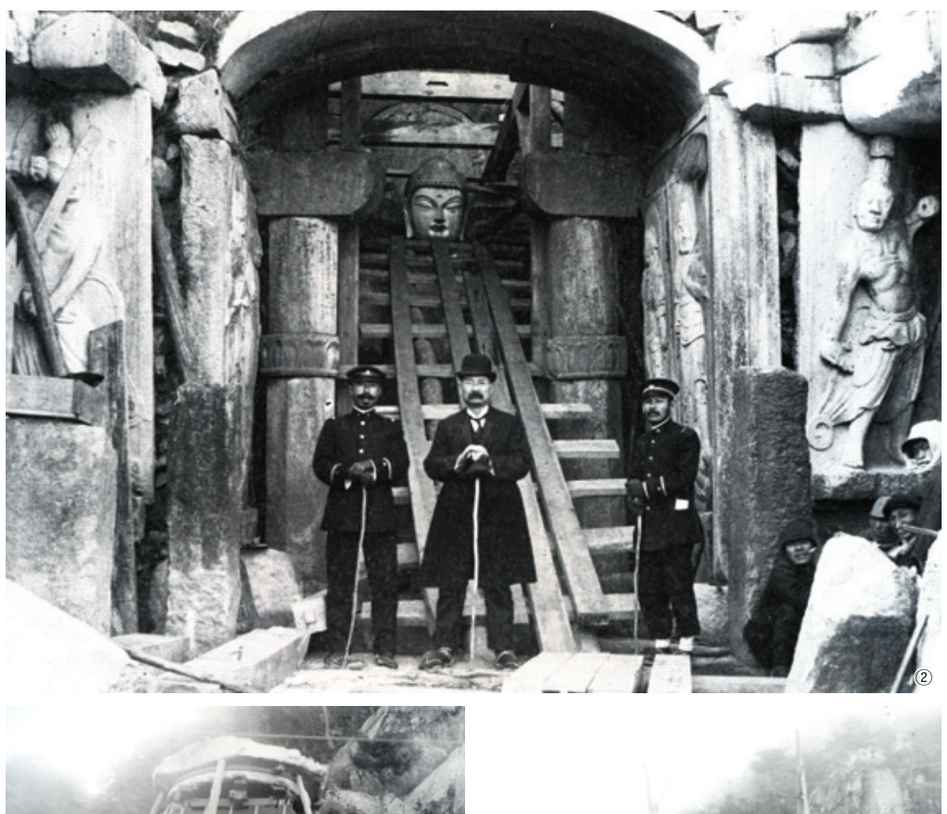
◆ 기 타 ◆
· 효사도정기 2011최신판 5만원
· 불가법요집 2011최신판 5만원

◆ 본사 직접판매 고가 육임활용서 및 활용 CD프로그램 목록 ◆
· 고귀명수 전통1권 / 전순별6권, B4 / A4, 미색모조 / 백색모조 중 선택 정가350만원
· 육임복변집 좌정용 전6권 정가250만원
· 육임산책 휴대용 전6권 정가250만원
· 효사활인천역집2011완결최종판 종합CD프로그램(무인증장착) 정가350만원
· 효사육임강의CD100개 정가 120만원
· 한국육임학회 인터넷강의 동영상 매1회 (24시간수강) 7천원

[주문전화] 02)738-8680 / 070-7514-8680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301-778137 / 육임나라㈜
농 협 301-0071-8027-01
www.taotemple.net / 입금 후 다음날 수취가능
육임컨텐츠개발전문 - 육임나라 (주)

이렇게 아름다우면서 위대한 작품을 본 적 있는가


①


②


③


④

미술사학계 원로·석굴암 전문가
강우방 명예교수가 말하는 석굴암

석굴암(원래는 석불사)은 불국사와 함께 통일신라가 문화적으로 가장 수준 높고 독창적이었던 8세기 중엽에 이루어졌다. 12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당시의 모습을 그런대로 온전히 보여주고 있어서 더없이 값진 우리 문화유산이다. 그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문화유산이 숱한 전쟁의 참화를 겪으면서도 온전한 모습을 지니고 의연히 서 있는 것은 실로 기적이라 하겠으며, 하늘이 우리 민족에 내린 축복이라 하겠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왜 그것들이 훌륭한지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니 그 고마움도 느끼지 못한다. 이는 교육의 잘못에도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석굴암과 불국사에 대한 연구가 깊고 넓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을까. 이 물음은 그 두 유산이 왜 훌륭한가 하는 물음과 맞물려 있다.

불국사의 건축과 석굴암의 건축과 조각은 아름답다. 그리고 위대하다. 아름답다는 것과 위대하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것이다. 이 세상엔 아름답지만 위대하지 않은 것, 위대하지만 아름답지 않은 것은 많다. 하지만 석굴암 · 불국사처럼 아름다우면서 동시에 위대한 것은 세계에 드물다.

불국사와 석불사의 작품(석굴암)이 아름답고 훌륭하다면 거기엔 필경 무슨 까닭이 있을 것이다. 필자는 오랫동안 연구해 오면서 여기에 드높은 정신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고매한 사상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우면서 위대한 것이다.

위대한 정신을 잘 나타내려면 완전히 아름답게 표현해야 한다. 그것을 만든 예술가의 정신 또한 고매해야 한다. 동시에 그 시대의 정신이 드높아야 아름답고 위대한 예술이 탄생된다. 그러니 우리가 노력해 정신적으로 성숙해야만 석굴암과 불국사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보일 것이다.

그러면 불국사와 석굴암의 예술에는 어떠한 드높은 사상이 깃들어 있는지 또 그 사상이 어떻게 조형미술로 표현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그 동안의 연구 성과

불국사와 석불사의 건축과 조각은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불교문화권에서 어깨를 견줄 만한 것이 없을 만큼 독창적이며 훌륭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 때 훌륭하다고 하는 것은 인도나 중국의 불교미술의 아류가 아닌 독창성에 감탄하면서 막연히 갖는 찬탄의 감정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이 두 사원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다각도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까닭은 무엇보다도 두 사원에 관한 기록이 거의 없거나, 기록이 있어도 신빙성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두 사원 및 이와 관련된 인물에 대한 기록은 정사

故 이기백 교수는 김대성 실체 증명
김상현 교수는 화엄사상 배경 조명
필자는 석굴암 본존 도상 근거 밝혀

(正史)인 〈삼국사기〉 본기(本紀)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일연, 개인이 편찬한 사찬서(私撰書)인 〈삼국유사〉에 나타날 뿐이다. 그것도 두 사원의 건립에 참여한 예술가 그룹, 건립동기, 공사기간, 사상적 종교적 배경, 건립의 주체 등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거나 모호할 뿐이다. 다만, 석굴암과 불국사에 얽힌 설화적인 것이 김대성(金大城)을 중심으로 엮어져 있을 뿐이다. 전해오는 〈불국사사적기〉도 18세기 이후 후대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부분은 얼마 되지 않는다. 또, 창건 당시의 상황은 〈삼국유사〉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새로운 자료를 여전히 찾아볼 수 없다.

설화 같은 신빙성 없는 이야기와 불확실한 사실 몇 가지만 우리 앞에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석굴암 · 불국사의 기록을 재검토해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사원의 건축과 조각, 건조물 등을 분석 · 해석해 새로운 사실 · 사상적 배경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두 가지 어느 작업을 하든 증명과정이 요구된다. 설화를 역사적 사실로 확인하고, 작품에서 역사적 사실을 새로이 밝혀내는 작업에서 두 사원의 성격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정당하게 이뤄낸 세 사람과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故 이기백 前 서강대 교수(1924~2004)는 설화의 주인공 같은 김대성이 실존하는 역사적 인물임을 확인했다.

故 이기백 교수는 〈삼국유사〉의 김대성과 그의 아버지 김문량을 〈삼국사기〉의 김대정과 김문량에 비정(比定)해 의심치 않았다. 김문량은 성덕대왕의 중시(재상)로 706~711년 재임했다. 김대정은 경덕왕대의 중시로 745~750년 재임했다. 이기백 교수의 연구로 불국사와 석불사의 창건을 주도한 인물이 김대정임을 알게 됐고, 김대정이 중시에서 퇴임한 이듬해에 두 사원의 건립을 주도한 사실도 밝혀졌다. 김대성이 김문량과 부자지간임도 새로이 밝혀 김대성과 그의 가문에 대해 알려지지 않았던 중대한 발견을 이뤄냈다.

당시 집사부 특히 중시를 중심으로 성장한 새로운 귀족세력은 점차 왕권에 제약을 가하는 요소로 발전했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 변화상을 마땅히 국가가 주도했어야 할 거대한 토목공사인 두 사원의 건립을, 정계에서 은퇴한 중시였던 김대성이 주도한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불국사 · 석굴암과 화엄종의 관계와 관련해 김상현 동국대 교수는 표훈과 신림의 자취를 추적해 냈다. 표훈이 불국사에 머물렀다는 것은 〈삼국유사〉 의상전교(義湘傳教)에서도 보이지만, 김 교수는 그에 앞선 경덕왕대(760년)에 황복사에서 화엄을 강설했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표훈이 바로 황복사에 있을 때 김대성(균여의 〈십구장원통기〉에는 "대정각간(大正角干)으로 나와 있다)이 표훈 대덕의 방에 나아가 삼본정(三本定)을 배우고자 청했다"고 기록돼 있다. 삼본정, 즉 세가지의 근본적인 삼매란 화엄사상의 핵심적인 요소이니, 의상의 십대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자 흥륜사 금당에 모셔졌던 십성(十聖) 가운데 하나이며, 경덕왕 때 대표적인 화엄학자 표훈에게서 삼본정을 배우고자 했던 김대성 역시 화엄사상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림도 불국사에서 법회를 주관한 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 법회란 화엄학을 강의하는 자리였다. 신림은 의상의 손제자(孫弟子)로 표훈과 함께 당대의 대표적인 화엄학자였다.

이처럼 불국사 · 석불사를 중심으로 화엄에 관한 여러 자료가 밝혀짐으로 해서 두 사원의 사상적 배경이 화엄에 있음을 확인케 된 것은 매우 중요한 학문적 연구결과이다.

셋째, 필자는 석불사(석굴암) 본존의 도상(圖像)의 근거를 밝혔다.

필자는 1985년 어느 날, 미국 하버드대 도서관에서 석굴암 연구에 착수한 바 있다. 그 때, 석굴암 건축이 그토록 치밀한 기하학적 작도에 의해 설계됐다면, 본존의 크기도 어디에 근거하여 정해졌으리라 생각했다.

요네다 미요지(米田美代治)에 의해 석불사 본존의 크기는 당척(唐尺)으로, 높이 1장1척5촌 양무릎폭 8척8촌 양어깨폭 6척6촌으로 환산되어 있었다. 그 수치가 어디에 근거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찾은 결과, 마침내 똑같은 치수의 크기뿐만 아니라 수인(手印) · 향방(向方)이 똑같은 불상의 존재를 현장의 〈대당서역기〉에서 찾아냈다. 필자는 이를 논문으로 작성해 한국에 알렸다. 현장은 인도 성지순례 길에서 석가모니가 정각을 이룬 보드가야의 대각사를 찾았다. 그곳에 모셔진 불상에 대해 현장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불상은 현재 남아있지 않음)

"정자 안에는 불상이 훌륭한 모습으로 발을 괴어 오른발 위에 얹고, 왼손은 살 위에 두었으며 오른손은 늘어뜨려 항마인(降魔印)의 상을 지은 가운데 동쪽을 향해 앉아 있었다. 그 근엄한 모습은 참으로 그곳에 부처님이 계신 것 같았다. 상(像)의 높이는 1장1척5촌에 양무릎의 폭이 8척8촌이며 양어깨의 폭은 6척2촌이다."

어깨의 폭은 그 기준점 잡기가 어려워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앉은 높이와 양 무릎 폭은 물론 수인과 향방이 요네다 미요지에 의해 밝혀진 수치와 정확히 일치한다. 앉은 높이와 양 무릎 폭은 누가 재도 다를 수 없다.

필자의 이러한 발견으로 인해 석굴암 본존의 모델이 인도 대각사 본존에 있었음이 밝혀졌다. 신라에서 이뤄진 불연불국토사상(佛緣佛國土思想)의 전개는 매우 지속적이고 현란할 정도이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석굴암의 항마촉지인성도대불(降魔觸地印成道像大佛) 조성은 바로 신라의 토함산(吐含山)에서 석가모니가 정각을 이뤘다는, 신라의 불국토사상(佛國土思想)의 절정을 이룬 완성이라고 확신한다.

또 하나, 문명대 씨의 석굴암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이 있다. 교리와의 관계만을 읽어 보았는데 논문 조작이 너무 심해, 필자가 '문명대 교수의 오류'라고 해서 그 내용을 소상히 밝힌 바 있다. 이 내용은 아직 학술행사에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필자의 홈페이지에 올린 바 있다.

이상의 연구에 의해 불국사와 석불사(석굴암)는 상당히 구체적인 역사성을 띠게 됐고, 두 사원의 굳건한 연구의 발판을 마련했다.

석굴암의 예술과 사상

통일신라시대 8세기 중엽, 경덕왕대는 한국문화의 고전양식이 확립된 문화의 황금기였다. 고구려 · 백제 · 신라의 삼국시대 문화도 괄목할 만한 창조적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해오는 유물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 그 전모를 알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반면 통일신라시대의 문화유산은 많은 양이 남아있고 그 전통이 고려와 조선으로 면면히 계승됐다. 경덕왕대는 종교 · 미술뿐만 아니라 사상 문학 과학 수학 경제 등 모든 분야가 고도로 발달한 시기였다. 사상적으로나 예술적으로도 독창적인 시대였고, 기술 또한 완벽해 우리나라 미술사에 가장 아름다운 미술품을 남겼다.

이러한 문화적 바탕 위에 건립된 불국사 · 석굴암은 경덕왕대 재상을 지낸 김대성이 발원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건립한 것으로 모두 751년에 공사가 시작됐다. 완공된 해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780년경으로 추정된다.

불국사 · 석굴암의 조성 배경은 화엄사상
깨달음이 사바세계를 연화장세계로 만들어
석굴암은 佛身의 모든 변화의 다양성 수렴해

화강암은 다루기 힘든 석재로써 석질의 입자가 굵어 다듬기 힘들고 조각하기 힘들다. 이를 자유자재로 다듬어 이룩한 불국사 · 석굴암은 당시의 예술가들이 이 재료를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다루는 경지에 이르렀음을 웅변하고 있다.

석굴암은 불국사와 함께 다뤄야 한다. 불국사의 석조구조는 많은 부분이 목조건축을 번안해 이뤄졌고 석가정토를 정토건축으로 나타내려 했다. 아미타신앙은 통일신라시대 대중 사이에 크게 성행했다. 모든 중생이 '나무아미타불'을 단 한 번만 염불해도 쉽게 속세의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행복의 땅, 극락세계가 바로 아미타정토이다. 이에 비해 화엄사상은 자력신앙을 강력히 제시하고 있으나, 심오하고 난해해 일반 대중이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불국사에서는 석가정토를 강조해 아미타정토보다 더 넓게 더 높게 건축하고, 더 화려하게 장엄했다. 이는 당시에 성행하던 아미타신앙보다 불교가 본래 지향하는 정각한 석가모니의 정신세계를 강조한 것이다. 타력신앙(他力信仰)을 강조하는 아미타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극락세계가 모든 정토들 가운데 가장 장엄하고 최상위에 있으나 자력신앙(自力信仰)을 강조하는 화엄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정토들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화엄사상에 의한 최고의 이상세계(理想世界)를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라고 한다. 이 연화장세계는 깨달음의 세계 즉, 정각(正覺)의 세계를 뜻한다. 진리를 깨닫는 정각에 들면 문득 삼라만상이 조화로운 관계에 있음을 보게 되고 모든 차별이 없어지고 상즉상입(相卽相入)해 원융(圓融)의 상태를 이루게 된다. 이 평등의 조화로운 세계가 연화장세계 즉, 법계(法界)이다. 불교 가르침의 근본은 중생들이 노력하고 깨우쳐 가르침을 실천하여 사바세계를 그대로 연화장세계로 변모시키는데 있다. 즉, 사바세계가 이상향인 연화장세계로 변모하는 계기는 깨달음 · 정각에 있다.

이러한 화엄사상을 바탕으로 가시적인 석가정토를 이상세계인 연화장세계와 동일시해 아미타여래보다 석가여래를 우위적 위치에 두어 불교의 근본입장을 강조했다. 더구나 한국의 아미타정토신앙은 화엄의 범주 안에서 전개돼 왔다. 그러한 까닭에 불국사는 '대화엄불국사'로 불려졌다.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달은 모습을 표현한 것이 석굴암의 본존불, 항마촉지인 석가여래이다.

석굴암은 불국사와 더불어 심오한 화엄사상을 반영해 건축됐다. 화엄사상은 우리에게 자력신앙을 강력히 제시한다. 석가모니는 열반에 들면서 "나에게 의지하지 말고 내가 설한 진리와 네 자신에 의지하라"고 했다. 이 유언은 스스로 노력해야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올바른 길을 제시한 것이다. 불국사의 건축은 이러한 가르침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석굴암에서는 정각을 통해 석가보살이 석가여래가 되고, 석가여래는 진리 그 자체가 되어 비로자나불로 변모하는 순간을 항마촉지인 성도상이라는 도상(圖像)으로 함축했다. 말하자면 불신(佛身)의 모든 변화의 다양성을 한 몸에 수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불국사는 여러 모습으로 분화된 불신을 여러 불국토에 나눠 배치하면서 석가정토를 강조했다. 아미타여래는 석가여래의 다른 모습이며, 비로전의 비로자나불은 석가여래가 설한 진리 자체의 형상화이며, 관음전의 관음보살은 석가여래의 자비심을 형상화 한 것이다. 불국사의 분화된 불신에 따른 여러 전각의 공존은 이후 여러 전각으로 구성된 가람배치의 원형이 됐다.

---

①주실(主室)의 궁륭천정-108개의 돌로 구성된 궁륭천정은 고대의 천문관 내지는 불교의 우주관을 상징한다. 이 천정의 맨 꼭대기에는 연화무늬의 둥근 돌을 덮어 석굴을 완성시켰으며 동시에 본존불의 천개로 삼은 아주 훌륭한 공법이다. 사진 출처= 황수영 著 〈석굴암〉 ②석굴암 돔 주위에 해체용 버팀목 설치-1913년 11월 4일~12월 12일 버팀목 설치가 완료됐다. 이 사진은 11월 중순 본존불 주위에 16개의 기둥을 세워 천정에 지붕을 설치하기 위해 본존불 머리쪽에 버팀목을 설치한 모습이다. 촬영자-申中龜熊(추정, 慶州 東洋軒寫眞館), 1913년 11월 촬영. ③석굴암의 완전 해체 후 본존불-이 사진은 8월 7일 석굴암을 완전히 해체한 후의 본존불의 모습이다. 촬영자-申中龜熊(추정, 慶州 東洋軒寫眞館) 1914년 8월 촬영. ④석굴암 돔 천정 제거-1914년 공사는 5월 21일에 착공해 해체용 구조물 이외의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이 사진은 해체용 구조물이 설치된 돔천정을 제외한 돔의 석재를 제거한 후에 촬영한 것이다. 촬영자-申中龜熊(추정, 慶州 東洋軒寫眞館) 1914년 5월 촬영.

석굴암 본존불은 인도 대각사의 것과 똑같다

석굴암은 토함산 정상 못 미쳐 깊숙한 곳에 동해를 향해 조성된, 석굴 형태를 갖춘 건축물이다. 내부 구조는 방형인 전정(前庭), 통로(通路), 원형인 주실(主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정과 통로의 좌우 벽면에는 무사적 성격을 띤 불법의 수호신들인 팔부중상(八部衆像), 금강역사상(金剛力士像), 사천왕상(四天王像)이 대칭으로 조각돼 있다.

주실은 원형의 평면과 둥근 궁륭(穹窿, Dome)의 천정을 한 반구형의 공간이다. 이 곳 중앙에는 대좌를 합쳐 총 높이 5m에 이르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 취하고 태양이 떠오르는 동해를 향해 원만한 모습으로 앉아 있다. 주위의 둥근 벽면을 따라 천부상(天部像), 보살상(菩薩像), 십대제자상(十大弟子像)이 대칭으로 조각되어 있는데, 이들 상(像)들은 석가모니불이 설법할 때 이를 듣기 위해 모인 회중(會衆)의 광경을 나타낸 것이다. 이들은 자세가 변화무쌍하며 능숙한 솜씨로 아름답게 조각되어 있다.

입구에서 보면 중앙 본존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뒷벽, 둥근 벽면의 중앙 가장 깊은 곳에 11면관음보살상(十一面觀音菩薩像)이 조각되어 있는데, 그 아름다운 자태는 우리의 감탄을 자아낸다. 미소를 머금은 얼굴표정, 유려한 천의(天衣)와 화려한 영락 장식, 손가락과 발가락의 미묘한 움직임까지 조각예술의 극치를 보여준다. 특히 재질이 화강암이어서 돌의 입자가 굵어 섬세한 표현은 거의 불가능한데도 완벽한 기술과 정성으로 도상의 의궤를 충실히 묘사한 것에는 경탄을 금할 수 없다.

중앙의 석가모니불 좌상은 숭고한 아름다움을 완벽히 나타내고 있는 정각상(正覺像)으로 모든 신체 부위가 원만하고, 옷주름은 생동감이 있으며, 눈은 가늘게 떠서 깊은 명상을 나타내고, 엷은 미소를 머금은 근엄하면서도 자비로운 표정을 짓고 있다. 손 모양은 항마촉지인으로 왼손은 선정인(禪定印)을 하고 오른손은 무릎에 걸친 채 검지로 땅을 가리키고 있다. 이러한 자세는 정각(正覺)을 이룬 순간에 악마 파순을 굴복시킨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정각상 또는 성도상(成道像)이라고 한다. 신라인들이 이러한 정각상을 심혈을 기울여 조성하려 한 것은 불교가 지향하는 정각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정각은 불교가 지향하는 최고 · 최선의 궁극적 인간의 존재양식이다. 정각의 순간 중생은 부처가 되고 속세는 정토가 된다.

이처럼 정각은 절대적 경지이므로 한국불교는 이를 지향해 왔다. 항마촉지인 정각상은 석불사 본존이 기점이 되어 고려-조선에 걸쳐 예배대상의 주류가 됐다.

앞서, 석굴암 본존의 도상이 현장의 〈대당서역기〉에 기록된 인도 보드가야의 대각사 불상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요네다 미요지가 석굴암 본존불을 당척으로 환산한 수치와 〈대당서역기〉의 기록이 일치한 것을 봤을 때, 필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필자는 그 때의 감격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신라인들은 보드가야 대각사의 정각상을 신라 땅 토함산 석굴암에 재현하려 했던 것이다.

〈대당서역기〉 기록으로 증명된 석굴암 본존불과 인도 보드가야 대각사 불상의 치수가 일치함은 석굴암 본존의 크기가 결정된 후, 건축이 설계됐음을 뜻한다. 건축이 조성된 뒤에 본존을 만든다면 일이 쉽지만, 본존의 크기를 결정한 후에 건축이 조영되면 제약을 많이 받아 자유로운 작도(作圖)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석불사는 이러한 제약이 없었던 듯 작도되고 설계됐다. 필자는 석굴암 본존과 건축의 조화 속에는 놀라운 수리적(數理的) 원리들이 내재돼 있음을 알게 됐다.

필자는 석굴암의 건축 조각 종교 수학 과학에 걸친 여러 문제를 고찰하면서 이 모든 것에 유기적 관계가 작용하고 있으며, 이 관계는 수리적 원리로 나타낸 비례(比例)에 기초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 수리적 원리에 기초를 둔 비례는 예술품의 구성에 있어서 조화의 개념을 부여한다. 이러한 수리적 원리의 고찰에는 한국 고대 건축의 구성론적 연구에 몰두했던 요네다 미요지의 치밀한 측량과 수리적 관계 도출이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그의 고찰은 구조에만 머물고 있었다.

석불사(석굴암)는 본존의 크기가 결정된 후 건축의 평면(平面)과 입면(立面)의 관계가 결정됐다고 했다. 이 3자간의 조화로운 관계는 12당척으로 이뤄진 정삼각형과 정사각형의 다채로운 비례에서 나온다. 주실의 반지름인 12당척을 기본단위 1로 했을 때 석굴암 건축의 부분과 전체 본존불과 건축과의 관계에는 1:√2 의 비례가 다각도로 사용됐음을 알 수 있었다.

한 변이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전개시켜 만든 직사각형은 √2장방형이고, √2장방형의 대각선을 다시 전개시켜 얻은 직사각형은 1:√3 비례의 장방형이 된다.(이 때의 변의 비 1:1.732는 황금비례 1:1.618에 가까운 '근사황금율'이라 해 고대의 건축이나 미술에 널리 응용됐다.) 이렇듯 정사각형에서 만들어져 √2 √3 √4 √5 장방형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그 출발점이 되는 √2장방형을 '조화의 문(La Porte d' harmonie)'이라 부른다.

이 √2장방형은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어, 이를 반으로 분할하여 만든 두 장방형 역시 √2장방형이 된다. 이를 반으로 다시 분할하면 또다시 √2장방형이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반복적으로 무수히 전개된다. 이러한 비례 분할은 황금장방형에서도 전개되며, 황금장방형 비례는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의 설계에도 내재돼 있다.

이와 같이, 자체 내에서 동일한 비례의 동일한 형태를 무한히 반복하는 현상은 화엄사상에서 말하는 중중무진(重重無盡) 법계(法界)의 원리와 같다. 부분과 전체의 중중무진의 수리적 관계가 파르테논 신전 건축에도 응용됐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파르테논 신전에 황금장방형 원리가 응용되고, 석불사에는 '조화의 문'의 원리가 응용된 것이다.

석불사의 구조는 파르테논 신전에 비해 곡선적이어서 원, 방형, √2장방형('조화의 문'), √3장방형의 쾌적한 비례가 복합적으로 사용됐다. 비례란 조화의 근본이 되는 균형을 의미한다. 균형은 어떤 양(量)이 다른 양(量)에 대해 일정한 비율을 가질 때 일어난다. 우리는 그 관계에서 미(美)를 느낀다. 부분과 전체 사이, 부분과 부분 사이는 일정한 비율을 유지함으로써 서로 연대적 관계를 지닌다. 이와 같이 조화란 부분이 전체에 미치는 합법적 관계를 말하는데 그 관계에는 반드시 공통된 단위(單位)가 존재한다. 그 공통단위가 존재하므로 양은 비록 다르다 하더라도 동질성을 지니는 수의적 관계(Commensurable relationship)가 성립하게 된다. 비례에 있어 이러한 조화의 개념은 고대로부터 신성시돼 종교적 관념을 띠게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불교사상의 핵심인 연기설(緣起說)을 비유 · 설명한 것으로 인드라망이라는 환상적인 광경이 있다. 인드라신이 있는 천계에 기발한 장인이 있어 멋진 망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인드라망이다. 사방팔방으로 무한히 뻗은 이 망은 매듭마다 구슬이 달려있어 서로를 비추며 무한히 반영하고 있다. 이는 삼라만상 사이에 무한히 반복되는 상호관계를 상징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화엄에서는 법장(法藏)의 해석을 인용한다. 그는 화엄이 말하는 '전체'와 '부분'과의 관계를 건물에 비유해 설명했다.

유기적 전체로서의 하나의 건물은 서까래나 기둥 같은 부분들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서까래가 곧 건물이라는 화엄적 논리가 성립한다. 즉, 우리가 부분으로 확인한 것은 전체로부터의 추출이라 말할 수 있다. 그렇다고 부분과 부분, 서까래와 기둥이 같다고도 할 수 없다. 그들은 서로 형태나 기능이 달라서 그들이 제 각각 다른 기능을 훌륭히 발휘할 때 전체로서의 건물이 완성되므로,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다는 화엄적 논리가 다시 성립한다. 그 관계는 비례의 원리인 양은 비록 다르더라도 동질성을 지닌다는 수의적 관계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교의 세계관은 현대 물리학자들이 제시하는 세계관과도 일치한다. 또한 예술에 있어 비례가 지니는 상징적 의미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 화엄의 인드라 망과 현대 물리학자 카프라가 말한 관계의 망, 예술에 있어서 비례의 망은 모두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한 보편적 진리를 석가여래는 정각을 이룬 후 처음으로 설법했다. 이것을 한 마디로 표현한 것이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이라는 화엄사상의 다라니(陀羅尼: 總持)이다.

우리가 석굴암에서 느끼는 장엄하고 숭고한 미는 건축에 내재된 조화율(調和律)에 있다. 종교의 궁극적 이상을 조형언어로 실현한 석굴암의 빈틈없는 건축과 조각과의 조화로운 관계, 그 속에 표현된 심오한 신앙은 빼어난 주변경관과 어우러져 더욱 숭고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떠오르는 태양이 악마의 암흑을 물리치듯, 석가모니의 깨달은 진리는 무명(無明)을 깨뜨리기에, 자연의 태양과 진리의 태양이 마주치는 순간은 가장 장엄한 광경이 된다. 토함산 석굴암 앞에서 맞는 일출이 다른 어느 곳에서 보다 감동인 것은 그러한 인류역사의 대전환을 예고한 위대한 종교적 상징이 응집된 장소이기 때문이다. 당시에 사람들의 눈에 잘 띠지 않는 곳에 석굴암을 지은 까닭은 아직 밝혀진바 없지만, 국가적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만 의식을 올렸던 성소(聖所)였던 비밀스런 장소로 짐작된다.

석굴암은 조형언어로 설법한다

석굴암에는 불신(佛身)이 하나 있을 뿐이요, 이에 따른 불국토도 하나 뿐이다. 그러나 불국사에는 분화된 여러 불신이 있어 이에 따른 여러 불국토가 있다. 여러 분신과 여러 불국토가 있어도 그것은 모두 '절대의 하나'에서 분화된 것이다. 그러므로 석굴암과 불국사의 예술은 하나가 곧 모두[一卽多]이며, 모두가 곧 하나[多卽一]라는 화엄의 장엄한 사상을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두 사원은 별개의 것이 아니요, 뗄 수 없는 유기적 관계를 지니며 계획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불국사와 석굴암에서 신라인들이 얼마나 불교의 근본을 정확하게 인식했는지 알 수 있고, 그런 까닭에 그토록 아름답고 거룩하고 독창적인 예술품을 만들어 냈음을 알게 됐다.

석굴암은 근본적인 사바정토 부처님을 가장 훌륭히 조각한 것이어서 절 이름을 원래 석불사(石佛寺)라 했다. 그 석가모니가 이룩한 가장 훌륭한 사바정토를 건축적으로 절묘하게 나타내 보인 것이어서 불국사(佛國寺)라 불렀다.

불국사와 석굴암은 다만 아름답게 만들어져서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 아름다움 속에 불교의 근본사상이 알뜰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아름다운 예술과 위대한 사상이 함께 어우러져서 거룩한 예술을 탄생시켰기에 세계에 자랑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지 눈에 보이는 예술품만을 자랑해서는 안된다. 그것을 만든 위대한 사람들, 그것을 낳게 한 위대한 시대를 자랑해야 한다.

위대한 예술은 위대한 정신(진리)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언어로는 진리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 석가모니도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여러 방편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지만 말로는 그 참뜻을 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오직 마음에서 마음으로만 전해질 수 있었다. 석가모니가 연꽃을 들자 가섭만이 미소를 지었다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拈華微笑]이다. 또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에게 궁극의 진리를 묻자 침묵으로 응답했다는 것도 같은 내용이다. 이처럼 문자언어로는 표현에 한계가 있다.

진리는 문자언어로만 표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진리는 음악이나 춤, 그림이나 조각, 건축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미술가는 선(線) · 면(面) · 색(色) · 괴체(塊體) 등 조형언어(造形言語)로 아름다움을 창조하려고 한다. 아름다움을 통해 진리를 나타내려 한다. 문자언어로 완전히 나타낼 수 없기에 예술이 탄생한 것이다. 예술가는 다만 아름다움만을 표현하려 한 것이 아니고 아직 한 번도 완전히 표현된 적이 없는 진리를 나타내려고 피나는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한 진리를 완벽에 가까울 만큼 표현 할수록 예술은 위대해진다.

우리가 예술작품을 볼 때는 아름다움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진리를 알아내야 한다. 위대한 정신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을 때만 예술품은 아름다운 것이 되고 동시에 거룩한 것이 된다. 그 때 비로소 독창적인 예술이 탄생된다.

독창적이라 함은 역사적으로 어떤 예술가에 의해서도 어느 민족에 의해서도 시도된 적 없는 새로운 방법으로 진리를 표현하려 했음을 의미한다. 전혀 새로운 형태 · 구성 · 양감(量感) · 색 · 공간 등으로 진리를 완벽하게 표현해야 한다.

신라인들은 불국사와 석굴암에서 진리를 새롭고 독창적 방법으로 표현하려 했고 가장 완벽에 가깝도록 표현하는데 성공했다.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그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다.

매일 매일 늘 좀 더 나은 상태의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여 인생관과 세계관을 확립해 가면서 현실세계를 개선하라는 부처님의 평범한 가르침을 불국사와 석굴암은 은밀히 설법하고 있다.

요네다 미요지의 당척과 〈대당서역기〉의 불상 치수 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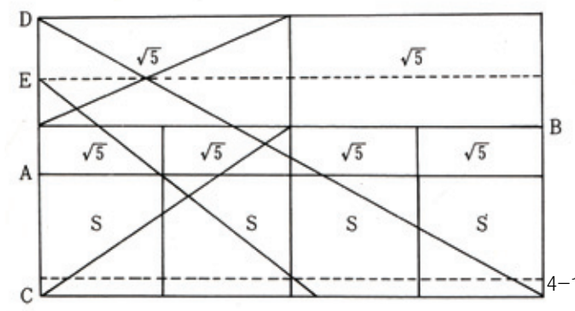
석굴암과 파르테논 신전에서 황금장방형 비례 찾을 수 있어

석굴암은 신전보다 곡선적… 원 장방형 등의 비례 복합 사용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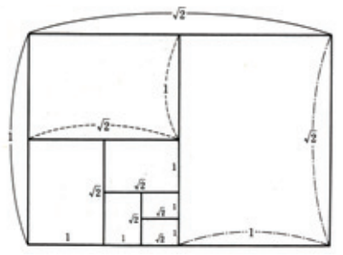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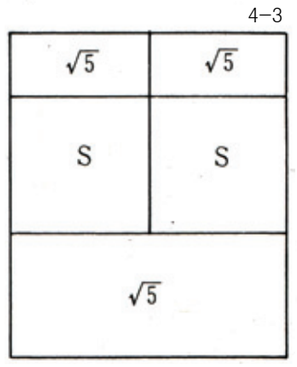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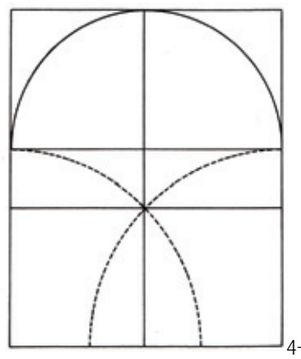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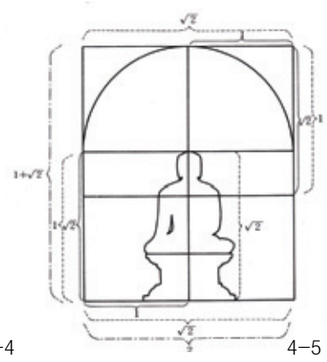
4-1


4-2

4-3




4-4


4-5

①문수보살-지혜의 화신으로 일컬어진다. 불교의 보살들이 인도신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이 문수보살은 순수하게 대승불교의 이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존재이다. 사진 출처= 황수영 著 〈석굴암〉 ②석굴암 내 조각된 팔부중(남벽, 좌부터 제 5 · 6 · 7 · 8상) ③항마촉지인을 결하고 있는 본존불 수인, 사진 출처= 황수영 著 〈석굴암〉 4-1. 파르테논 신전의 입면(立面) 1. 4-2. 루트2구형(矩形)의 분할 4-3. 파르테논 신전의 입면(立面) 2. 4-4. 주실입면(主室立面)의 기하학적 作圖. 4-5. 주실입면(主室立面)에 있어서 1대루트2비율의 응용

억울함을 당했다고 해서 굳이 밝히려 하지 말라. 억울함을 밝히고 나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닦는 문을 삼아라.
- 보왕삼매론 -

사 찰 등 록 안 내

귀의 삼보하옵시고!

불철주야 불국토의 건설을 위하여 기도정진 하시는
전국의 스님 및 법사님들 중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포교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면서 아직 사찰 등록을
미루고 계시는 분은 본 재단에서 사찰등록을 안내해 드립니다.



■ 사. 암등록 시
사암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 법사증을 교부함.

■ 신청자격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는 스님 및 법사, 또는 단체.

■ 참고사항
현재 각 종단에 사단법인이 아니면서도 사단법인 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사찰 등록증을 발행하는 단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법인 여부를 확인 알 수 있는 방법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인터넷등기소로 들어가 상호검색을 하시면
바로 법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잘 살펴보시고 신중히 선택해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재단에 사찰등록을 하시면 은행에서 사찰명의로 된 법인기부금통장과 은행에서 법인카드를 발급해 드리며,
사찰을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 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타 은행에서 신도님들이 사찰법인 통장에 입금 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평화재단
(우)110-816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75-1번지 부원빌딩 310호 전화 : 02)3217-3217입니다. / 이메일 : wbstf@yahoo.co.kr

---

열기 차단 아이스 쿨 스카프
더위탈출! **cool-scarf**

"물에 3~10분 담가 목, 머리, 팔목을 하루 종일 시원하게"
여름철 **사찰법회, 수련회, 여름불교학교 등 야외 활동**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아이스스카프란?
스카프 내부에 아이스 냉매재가 들어있어 물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띠모양을 한 스카프는 목외에도 헤어밴드나 아대처럼 다른 부위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 이용방법
1. 쿨스카프를 물에 넣어 알맹이가 들어있는 부분을 물에 담급니다.
2. 3~10분 담가놓으면 아이스폴리머가 적당히 팽창하면 골고루 펴줍니다.
3. 둥글게 팽창한 후에 물기를 살짝 닦아 목, 이마, 손목에 묶어 사용합니다.
• 냉장실에 넣어 두었다 사용하시면 더욱 오래갑니다.
• 지나치게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마시고, 세탁은 손세탁하십시오.

◇소 재 : 기능성 폴리에스터, 면
◇내용물 : 고분자 아이스 폴리머
◇사이즈 : 길이 108cm, 폭 5.5cm, 냉각부분 43cm
◇무 게 : 16~20g, 사용시 중량 200g



30개 이상 주문가능 (택배비 없음)
일반형 **4,000**원 (시중가 5,000원)
고급형 **5,000**원 (시중가 6,000원)
※주문하실 때 상품번호(예, 고급형 Ⓐ형)를 알려주십시오.

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新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스님 및 여러불자님들이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신제품 를 개발하였습니다.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구성되어 있어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도록 만든 신개념 제품입니다. 특히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 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디지인 특허 : 제 30-2011-0010353 / 제 30-2011-0010355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

제품문의 :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그녀가 시어머니따라 절벽으로 뛰어든 이유는?



스님의 흰죽가게
스제천 지음
이경민 옮김
모벤스 펴냄
1만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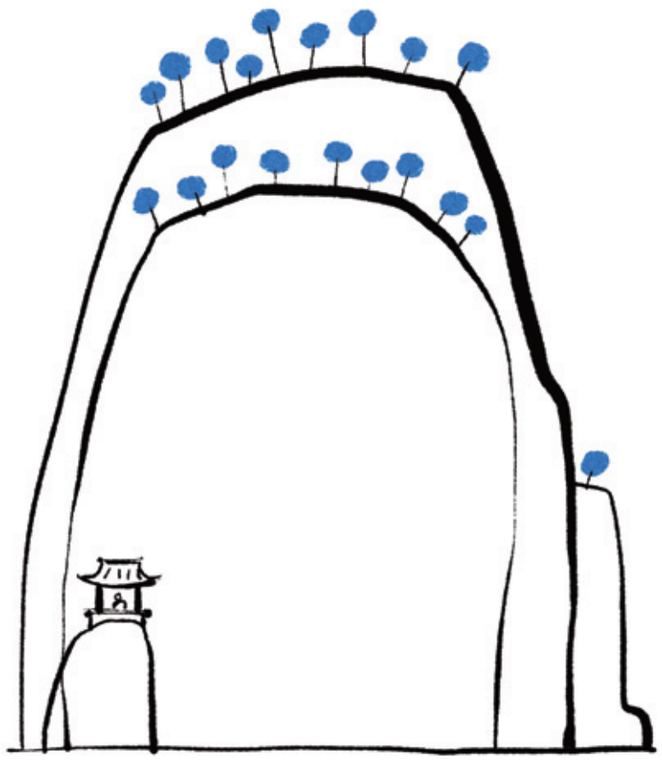
옛날 한 마을에 행실이 좋지 않은 며느리와 정직하고 바른 시어머니가 있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행실을 바로잡아 줘야겠다고 생각해 일일이 간섭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참을 수 없었던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죽이기로 결심했다. 당시에는 "천당에 가고 싶으면 절벽에서 뛰어내리거나 불구덩이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악한 종교가 있었다. 며느리는 남편이 없는 틈을 타 시어머니를 절벽으로 끌고 가 밀어버렸다. 그러나 절벽에서 떨어진 시어머니는 절벽 아래쪽 나무위에 떨어져 다행히 죽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간신히 나무를 붙잡고 절벽을 기어올라가다 강도들이 훔친 장물을 구덩이에 숨기는 장면을 목격했다. 강도들이 떠난 후 시어머니는 구덩이를 파고 가장 값이 나가 보이는 물건 몇 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며느리는 깜짝 놀라서 어쩔 줄 모르면서도 보물의 출처가 궁금해 시어머니에게 물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천당에 다녀왔잖니 거기는 정말 좋더구나.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나더러 너무 오래 있지 말라면서 자기네들 용돈이라며 이걸 주더라"고 말했다. 이 말을 곧이 곧대로 들은 며느리는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천당에 간다는 그 교리가 진짜인가 보구나!'라며 며칠 뒤 용감하게 절벽에서 펄쩍 뛰어내렸다. - 〈잡보장경〉중에서.

내가 지핀 불 씨 하나가 마구잡이로 타올라 다른 사람을 불태우고 동시에 나 자신도 태울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내 행동의 결과에 따른 상벌이 너무 늦다고 여겨 우리는 인과응보의 힘을 우습게 여기곤 한다.

중국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 스체전(釋戒嗔) 스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에서 우리는 인과응보의 중요함을 배울 수 있다.

전 세계에 6억의 독자팬을 가진 스제천 스님은 〈스님의 흰죽가게〉에서 49가지의 경전이야기를 통해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버리지 못하고 불안과 분노로 현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해준다.

스님은 〈육도집경〉 〈백야경〉 〈잡비유견〉 등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경전을 인용해 집착과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는 이야기 속 주인공들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고 유쾌하게 그려내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 세상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스님이 들려주는 49가지 이야기 속 주인공이 곧 내가 될 수 있다.

스님은 〈육도집경〉의 '삼촌과 조카의 엇갈린 욕심', 〈대장엄론경〉의 '황금을 찾은 농부' 이야기를 통해 나만 잘 살겠다는 욕심이 다 같이 사는 사회에서 얼마나 치졸한 생각인지 깨닫게 해준다. 또한 '소중한 나귀 가죽' '가장 합리적인 유산 분배' '과일을 따는 법'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얼마나 놓치며 살고 있는지 돌아 볼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스님은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자신 손에 든 보석을 알지 못하고, 최고의 것만을 찾아 헤매느라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발자국만 물러서서 자신을 바라 볼 수 있다면 삶이 훨씬 편안하고 행복해진다고 가르쳐 준다.

스제천 스님은 아무 맛도 없는 '흰죽'을 인생을 살아가는 담백한 지혜로 비유하며 어리석은 모습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혼의 따뜻한 흰죽 한 그릇처럼 담백하고 담담한 깨달음을 준다.

1985년 중국에서 출생한 스제천 스님은 어린 나이 어머니 손에 이끌려 절에 맡겨져 스님이 됐다.

스님은 중국 마오산에 있는 작은 절 천명사(天明寺)에 머물며 불교 경전 이야기, 자신이 일상에서 얻은 깨달음 등을 2007년 4월부터 텐야서취라는 사이트에 올리기 시작했다. 그 해 7월 텅쉰넷에 '스제천의 흰죽가게'라는 블로그가 개설됐고 6개월 만에 방문자 수 1300만 회를 기록했다. '흰죽가게'는 지금까지 방문객 3300만을 넘는 최고의 블로그이다.

이후 스제천 스님은 〈스제천의 흰죽가게〉를 3권 까지 내면서 미국 영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등 전 세계 6억 이상의 독자를 갖고 있다.

이나은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10~8/16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기도	법륜	정토
2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음식	선재	불광출판사
3	우리 곁에 계신 33관세음보살 이야기	방경일	운주사
4	힘내라 청춘	법륜	정토
5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경전 구절	이진영	불광출판사
6	현재 이 순간에 머물기	인경	명상상담연구원
7	명쾌한 깨달음	백창우	운주사
8	무비 스님 직지 강설(상)	무비	불광출판사
9	하루 한 가지 마음공부법	우학	조화로운삶
10	콘사이스판 불교사전	김승동	민족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백락사는 頭頭物物이 모두 예술

9월 7일까지 '환경설치미술 초대작가전'

자연 경관과 작품이 한데 어우러져 예술이 되는 환경설치미술전이 고즈넉한 산사에서 열린다.

홍천 백락사(주지 성민)는 8월 27일~9월 7일 백락사 경내 · 외에서 '2011 백락사환경설치미술 초대작가전'을 개최한다.

강원홍천환경설치미술조직위원회의 기획전시인 이번 행사는 올해 여섯 번째 맞이하는 지역축제이다.

성민 스님은 2006년 '백락사환경설치미술전-일락전'을 시작으로 백락사 경내 · 외를 중심으로 매년 환경설치미술전을 주최, 기획해 전시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자연 경관과 하나가 되는 작품을 이용해 환경설치미술의 새로운 장(場)으로 다가간다는 의미에서 초대작가 23명과 함께 자리를 공유한다.

작품은 페인트와 같은 자연을 해치는 재료나 매체는 사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가의 의도에 따라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작품을 야외에 설치해 설치 미술의 개념적 승화나 대중적 인식확산을 기대할 수 있게 연출할 계획이다.

한편 8월 27일 오후 5시 30분 백락사에서 열리는 개막식에 이어



조은아의 '길없는 길' (2010 환경설치미술전 초대작)

기념음악회와 천등제 철야 기도가 진행된다.

성민 스님은 "자연경관을 예술적 차원으로 해석 또는 지평을 확대한다는 것에 개념적 중심을 두고 휴식, 여가, 자연의 숨결이 깃들어 있는 전시 공간을 구현하고자 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33) 432-6884

이나은 기자

이은정 기자의 뻔뻔(Fun Fun)한 레시피⑩

감자전

올해는 유달리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이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래왔지만 특히 올해는 잦은 국지성호우로 전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다. 개인적으로 비가 내리는 것을 그다지 싫어하진 않지만, 올해는 '참 해도 너무 한다' 싶을 정도로 비가 많이는 내린다.

특히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무더위 속에서도, 언제 내릴지 모르는 비 때문에 가방 안에 항시 우산을 채비해야 하니 나로서는 그게 더 불만이다. 무거운 가방을 들 때 마다 내 마음도 무거워 지는 것 같다.

특히 큰맘 먹고 떠난 휴가지에서 비라도 오면 정말 낭패다. 스트레스 한 번 날려보려다, 오히려 내리는 비에 뺨맞는 격이다. 아마 올해는 비 때문에 이래저래 눈물 흘린 사람이 많을 거다.

그래도 신이 아닌 이상 인간이 무슨 힘이 있어 내리는 비를 막을 수 있겠는가. 오락가락하는 빗줄기를 인간의 재주로는 어찌해 볼 요량이 없으니 최대한 이 순간을 즐기는 게 능사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하지 않겠는가. 차라리 집에서 가만히 앉아 전이나 부쳐 먹는 것도 즐겁게 비 피하는 방법 중 하나지 않을까.

통속적이긴 해도 비오는 날엔 전이 최고지 않을까 싶다. 때마침 감자도 제철이니 건강도 챙길 겸 감자전을 부쳐 먹으면 어떨까. 보너스로 감자전은 다른 전과 달리 직접 감자를 갈아야 하니, 시간이 많은 분들에게 적극 추천한다. 약속도 없고 비오는 날 집에서 방바닥만 긁고 있는 분들이라면 감자전을 만들어 가족들에게 보시행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



알고가기 감자는 다양한 요리와 함께 곁들어 먹을 수 있다. 특히 치즈와 함께 먹게 되면 치즈에 함유돼 있는 비타민 A, B1, B2, 나이아신 등과 칼슘, 인등이 감자와 어울려 영양의 상승효과가 높아진다. 감자는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로도 제격이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먹을 수 있다. 또한 고혈압 환자에게는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준다. 감자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보관하며, 사과와 함께 두면 싹이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재료는 이렇게 준비 하세요

감자 1000g, 호박, 풋고추, 전분, 소금, 식용유 (기호에 따라 부추, 실파 등을 넣어도 좋다)

음식 만들기

① 감자는 씻어 껍질을 벗기고 강판에 갈아 가라앉힌 후 윗물이 생기면 모두 따라낸다.
② 호박, 부추, 실파, 고추 등을 채 썬다.
③ ①에 전분과 ②을 넣고 소금으로 간한다.
④ 달궈진 팬에 식용유를 적당히 두르고 한 국자씩 떠서 도톰하게 놓은 다음 노릇노릇해 질때 까지 지져낸다.

배부른 돼지나라, 천(賤)한 나라, 넋빠진 나라, 불쌍하고 불행한 대한민국! 무료로 보내드리는 이 책을 읽을 단 하루의 시간이라도 있었으면....

세계일등 도덕 강국과 세계일등 경제 강국을 실현하는 국민상 정립(國民像 定立)

중심이 없는 국민사회가 학교교육에서 비롯되었음을 아는 이는 몇이나 될까?

우리의 국민두뇌가 〈최고〉의 자리로 인정 (책자 1장 65면) 받고 있는 현실과 **우리의 인정적 특장(人情的 特長)이 〈최고도〉의 업무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과학적 정밀실험의 결과와 증거행동들이 구체적으로 검증(책자1장 57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부(天賦)의 자질은 〈일등나라의 창조〉를 가능케 할 유력한 척도가 되며 '일등나라의 모습이 곧 우리다움'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인식을 촉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보는 '최고'가 '최고'가 아닌 현실을 보게 됩니다.

가령, 일인당 국민소득(GNP)이 OECD국가(33개국)의 평균치(3만달러)에도 못미쳐 십수년째 2만달러의 경계를 오락가락하며 타고난 '최고'의 잠재력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한지는 이미 20년에 가까운데(한계에 봉착) 아직도 그 문턱 밑을 맴돌며 그 기나긴 세월간에 몇푼이나 건진다고 무슨 큰 대회나 있으면 눈이 벌게 유치하느라고 장 세월에 국력을 쏟아붓는 등 각종 합리화된 모리정치놀이에 국민의 넋을 팔아 왔으며 실속없는 국민들은 배부른 돼지들이 되어 태평성대를 노래하고 있으니 이것도 '최고'의 모습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고'를 방해하는 우리의 국민풍토는 어떻게 생겼을까?

'바로 살면 손해'라는 역리(逆理)에 익숙해진 국민들, 드러나지 않는 비리(非理)가 지배하는 사회, 부패한 국민상(OECD 국가 중 반부패지수 최하위)이 이나라의 일등 국격을, 일등 희망을, 일등의 최선을 결코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에게 주어진 천부의 잠재력, 최고의 두뇌력과 최고의 인정력(人情力)을 최대(완벽) 적용하는 학교교육(공교육)실천에 의해 〈자율도덕력을 완성〉하여 〈창의 학습력의 최상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책자에서 자세히 밝힘- 특히 27면 ~ 36면의 교실교육 실화에서 방도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음) **이와함께 최고의 교육을 위한 병행 조건으로서 국민상(國民像)을 교육하는 문제는 시급합니다.**

국민의 정통가치관(국민상-한국사의 대동맥을 상징하고 국가의 척추가 될 기본가치관), 즉, 국민의 중심상(기준척도)을 정립함으로서 이나라의 오염된 온갖 선한 가치관들이 오용의 탈을 벗고 진정한 모습을 찾게 될 것이며 좌파, 우파 등 분단과 대립상을 창도해온 정치 주도의 가치관 유린시대를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책자에서 자세히 논함)

이제 세계경제, 과학문명을 제패하는 창의력과 일등 복지사회의 모범을 함께 일으키게 할 우리의 **위대한 국민상(國民像)** 이 바로 우리 학생들 가슴속에 잠자고 있음을 깨우쳐야 할 필연의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고 믿어 소승은 신분의 틀을 넘어 **자율도덕력의 완성과 창의 학습력의 완성을 통한 국민상 정립을 완성하는 공사(公事)**에 투신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는 사람의 문제이며 사람에겐 교육의 문제가 우선합니다.
사회는 교육의 소산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교육이 크게 아프지 않으면
국민이 장차 크게 아플것 입니다.
일등민주를 요구하는
일등 국민두뇌의 불만은 깊어지고
중심(中心)없는
비도(非道)의 국심(國心)은
배신의 그늘에 안주하여 마침내 우리는
혼돈의 나락에서 대망(大望)의 확신을 잃은 국운을
분노와 후회의 시선으로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창의(創意)가 세계의 국민 정신문화와 세계의 경제, 과학문명을 선도(先導) 할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다가 절망에 빠진 우국(憂國)의 교육지사(教育志士-교육에 뜻을 둔 각계의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 있다면 삼가 소승의 학교교육 현장 경험에서 얻은

치열한 번뇌로 쓴 책자 '無門에 피는 꽃'(학교교육 혁명서)은 **세계 일등국을 실현하는 국민교육의 정도(正道)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드릴 것입니다.**

강대국의 위협속에 국가의 미래를 우려하는, 학교교육에 뜻을 둔, **원하시는 국민 부처님들께 무상(무료 = 택배비 포함)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大韓沙門 慧岩 合掌

기도처 :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295-13(호병골길 2번지) 정혜사
전 화 : 031)536-1010, 휴대폰 : 010-4327-2134



- 제목 : 無門에 피는꽃
- 저자 : 慧岩 (俗名 : 吉炳德)
- 규격 : 26㎝×19㎝, 총 270면, 비매품
- 정규고등학교 교육을 기준으로 교실에서 시작되는 교육 혁명서 입니다.

- 최고의 교육은 최고의 시설에 있지 않으며 그 생명력은 최고의 교육내용에 있습니다. 국민상 교육(國民像教育)의 토대위에 자율도덕력의 완성과 창의 학습력의 최상화를 실천하는 세계최고의 고등학교를 설립하실 教育志士(설립이사장, 설립이사, 설립추진위원, 설립후원사, 설립후원회원) 를 구하는 광고입니다.

소승의 역활은 설립이후 〈3년이내에 최고의 교육성과를 거두는 책임〉이 전부입니다. (책자 내용 참조)

극락가고 싶은 마음…법당 가득 극락을 그리다

무위사

자연 그대로의 가치, 절대고요의 공간

"하는 것이 없는 절이라. 이름이 좀 독특하다."

무위사 경내로 들어가는 문은 막돌로 만든 계단 위에 있다. 입을 벌린 쩍 벌린 용이 '월출산무위사'라는 현판의 좌우 기둥에서 부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여의주를 물지 않은 입으로 "안녕 하슈?" 하고 인사라도 건네는 듯.

문 안에는 사천왕이 모셔져 있는데 울퉁불퉁한 생김새는 여느 절과 다름이 없었다. 각 천왕들의 발아래에 사람과 귀신같은 것들이 밟혀 있었다. 서방광목천왕 발아래 있는 놈은 반성하는 기색도 없이 왕방울 눈을 위로 뜨고 씨익 웃는 모습이다. 나팔수씨의 눈에는 왠지 귀엽게 보였다.

사천왕의 발아래에 사람이나 귀신을 조각해 둔 것을 생령좌(生靈座)라고 한다. 죄를 지어 도량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生靈]들을 힘으로 항복시키는 것이다. 대부분 익살스런 표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 누구나 본심은 착하니까 반성하면 용서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무위사 극락보전은 첫 눈에 국보다운 포스가 느껴졌다. 훤하게 트인 절 마당 정 중앙에 막돌로 쌓은 석축 위에 묵직한 중량감으로 앉아 있는 극락보전. 정면에는 4개의 배흘림기둥이 서 있고 빗살무늬의 문살은 수더분했다. 건물이 전체적으로 직선과 단출함의 멋을 추구하므로 문살도 화려함을 피한 것이다.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기둥 위에만 공포를 얹은 전형적인 주심포 양식이며 경사가 미끈한 맞배지붕은 비에 젖어 방금 세수를 한 것 같았다.

왼쪽 계단 옆에 안내판이 서 있었다.

무위사 극락보전 (국보 제13호)

극락보전은 불교의 이상향인 서방극락정토를 묘사한 건물이다. 이 건물은 조선 세종 12년(1430)에 지어진 우리나라 대표적 목조건축 중 하나다. 건물 자체가 국보이지만 내부에는 조선 성종 7년(1476)에 그림을 끝맺었다는 화기가 적혀 있는 아미타후불벽화(보물 제1313호)와 백의관음도(보물 제1314호)가 그대로 보존돼 있다. 이 그림은 토벽에 그려진 가장 오래된 후불벽화로 화려하고 섬세했던 고려불화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명작이다. 무위사에 현존하는 대부분의 건물은 1555년에 건립된 것이나, 극락보전만은 비교적 이른 시기인 세종 12년(1430)에 건립했다.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3칸이다. 지붕은 옆에서 볼 때 사람 인(人)자 모양인 맞배지붕이다. 직선재료를 사용해 간결하면서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 조선초기의 건물로 뛰어나다.

극락보전의 왼쪽 출입문 바로 앞에 종이 놓여 있었다. 종 아래는 마루를 깔지 않아 전돌을 깐 바닥이 보였다. 극락보전 바닥은 원래 전돌이었다. 근래 보수를 하면서 전돌을 걷어냈더니 벽화에 습기가 차서 다시 전돌을 깔고 그 위에 마루를 깔았다. 마룻바닥을 뚫어 놓음으로 아침저녁 예불과 각종 의식 때마다 치는 종소리는 땅 속 깊은 세계까지 울려 퍼질 것이다. 종은 지옥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치는 것이니까.

극락보전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콱 막혀 왔다. 중앙 불단에 모셔진 부처님보다 먼저 눈에 들어 온 것은 반대편 벽의 윗부분에 그려진 그림이었다. 기둥과 기둥사이를 검은 테두리로 하여 화면을 구성하고 그 안에 아미타불과 좌우 협시 보살이 앉아 있는 그림. 자세히 보이지는 않아도 빛바랜 사진이 주는 아


무위사 극락보전은 건물 자체가 국보일 정도로 우리나라의 대표적 목조 건축물이다.

걸출한 불화들로 장엄된 극락보전
후불 벽화 가리는 현대 불상과 대조

슴아슴한 추억 같은 떨림이 가슴을 채웠다.

중앙 수미단 위에는 아미타 부처님, 오른쪽은 관세음보살 왼쪽은 지장보살이 모셔졌다. 이 목조삼존불은 극락보전과 같은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후불벽화의 좌대에 맞춰진 크기가 예배하는 사람에 대한 섬세한 배려로 느껴진다. 무작정 큰 부처님을 모셔서 후불벽화는 아예 보이지도 않는 요즘 법당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아무래도 부부의 눈길은 후불벽화로 더 쏠렸다. 삼배를 하고 나서 합장 한 채 벽화를 찬찬히 보았다. 벽화를 그리기 위해 수미단 뒤로 굵은 기둥 두 개를 세웠고 닫집은 만들지 않았다. 목조 아미타삼존불의 크기나 닫집의 생략은 이 벽화를 통해 극락 세상의 고귀함을 알리고자 하는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전쟁과 가뭄 등으로 많은 인명이 죽음을 당해야 했던 조선시대 무위사는 극락왕생 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외로운 영혼들을 위한 수륙대재를 많이 지냈던 사찰이다. 때문에 이 벽화의 가치는 예술성보다는 신앙적 측면에서 더 강조됐을 것이다.

"500년 넘은 벽화가 이렇게 섬세한 선과 아름다운 색상을 간직하고 있다니 정말 놀라운 작품이다."


무위사 극락보전 불단과 불화

"아마 벽화를 조성하는 전통 기법에 따라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그렸을 거야."

우리나라 사찰 벽화는 대부분 흙벽에 그려졌다. 벽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벽체를 만든다. 벽체는 나무를 엮어 세운 벽심(壁心)에 짚과 진흙을 섞은 반죽을 두 세 겹 바르고 편편하게 한 뒤 회토를 칠해 완성한다. 다음 가칠(假漆)의 단계는 화면의 기초를 이루는 작업으로 가칠장이 따로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화면이 완성되면 타초(打草)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미리 먹선으로 디자인 한 그림의 선을 따라 작은 구멍을 뚫어 만든 화본지를 벽면에 대고 호분을 넣은 주머니로 두드린다. 그러면 하얀 가루가 구멍을 따라 벽면에 선을 나타내며 그림의 윤곽을 드러낸다. 그 다음 단계는 점선의 윤곽을 따라 붓으로 먹선을 그리고 채색해 벽화를 완성한다.

"정말 대단해. 천정 좀 봐. 지금 빛바랜 이 모습도 아름답지만 처음 이 그림들이 완성 됐을 때는 어땠을까? 보는 사람들이 저절로 환희심에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 지금 빈 공간의 그림들을 그대로 떼어서 성보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대. 보존이 잘 되어 모든 그림이 처음처럼 이 법당에 모여 있다면 세계적 법당이 되고도 남을 텐데."

부부는 법당 뒤로 돌아가 후불벽의 뒷면에 그려진 수월관음벽화를 친견했다. 앞쪽의 아미타극락회도의 화기(畵記)에는 1476년 아산 현감을 지냈던 강노

닫집 생략으로 극락세상 고귀함 강조
백의관음 옷깃 날리며 중생 고통 치유

지(姜老至)와 수십 명의 시주로 해련(海蓮) 대선사 등이 그렸다는 기록이 있다. 수월관음벽화 역시 그때 그려진 벽화다.

수월관음도의 관세음 보살님은 하얀 옷을 입고 있다. 그래서 백의관음(白衣觀音)이라고도 한다. 바람에 살포시 날리는 옷깃이 섬세하게 묘사됐고 오른손에는 버들가지를 왼손에는 정병을 들고 있다. 버들가지는 중생의 병을 치유하고 고통을 없애준다. 정병의 물은 중생들이 갖는 욕망의 갈증을 없애준다.

세월을 뛰어넘은 찬란한 색채의 향기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니 유리로 된 진열대 속 벽화들이 시간을 멈춰 놓고 부부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다. 한참 그림들을 들여다보던 나팔수씨가 말했다.

"고구려 스님 담징이 그렸다는 일본 나라현의 호오류지(法隆寺) 금당벽화 이야기가 교과서에 실렸었지? 이 대목에서 그 소설이 생각나네."

"그래 정한숙의 소설 '금당벽화'. 요즘도 교과서에 실리는지 모르겠지만."

부부는 관음보살을 친견하는 마음으로 성보박물관에 전시된 삼존불화 아미타내영도 오불도 2점, 관음보살도를 비롯한 보살도 5점, 주악비천도 6점, 연화당초향로도 7점, 보상모란문도 5점, 당초문도 1점, 입불도 1점 등을 감상했다.

"자, 이 벽찬 감동이 식기 전에 천불전에 가서 108배나 할까요?"

"아침 운동은 혼자 하세요. 나는 이 벽찬 감동으로 3배만 할 테니."

부부는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아줌마 파마를 한 미륵보살이 계시는 미륵전과 샛별처럼 빛나는 눈이 오금을 저리게 하는 호랑이가 그려진 월출산산신각 문 앞에서 꾸벅꾸벅 절을 하고 나한전을 지나 개울을 건너 천불전으로 갔다.

대흥사 천불전처럼 법당의 3분의 2정도를 차지하는 불단에 금빛 부처님 천분이 앉아 불두화 향기에 코가 간지럽다는 듯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무위사의 아침풍경이 극락의 한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개울건너 무위사 경내가 극락이면 천분의 부처님이 계시는 여기도 극락일 것이다. 문득 의심 한 덩어리가 해처럼 떠올랐다.

"그렇다면, 하얀 티셔츠를 입고 108배를 하고 있는 이 여자는 누구지?"



글=임연태(시인 본지논설위원) 사진=이승현(시인 사진작가)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스님, 불자 연금보험
변액, VUL, 종신 보험

1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평생동안 세금없이 매월 ⑤백만원이상 받는 연금이 있다면!
2 건강이상시(사고, 재해시) 무상치료 받고 보상 받는다면!
3 여유자금 00원이 있다면 = 「안정성 + 수익성 + 유동성」 = 인플레이션 방지
4 비과세 초스피드 00원 목돈마련 계획 전문가
(1) 공인 재무상담 전문가
(2) 공인 Risk컨설팅 전문가
(3) 토지 분석 전문가 (건국대학원 수료)
(4) 공인 변액 자산관리 컨설팅 전문가

무료상담 환영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 준비』강의 요청시
언제라도 스님과 불자님은
무료로 강의해 드립니다.

불교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小佛子 慧峰 합장

☎상담전화
011-335-6389 / 02-471-2356

20년 오랜솜씨 탱화불상예술원 결상



8각좌대 청보부처님 전문업가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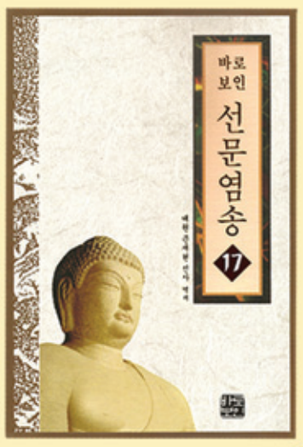


100불 · 1000불 · 10000불 · 청보소불도매

있는곳 : 경북 경주시 성건동 한빛길 28번 14호
손알리미 : 010-5595-8533
알하는곳 : 054) 773-8533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선문염송 17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 중 17권 출간!
선(禪)을 상징하는 '덕산 방'의 주인공, 덕산선사의 공안과 동산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실증(實證)의 법문 실증설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방거사 어록



031-534-3373 www.zenparadise.com

긴급속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쑥뜸을 하려해도 화상 때문에 고민하신다구요?

이젠 화상 걱정 끝!!!

用丸은, 울트라세라믹과 쑥정제와 생약제와 고분자를 특수가공한 것으로 쑤시는 환부 및 경혈에 붙이면 원적외선 복사열과 피부 깊숙이 침투한 정제 가강한 자극을 주어 통증을 완화합니다. 전문가 도움없이 사용하고 부착 후 활동할 수 있으며 1시간 이내에 효능을 느끼고 수명이 2년이상 이기에 반복 사용 가능합니다. 콤팩트하면서 휴대하기 편리하고 어느장소에서나 사용 가능합니다.

(침+뜸) 2가지 대체효과. 환부에 1일 2~3회, 30분~1시간 사용.
효과는 만점 up↑ 가격은 0점 down↓ 통증이 있는 곳이면 ok



• 기본형 (6개입 포장) 2년간, 반복 사용가능, 가격 98,000원
• 고급형 (13개입 포장) 2년간, 반복 사용가능, 가격 195,000원

구입처 : 서울 성동구 용답동 44-1 봇다정사
02)6369-4409 / 010-3944-4409

지혜의 샘

자타카 이야기 13

-거만한 하인-

구성-김흥인









부처님 찾아 떠나는 여행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 양곤 I 바간 I 헤호	5일	1,490,000원
■ 양곤 I 바간 I 만달레이 I 헤호	6일	1,590,000원
■ 양곤 I 바간 I 만달레이 I 헤호	7일	1,690,000원
■ 양곤 I 바간 I 만달레이 I 짜익티오	7일	1,690,000원

* 불포함 : 유류세 205,400 , 가이드. 기사 팁 $50

※불교성지 단체문의는 날짜에 상관없이 출발 가능

※ 12월부터 성수기 : 요금이 인상됩니다
※ 미얀마에서 하시고자 하는 행사 지원합니다

■ 지장/관음 도량	구화산 I 황산 I 보타산	7일	1,290,000원
■ 지장도량	구화산 I 황산	5일	990,000원
■ 마음은 다시 티벳으로	티벳	8일	문의
■ 항공일정 티벳		6일	1,590,000원

* 불포함 : 유류세 가이드+기사 팁
✲ 인도성지순례 ⇒ 문의



♔ 방콕 / 파타야 5일 (특급) 다양한 특전 제공. 499,000원 부터 –
♔ 캄보디아 씨엠립 (앙코르왓) 특급 5일. 599,000원 부터 –
♔ 장사 / 장가계 / 원가계 + 천문산 5일. 699,000원 부터 –
♔ 북경 / 연길 / 백두산 5일. 990,000원 부터 –

* 전화 주시면 요금 및 일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미얀마 종교성 관련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 02)365-7747
[미얀마, 중국, 스리랑카, 인도, 티벳]

최고의 명품! 선물로도 최고

2000만 佛子님의 필수품 디지털불경 뉴룸비니



■ 규 격 8.5×5.2×2.0cm
■ 가 격 34,000 (건전지 포함)
룸비니는 관음도가 있으므로 늘 휴대하시면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2011년형 뉴룸비니 탄생기념 특별 할인 판매 대 행사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경역시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새롭게 탄생한 디지털 불경 재생기 '뉴룸비니'

국내 처음으로 휴대용 디지털 불경 룸비니를 제작하여 시판에 들어가 선풍적 인기리에 판매되어 으며 이에 보답하기 위하여 기능이 더욱 향상된 2011년 최신모델을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합니다. 뉴룸비니는 담배 곽 크기만 하고 가벼워 휴대하기가 편하며 불자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테이프나 CD가 없어도 듣고 싶은 불경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뉴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어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 불자님의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心琴을 울린 효동선각스님의 독경이 가까이 있습니다

효동선각 스님의 독경을 듣다보면 모든 근심 걱정 번뇌가 소멸되며 일념무아 됩니다. 독경은 타고난 바리톤 음성으로 각종 불교 행사에서 인정받고 있는 효동선각 스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독경을 진행 하셨습니다. 스님은 무형문화제 50호 故송암스님의 수제자로 양산 통도사로 출가하여 백양사, 법주사,용주사에서 수행하셨고 서울 효동 범음대학 4년 수료와 중앙승가 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석사과정을 이수 하셨습니다.

2011년형 뉴룸비니 탄생기념행사로 200set 한정 특별할인판매

팩키지 1 뉴룸비니, 아답터(가정에서 전기사용) 특별가 37.000원 / 팩키지 2 뉴룸비니, 아답터, CD 2개 특별가 45.000원 / 팩키지 3 뉴룸비니, 아답터,테이프 3개, CD2개 특별가 54.000원

1,000set 이상 주문시 스님의 독경 및 법문을 입력시켜 드립니다.(독경,법문 녹음CD가 필요 합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 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 발이차신분 *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 ~ 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한국구술인물사⑰ / 최 연 불교사회연구원 원장 – 대불련 운동의 새로운 지평

쟤는 부모 잘만나서 그렇구나

최동순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학창시절은 그다지 어둡게 보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실은 저에게 절망과 어두움으로 다가왔지만, 제 안에는 그것을 극복하고 개척하고 살려는 밝은 마음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불교를 접하고 종교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부친의 퇴직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왔고 형제들은 살아남기 위해 뿔뿔이 흩어졌다.

어릴 때부터 돈을 벌어야 했지만 취미인 문예반 활동과 불교학생회는 꾸준히 이어갔다. 일련의 활동을 통해 최연은 사회와 소통하려 했고, 그런 활동을 통해 사회의 다양성 속에서 모순점들을 발견하게 됐다. 당시 불교활동을 하면서 정토회를 설립한 법륜 스님과의 인연도 소개한다.

"경주에서 수련회를 방학 때마다 합니다. 그 당시 영남불교 중·고등학생회 회장을 법륜 스님이 맡았고, 도문 스님이 지도법사로 활동 중이셨습니다. 저는 당시 인제 중학교 회장이었고, 김천불교학생회 중학교 회장으로 회원들과 참석했습니다. 당시는 대단했습니다. 불교학생회는 1개였고, 기독교 학생회가 7개 이었습니다. 기독교 학생회는 연합을 하고 불교학생회랑 체육대회를 했는데 우리가 이기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인원도 많았습니다. 당시 직지사에 녹원 스님이 주지스님으로 계셨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셨고 법일 스님이 저희 지도법사를 맡으면서 아주 키워주셨죠."

최연은 김천 시내에 위치한 개운사 학생회에서 활동했다. 개운사는 직지사 말사이다. 당시 법륜 스님은 출가하지 않았던 상태였고, 개운사 학생회를 지도했다. 또한 본사인 직지사 주지 녹원 스님이 최연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런 지원을 바탕으로 영남의 불교학생회 단체들이 대규모의 수련회를 개최하게 됐다.

"문학적인 소양도 있었고, 중앙대 교수진들이 괜찮아 중앙대를 지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 분야엔 서정주 선생님, 소설엔 김동래 선생님, 평론에는 백철 선생님, 민속학 양재현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자' 라고 결심했습니다."



사진 중앙의 건물자리가 옛 불교학생회가 있던 자리

최연은 당시 예비고사에 이어 본고사를 자신 있게 봤고 중앙대 국문과에 입학했다. 서울로 진출한 최연은 중고등학교 시절은 물론 대학에서도 끊임없이 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피력한다.

"그때도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 만나 과외도 받고 잘 살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사는데 월사금이며,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자꾸 '쟤는 부모 잘 만나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다 보니 숙명론적이 돼버리는 것 같아, 그런 상황과 생각들을 극복하려 하다 보니 사회적인 활동을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작 한 것 같습니다."

그는 숙명론은 거부하고 모순된 사회에 대한 변화의 희망을 이어갔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業)이란 숙명이 아니라 그 업의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불교관을 확립했다.

제석(帝釋)과 함께 떠나는 신화(神話) 여행⑨ – 등장인물 소개 5

하루 500마리 새끼용 먹어치우는 새

지금까지 수미산의 주인은 제석과 그의 경쟁자 아수라, 귀신인 야차, 물을 다스리는 용, 뱀의 머리와 꼬리 그리고 사람의 몸을 지닌 마호라가, 향기를 먹고 사는 건달파를 소개하였다. 마지막 등장인물인 신비의 새 가루라(緊那羅)는 인도신화에 나오는 상상 속의 동물 금시조(金翅鳥)에서 한층 발전한 새 중의 왕이다.

서양 신화 속에 등장하는 새의 모습

'사람이되 사람이 아닌 존재' 팔부신장 중에서 가루라의 특징은 '짐승' 이라는 명확한 정체성이다. 용(龍) 또한 짐승에 해당하지만 용의 경우 변신이 가능하다. 하지만 가루라는 자신의 모습과 정체성을 잃지도 재미나 필요에 따라 쉽게 바꾸지도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루라가 출중한 인물의 화신(化身)이라고 여겨 왔다. 그 예로 인도의 밀교에서는 가루라를 범천(梵天)의 화신이라고 생각한다.

가루라는 몸집이 매우 커서 두 날개의 길이가 336만 리(里)이며 깃털에서는 장엄한 빛이 뿜어져 나오고 머리 위에 여의주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인도의 가루라에 필적한 만한 공상의 새가 중국에도 있으니 장자(莊子) 소요유편(逍遙遊篇)에 등장하는 대붕(大鵬)이다. 대붕은 하루에 9만 리(里)를 날아간다는 새로써 북해(北海)에 살던 곤(鯤)이라는 물고기가 새로 변한 것이라고 한다.

중국에 불교가 전해진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있으나 바로 남송(南宋)의 충신 악비(岳飛)장군이다. 중국 사람들은 악비 장군을 대붕금시조(大朋金翅鳥)의 화신(化身)이라고 생각해 왔다. 대붕은 장자에 등장하는 새이고 금시조가 바로 가루라이니 불교가 중국에 전해진 후, 자신들의 영웅을 미화하는데 재빨리 응용한 셈이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새는 신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신들의 왕이자 올림포스의 주인인 제우스는 독수리가, 그의 아내이자 가정의 여신인 헤라는 화려한 공작새가, 제우스의 딸이자 지혜의 여신인 아테나는 올빼미가 각각의 신성(神性)을 상징한다. 이처럼 새는 동양과 서양의 신화에서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중요하면서도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가루라 삽화=김영수

새 중의 왕, 가루라(迦樓羅)의 일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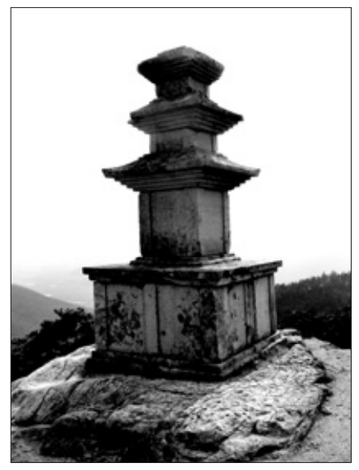
가루라를 묘사할 때 '크기' 외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이 식성이다. 왜냐하면 가루라의 주식이 같은 천룡팔부 신장 중 하나인 용(龍)이기 때문이다. 전설에 따르면 가루라는 매 끼니마다 한 마리의 용왕(龍王)과 500마리의 새끼용을 잡아먹는다고 한다. 이러한 식성은 후에 가루라의 죽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수명이 한정된 가루라는 죽을 때가 되면 허공에서 몸을 여러 차례 뒤집으며 날다가 금강륜산(金剛輪山)의 정상에서 최후를 맞이한다. 그때 저절로 몸에 불이 붙는데 그 이유가 바로 가루라가 그동안 먹어왔던 용 때문이다. 용의 몸에는 독(毒)이 있는데 이 독이 가루라의 몸에 쌓이고 쌓이다가 죽을 때 아예 가루라의 몸을 태워버리는 것이다. 살아서는 먹이였던 용이 죽어서는 육신을 태워버리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한 존재하고 할 수 있다. 육신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에는 유리처럼 투명한 파란 색 심장만이 남는다고 한다.


조민기 작가 · 칼럼니스트

문무왕의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㊴ 용장사2

미륵정토가 새롭게 구현되다


경주 남산 금오봉 정상에서 내려가는 길에 있는 3층 석탑

용장사지 장육존장 옆으로는 불상 한 구가 더 있다. 바위에 조각된 마애불상은 풍만한 얼굴로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다. 양 어깨에 걸쳐 내린 옷자락도 넉넉함을 더해준다. 오른손은 무릎 위에 올려 손끝이 땅을 향하고 있으며, 왼손은 배 부분에 놓여 있다.

항마촉지인으로 보이지만 반드시 석가모니불로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감산사처럼 장육존상이 미륵상이라면 아미타불일 가능성이 더 많다. 신라법상종의 불상조영에 있어서 미륵과 아리타불을 같이 조성하는 양식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상학적으로 봤을 때에는 석가여래일 가능성도 있다. 석가 다음 부처인 미륵을 위해 수기를 내리니 석가모니로 여길 수도 있는 문제다.

이런 복잡한 추측 때문에 장육존상 옆에 새겨진 10여 글자의 명문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현재 마모가 심해 그 글자를 알아보기 어렵다. 용장

용장사지에 남아 있는 문화재는
유가법종의 가르침이 담긴 유산
통일신라 후기 전형적 모습 담겨

사의 부처님들은 태현 스님이 꿈꾸던 정토의 모습을 1000여 년 동안 우리게 전해준 것이다.

태현 스님의 모습이 용장사지에 남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단순한 문화재가 아닌 유가법상종의 가르침이다. 당시 당나라 땅에서 활약하던 원측 대사가 위대한 유가유시계통의 조사로부터 법을 받은 도증(道證)을 이 땅에 귀국한 692년 이후로 서명학파 계열의 법상종이 들어왔다. 당나라에서 법상종은 현장 스님을 중심으로 자은학파 계열의 법상종이 유행했다. 우리나라에는 원측 스님의 맥을 이은 독자적인 법상종이 유행했다.

통일신라시대 정점에 이른 화엄종과 법상종이 모두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흐름을 이어간 점은 700년대 이후 한국불교의 특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일이다. 용장사지에 주석한 태현 스님도 독특한 사상으로 중국에까지 그 사상의 위대성을 알렸다. 용장사에서 느껴지는 기운은 세상에 펼친 신라인들의 사상적·신앙적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용장사지 뒤편으로 절을 감싸고 뻗은 동쪽 바위 산맥의 높은 봉우리에는 탑이 우뚝 솟아 있다. 금오봉 정상에서 내려가는 길에 처음 만나는 유적이다. 탑은 자연암석을 하층 기단으로 삼고, 그 위에 바로 상층 기단이 있다. 자연암석이 하층 기단일 수도 있고 아래 바위산 전체가 하층 기단일 수도 있다.

탑의 탑신(塔身)은 지붕돌과 몸돌을 별도의 석재로 조성했다. 1층 몸돌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 2층부터는 급격히 줄어든다. 지붕돌은 밑면의 받침이 각 층 4단이고 처마는 직선을 이루다가 귀퉁이에서 경쾌하게 들려있다. 탑은 쓰러져 있던 것을 1922년에 재건했다. 하지만 사리장치는 없어진 상태다. 상륜부는 아예 없어져 버려 상태를 알 수 없고, 찰주를 꽂았던 구멍만 남아 있다.

탑은 크지는 않지만 통일신라 후기 석탑의 전형을 보여준다. 탑에도 용장사에 태현 스님이 구현하고자 한 미륵도솔정토가 한층 더 새로운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듯하다. 용장곡을 오르면 펼쳐지는 이 유적들은 경주 남산의 불국토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용장사는 법상종 이라는 종파를 통해 신라인들의 도솔천이 구현된 땅이 아니었을까.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비누독을 연화시키는 삼베세안타올



■삼베세안타올 – 각 6,000원

삼베 타월의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깃든 삼베 타올은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삼베세안타올 세안법

① 삼베훼이셜타올를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②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③ 삼베샤워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 3~4일이 경과 하면 맑아진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 피지, 각질연화효과가 있어 혈색이 좋아짐에 화장이 잘 받습니다.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특허출허제품임

· 품 명 – 예고은 삼베 사워 타올
· 재 질 – 햄프사, 죽사
· 용 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때밀이,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환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 격 – 세안용 (30cm x 28cm)
· 제조원 – 초록살림원 (한국산)

삼베수세미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깃든 삼베수세미는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식기세척시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뽀드득한 느낌과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사용하시는 분들은 소박 하고 겸손한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삼베수세미의 효과

* 다이옥신 피해와 수질오염(땅속에서 자연소멸)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 사용 후에는 세탁 후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건조합니다

· 품명 – 예고은 삼베 수세미
· 재질 – 햄프사, 죽사
· 용도 – 식기세척, 과일세척, 욕실청소 등
· 규격 – 30cm x 30cm(소) / 30cm x 50cm(대)

위생·항균·항독 삼베수세미



■삼베수세미올 – 각 4,000원

건포마사지용 삼베샤워타올



■삼베샤워타올 – 각 15,000원

· 품명 – 예고은 삼베 사워 타올
· 재질 – 햄프사, 죽사
· 용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때밀이,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환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격 – 전신용 (30cm x 13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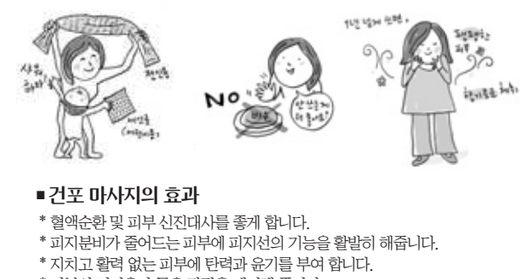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마사지법

· 여름에는 냉수마찰, 겨울에는 건포,습포 마찰을 권합니다.
· 냉한 체질은 건포, 습포마찰이 좋고 열이 많은 사람은 냉수마찰이 좋습니다. 단, 열이 많은 사람은 건포마사지를 무리하게 하지 말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냉수마찰을 피합니다.
· 예민한 피부는 문지르는 것에 자극을 받아 피부질환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합니다.
· 상처나 피부질환시 문지르지 말아야합니다.



■건포 마사지의 효과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거칠어질 의심은 버리세요. 비누독이 안 쌓이니 피부가 좋아집니다.
* 죽은 세포나 피지가 매일 제거가 되어 때가 안 낍니다.
* 몸의 때는 비누 때로 인해 생깁니다. 비누 때가 없어지므로 때가 안 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현불샵특별할인세트 30,000원
(세트 구매시 배송비 무료 + 추가 할인)

■구성 : 삼베훼이셜타올 + 삼베수세미 + 삼베샤워타올 + 삼베항균비누 3개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돌잔치, 환갑, 칠순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세상에는 사실과 진실 말고도 진리가 존재한다

서울 봉은사(주지 진화)와 사이언스북스가 공동기획한 '불교와 과학의 대화' 2번째 강연이 8월 11일 봉은사 봉은선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강연에는 고려대장경연구소 연구소장 종림 스님이 '불교인은 과학을 어떻게 보는가?'를,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가 '과학과 불교는 만날 수 있는가?'를 주제 발표했다.

행사에는 종교와 과학, 불교와 과학 대한 담론이 이어지는 행사로 9월 1일, 9월 8일 목요일 저녁 7시 봉은사 봉은선원에서 이어진다.

정리=천진영 기자



종림 스님
인간은 진리를 추구해
진리는 종교와 과학을 넘어
사실과 진실의 교차점
존재론에 빠지면 진리 못찾아

우희종 교수
근대 과학은 폭력성 지녀
현대 사회가 극복하려면
과학도 너와 나 둘이 아닌
관계론적 시각 필요



■ 고려대장경연구소 연구소장 종림 스님 '불교인은 과학을 어떻게 보는가?'

불교는 종교인가 철학인가?

과학의 시대 이전에도 불교를 종교로 볼지 철학으로 볼 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어왔습니다. 혹자는 불교를 종교 이전에 '철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분명히 종교적 형태와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를 철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반면에 불교를 종교로만 이해하려는 시각도 불교를 너무 좁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불교에는 창조주, 다시 말해 '신(神)'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신이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신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인간은 신이 만든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신에게 묻거나 접근할 수 없는 수동적인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왜 인간이 신에 의지해야 하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불교에도 '초월성'이라는 것이 있지만 '신'과는 다른 차원의 개념입니다. 불교가 종교로 발전하면서 깨달음 보다는 '신앙'에 무게를 둬왔습니다. 불교에도 '신'과 같은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신앙은 감성적인 측면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불교는 종교다

불교 내에서도 각자의 입장 들이 분명히 존재 합니다. 같은 부처님 말씀이라도 자신의 위치와 입장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불교에는 어려운 용어가 많습니다. 분명히 정의 할 수 없는 단어 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들 부처님이 깨달은 것과 같은 깨달음인지 증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결국 각자 자기 자신의 깨달음입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꼈던 부분이 바로 이런 점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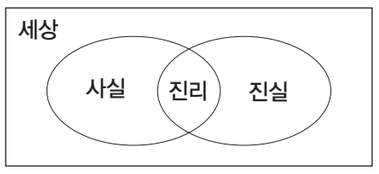
불교는 철학이기도하다

우리는 아직도 서당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편입하지 못하고 뒤쳐졌음을 시인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동양철학이라면 흔히 유교 철학을 말합니다. 불교는 봉건적 경전 연구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불교가 빨리 동양 철학의 한 분야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철학으로서 같은 논의의 대상이 되려면 기본 개념 정리가 시급합니다. 우선, 학문적 용어와 현저하게 다른 용어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내용의 개념을 다른 언어로 말한다면 '논의'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불교 용어들의 현대적 개념정리가 우선 되지 않으면 우리끼리만 이해하는 철학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가 철학으로서의 위치를 인정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도 이해 할 수 있는 '같은 언어'로서 불교를 말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은 물(物) 종교는 심(心)

과학은 물체를 대상으로 하고 종교는 마음을 대상으로 합니다. 과학이 중시하는 것이 실체, 개념, 논리라면 종교는 인간의 정신, 마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과학이 이 세상에 실체 하지 않는 정신과 마음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비과학적인 것으로 치부돼 제대로 된 평가나 연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삶에는 현실의 삶 말고도 '저 위에 어떤 것'이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과학이 들이대는 사실적 증거의 잣대로 단순 비교를 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려는 데에서 출발해 발전해왔습니다. 종교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려면 좀 더 폭 넓은 시각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과학은 반성해야 한다

과학은 만물을 대할 때 실체적인 개념에 집착하지 말아야합니다. '있다', '없다'라는 말은 언어가 가진 한계일 뿐입니다. 과학의 발전도 만유인력의 발견처럼 사과가 떨어지는 실체적인 현상을 사건이 아닌 상상력을 통해 들여다봤기 때문에 얻어낸 결과입니다. 사건을 눈으로 확인되는 실체적인 개념으로만 분석하려 든다면 과학의 발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삶을 산다는 것은 사진기로 찍어 증거를 남기는 것 같은 사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 정신·마음에 해당하는 종교를 이해하려고 할 때 존재론적·실체론적 시각에 갇혀 있으면 제대로 알 수도 이해 할 수도 없습니다.

중관의 입장

중관(中觀)을 '양쪽에 치우치지 않은 가운데'라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관은 고정적인 실체를 부정하고 모든 것을 상대적인 속성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연기(緣起)가 시간적 개념이면 공(空)은 공간에 중점을 둔 개념입니다. 즉 사물이 존재한다(有)는 판단, 사물이 존재하지 않는다(無)는 판단 모두 연기·공의 입장에서는 부정됩니다. 불교는 이런 존재론적인 유무의 견해를 끝없이 부정해 가는 데에 참된 중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이 '있다·없다'에 존재의 근거를 둔다면 본질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종교와 과학을 넘는 '진리'

지난 시간, 사실과 진실에 대해 장대익 교수와 우희종 교수 두 과학자가 상반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어느 것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사실과 진실은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뇌가 인식하는 범주이고 진실은 이념적인 범주에 있습니다. 또 현세에는 거짓된 진실과 사실도 혼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과 진실 외에 진리라는 범주가 하나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리는 인간의 삶에 이로우면서 동시에 사실이고 진실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과학과 종교를 논하는 이유도 이 진리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의 방법 차이일 뿐 진리를 추구하는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림 스님은…
1944년 경남 함양 출생. 동국대 인도철학과 졸업. 1972년 지관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해인사 도서관장, 월간 〈해인〉 편집장, 일본 하나조노대학 국제선학연구소 연구원, 대흥사 선원장, 세계전자불전협의회 공동의장, 2006 한국불교학결집대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1992년 고려대장경연구소를 설립해 대장경을 디지털화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저서로는 〈종림잡설-망량의 노래〉등이 있다.

■ 서울대수의학과 우희종 교수 '과학과 불교는 만날 수 있는가?'

문화로서의 현대 과학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그림입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그려졌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풍경을 찍은 사진보다 화가의 시각, 화가의 눈을 통한 이 사실적이지 않은 그림이 인간에게 더 큰 감동을 줍니다. 종교도 이와 같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이사무애

지난 시간에 과학은 사물 이치를 밝힌 지식 체계라고 간단하게 정의 했고 종교는 진실, 지혜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과학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서 스스로 발전하는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한 지식과 지혜가 이분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언어로 인지했는지의 차이입니다. 표현하는 언어가 다를 뿐, 그 둘은 둘이 아닙니다. 즉, 이(理)와 사(事)가 분리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사무애(理事無碍)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불교, 삶의 문제로 접근해야

불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사사무애(事事無碍)입니다. 삶 속에서 이(理)와 사(事)가 통합된 삶의 모습을 지향하는 것이 바로 불교적 세계관이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수행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현실 속의 나에서 벗어나 또 다른 나의 근원의 모습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계론적 사고는 나 역시 너와의 관계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것은 결국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깨닫게 해줍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기에 생명 존중 사상이 나오게 되고 비폭력에 대해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근대 과학과 자본주의의 폭력성

과학이 편리한 잉여 가치를 제공해 자본주의의 도구화가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침대는 과학입니다'라는 광고에서 느낄 수 있듯이 과학은 막연한 신뢰를 주는 종교가 돼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던지는 의문에 대해 열려있으면서 발전해야할 과학이 닫힌 것입니다. 이는 지식의 권력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과 자본주의 만남이 우리를 끊임없는 욕망과 갈망의 세계에 살게합니다. 이것은 과학이 주는 폭력입니다.

불교적 비폭력은 무엇인가

연기적 관계를 훼손시키는 모든 일을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폭력은 강자가 약자에게 휘두르는 것이라고 하지만 체념, 무관심도 폭력입니다. 바람직한 관계가 끊어지고 망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년원에 자원봉사를 가면 "저는 억울해요. 그냥 옆에 서 있었을 뿐이에요"라고 말하는 아이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리는 1명뿐 아니라 가만히 서있기만 한 9명의 아이들도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법적인 처벌도 내려집니다.

종합하면, 과학이 주는 폭력에 대처하는 불교적 삶의 자세란 '관계를 바로 잡는 삶의 자세'입니다.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삶의 자세가 비폭력이자 또 다른 모습의 수행인 것입니다.

大관음사 행자모집

1. 만 50세 미만, 남자, 출가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2. 수행위주의 교육
3. 수계 후 공부 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뒷바라지
4.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5.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산중사찰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 문의 : 053-474-8228
010-2488-8228

도심사찰 납골 시설을 갖춘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제1기 김해대학교 평생교육원
불교학과 학인모집

개 강 : 2011년 9월 8일 목요일 (오후 3시)
장 소 : 김해대학교 102호 강의실
과 목 : 1. 범음범패학과 (교수 : 민지효 스님)
2. 불교철학과 (교수 : 법 장 스님)
3. 가야역사학 (교수 : 태 연 스님)
4. 다도(茶)학 (교수 : 김명자 님)
5. 가요(찬불) (교수 : 이현주 님)

범음범패학과 교육내용 ※ 유네스코 등재된 소리

■ 일반인 : 예절법, 기도법, 참선법, 천수경, 반야심경 법성게, 칠정례, 거불, 삼귀의, 사홍서원 향수해례, 칠언사구성, 짓소리.
■ 스 님 :
기본과정 - 사물, 법고, 도량석, 각단예불
중급과정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요잡바라, 나비춤(도량게, 다게)
고급과정 - 종송(조석종송), 49재의식, 방생의식, 상용영반, 종사영반, 괘불이운, 종사이운

※ 위 모든 과목을 모두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

■ 수강료 : 매월 10만원 또는 1학기 50만원 (교재비 별도)
■ 범패 문의 : 교수 민지효 스님 010-4466-3575
■ 담임 교수 : 법장 스님 011-829-9120

김해대학교 평생교육원 담당자 055)320-1717
경남 김해시 삼방동 산 77-9번지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5-3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도우미]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의식 의학

경북 상주시 외서면 이촌리 산 47번지 새절 의단원 054)535-9870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의식 무료 학인모집

기초과정 속성 3개월 완성
바라 작법무 3개월 수료
이론 및 실기, 사물 직강, 회심곡, 화청, 천도재, 49재, 점안식, 산신재.
승려분은 무료, 일반인 10만원
010-3193-3689
부산 금정산 해인사

역학 개인지도 (빙의, 퇴마)

한달만 물상으로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영가 보는법과 실전위주로 개인지도함.
역학 : 물상으로 명리, 영가지도, 궁합, 택일, 구궁법, 작명
최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부산)333-3258
010-3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부산무형문화재연수원(바라,작법무)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학 인 모 집
보유자 큰스님 직강
(범음범패 천수바라 작법무 사물)
010-2563-5550 (속성반)
사 찰 행 사 (천도재 산신대제 수륙대제)
영축사(사주영가찾는법 속성지도)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바라작법무연수원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1-850-0176

뻔헷 치유요법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에서 수년간 피공, 뻔헷 치유요법사 스님
- 병원에서 못고치는 불치병
- 병명없이 고통 받는분
불사에 도움 주시면 어디라도 출장 가능함.
010-5509-7696
월정 토굴 스님

각종 천도재 집전해 드립니다

011-9370-4043
청산스님

입 종 안 내

한국불교법화종
위 종단은 50년된 전통종단이며 종단을 좀더 활성화하고자 입종을 안내합니다.
(행사협조, 친목도모, 계첩, 법계증, 사찰등록증, 권익보호와 운영에 관심있으신분 환영)
부산 사하구 감천동 567-2 (성불사)
법회종 051)204-8494
총무원 011-885-8989

빙의 퇴마교육 및 상담

- 누구나 손쉽게 배울 수 있는 빙의 대화 및 퇴마법 (4가기 방법)
- 저렴한 비용으로 퇴마해 드림
- 신병치유 및 대화

031)666-7732
010-5472-5928
청운사 경담

양 도 공 고

법원 등기된
법인불교단체 양도
법인종단 양도
011-412-8040
법 광

염불 • 역학

1달 속성완성
승려가
개인지도
011-716-3811

법문 써드립니다

스토리텔링 작가의
아주 재밌고
감동적인 포교법문!
<각종행사연설문. 법문집>
전화: 010- 9773- 4909
카페: http://cafe.naver.com/jobccoachings

주 지 대 행

법랍 37년 조계종 비구
재의식, 법문, 행사 능숙합니다
수년동안 특별수행 이후 포교에 큰 자신감을 갖게되어 사찰을 구합니다. 전세도 가능, 수용가액 4억 전후
010-7238-8818

건강한 비구출가 행자를 모집합니다

<여법한 스님과 불도량에 함께 머물며 미래승가에 청정한 비구스님 출가에 원력을 가지신 인연을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대구 도심사찰
011-520-3074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여법한 스님과 불도량에 함께 머물며 불도 수행하기를 원력하시는 초종파 스님 인연을 기다립니다>
▷대구 도심사찰
011-520-3074

승납 10년 전후 40대 중,후반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주
017-206-0113

동영상 역학강의

용신, 실전사주,고급-일진내정법(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등의 과목을 거리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저렴한 수강료로 빠른 시일내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동영상 역학 강의입니다
www.beumchun.com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대전
010-3440-9682

비구니 부전 스님 모십니다

▷부산
010-3435-355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여 미암사
011-424-5555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2515-066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2828-0664
▷개원사

아주 특수한 기도법

● 때를 기다리지 말고 만들어라
☎ 032)664-0048 / 011-741-0867

사찰 운영하실 분

사찰관리하시면서 노스님 시봉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비구니 스님 환영, 60세 이상)
▷전북 김제
063)543-5551
010-4427-2256

사주 명리 강의

용신없이 보는 사주 명리를 강의해 드립니다
기초부터 실전까지
저렴한 수강료로 빠른 시일내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것입니다
010-2464-4579
현인스님

절에서 스님과 평생 같이 기도하며 여생을 보낼 분

(처사님이나 보살님, 부부환영)
공양주와 사무보살 구함
▷서울 중랑구
010-4667-2313

불자님으로서 본인 또는 자녀 및 친척중, 신병으로 고행하시는 분 연락주시면 무보시로서 치료함

(신병, 우울증, 정신병 전문)
054)338-5353. 336-2828
011-814-6677 법륜스님

조계종, 물 맑고 숲이 좋은 도선국사 창건지인 지장보궁터에노승이 복원하여 상좌없는 노승을 시봉하며 사원을 계승해 주지로 관리운영 할 본종 비구니 두분을 구함

그리고 40~50대 영험많은 지장보궁에서 기도하며 노승공양 받들 공양주 구함. (급여비 상담 후 결정)
소백산 지장보궁 내원암
054)653-1180. 010-6353-1180

사찰과 암자 포교당 위탁관리 해드립니다

국보급 문화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사에 많은 도움 되실 것입니다
사찰이나 암자 신도님들 상담가능
사찰관리 주지대행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010-4500-8234

남,여 노래에 관심이 있는 불자가수 모집합니다

국악가요, 전통가요, 민요, 목탁, 태징, 영산작법범패, 불교의식, 천도재의식 전수
• 50~60대 불심이 있는분, 공양주 구합니다.
• 행자모집(40~50대)숙식제공, 체계적으로 수행공부
010-5883-2255
중앙녹음스투디오 녹음실 (주)이산

큰 법 당 건 립 불 사

◆ 평생 절에서 지내 실 분 ◆ 스님 되실 분 (남,여 나이불문)
◆ 종단 등록하실 분 (포교당, 토굴)
세계불교 지장선종 총본찰 지장선원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458
054)383-8553 / 011-9585-4908
농협 703088-51-013554 (예금주 : 지장선원)
www.jijangsw.com cafe.daum.net/jijangsw

빙의,불치병(청소년빙의100%완치)

영적장애, 신병, 무병, 우울, 불감증, 중풍, 업병으로 인한 각종 암(유방암,자궁암), 불면증, 이명, 귀접, 불임, 원인모를 질병, 악몽, 가위눌림, 팔 · 다리마비, 신병으로 고통받는 분, 알콜중독(바람, 도벽), 구병시식, 영가천도 낙태영천도 업병 100% 벗어날 수 있음.
(영가천도,구병시식) 「퇴마비법천수」(신기있는 보살, 법사 대상)
약사영험가피내린 금산스님 김해 약천사
010-4590-4809

영 혼 결 혼 식

희망영가(男) 찾습니다
신부 : 25세 자살(女) 경주 金氏 孫
신랑 : 25~30세 사망자
청춘혼으로 떠도는 불쌍한 男女혼을 짝지어서 저승에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부모, 형제의 축복속에 한살림 차려 줍시다.
一山 청담寺 주지 林벽담 031)912-7114

사 주 운 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 (여자) 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통달
010-5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삼 성 (三 聖) 기 도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기도를 붙여 주세요. 부모의 아름다운 삶은 자식을 생각하는 것.
칠 성 기 도 : 자식의 총명한 지혜를 위해 (화요 불공).
독 성 기 도 : 자식의 반듯한 인격을 위해 (수요 불공).
산 신 기 도 : 자식의 환경에 적응을 위해 (목요 불공).
한국 유일의 삼성기도 전문가 스님, 기도를 지극정성으로 열심히 하시며, 천통, 인통, 지통 등 공부에 두루 통탈 하신 화엄법력스님께서 정성을 다해 기도 하여 드립니다.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52-6 용화사
문의전화: 02)957-9882. 휴대폰 : 010-7387-2833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심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 ~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 원 역 리 학 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한국불교대학 편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동대문,미국 뉴욕, 중국 칭다오, 호주 시드니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화, 금요일 오전반, 목요일 저녁반 / 주1회 공부
■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문의 ☎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2488-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남골당 운영>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신흥사
- 법 명 : 장지해자 (장영자)
- 주 소 : 경북 상주시 화북면 중벌리 526번지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4일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사) 대한불교 일월조계종 종 도 모 집

상부, 상조, 상생의 이념으로 하나가 되어 참나, 자성을 찾는 도반으로 뜻을 함께할 종도님을 모십니다.

◆ 연 수 원 : 사 자 암
전남 곡성군 옥과면 설산 (불사중) 총무원 직할 연수원에서 수행하실 (10월~) 참신한 스님, 청신사, 청신녀님을 찾습니다.

◆ 총 무 원 : 장 원 사
전북 익산시 황등면 죽촌 1길 9-5
총무원장 011-677-8525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 산 지 사	이 재 진	051)632-0064 / 011-488-7745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불자정보 26 | 850호 | 전면광고

2011년 8월 24일 수요일 / 불기 2555년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법당 : 40평
- 요사 : 120평
- 부지 : 62평
- 가액 : 17억
- 지하철역100m 즉시법회가능함

- 위 치 : 경남
- 법 당 : 50평외 55평
- 지장전 : 43평
- 요 사 : 150평
- 부 지 : 74평
- 가 액 : 25억 조정가 (대출 10억 포함)

- 위 치 : 경북
- 법 당 : 30평
- 기도실 : 50평
- 요 사 : 50평
- 부 지 : 27,000평
- 가 액 : 45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울산 근교 아름다운 사찰

- 총부지: 2,400평(100%평지)
- 법당 및 요사 50평
- 산세, 계곡물 최고, 주차장 200평
- 총금액: 6억 8천

부산 온천장 사찰

- 대지 : 310평
- 법당 30평, 요사채 40평, 주지실 25평
- 부산의 주산 금정산 솔밭 자락
- 가액: 7억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양 도 안 내

- 위치 : 부산 북구 화명동 금정산 대천천을 끼고 있는 오랜 역사를 지닌 천혜의 절경을 겸비한 지장참회 도량
- 규모 : 법당 38평에 법당 1년 등 1500개, 인등 800개 현재 운용중이고 신도시 중심 아파트 속에 묻힌 단독 사찰로 방사가 15개 사용함
- 일주문 등 건물 안 밖 단청 하였고, 뒤뜰에는 감나무가 있어 풍성함을 더해주는 아름다운 사찰로 매일 기도객이 상시 출입이 많으며 포교하기 전국에서 최고의 명당터
- 별채의 옥상에 LG 텔레콤 기지국 설치로 년간 400만원 수입이 있음.
- 금정산 자연수가 절에서 사용하다 보니 시 상수도 요금은 기본 밖에 나오지 않아 경제적임
- 가액 : 22억 (현 주지스님은 전통사찰주지 소임관계로 빨리 처분코자 함)

주지스님 : 011-564-4822 (중개업자 전화 사절)

암자(급)안내

- 위치 : 충남 소재 매우 오래된 사찰
- 평수 : 종교용지 1800평
- 절묘한 도량으로 산기운이 강한 기도터이므로 신심이 돈독하신 분으로 마음공부나 기도정진하실분 외에는 전화사절 합니다
- 지병관계로 급히 인연을 찾고 있습니다
- 가액: 8억 6천만원(절충가능)

010-2034-7799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 입구(선암교) 신어산자락 낙동강변
- 전망 최상 (버스 종점 바로 앞 98번 97번 창원-김해)
- 경전철 5분거리 (부산) 5분거리
- 대웅전, 산신각, 관음입상, 방사 5개, 창고 3개
- 사원실 3개, 친견실, 공양간 남여 화장실 각각
- 승용차 30대 주차가능(감로단, 칠성단)

055)333-7612

010-4485-8888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오창에서 13분거리, 진천에서 15분거리. 병천에서 15분거리(아우내장터)
- 부지 2000여평
- 법당: 목조 30평, 관음전 25평
- 요사채 2층 건물
- 1층건물 3동 (방 많고 큰절)
- 깔끔하게 잘 지었음
- 가액: 12억(절충가능)
- 꼭 사실분만 전화주세요

011-412-2464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기장군 대라리 시장입구
- 평수: 97평. 4층에 4층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4000만원
- 몸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010-5031-808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왜관 낙동강변 동향
- 부지 954평(도로포함), 공유 500평
- 법당: 목조단청 10평, 임법당 35평
- 요사 24평(2층), 부속건물 40여평
- 교통 : 왜관 10분, 구미, 대구 30분
- 전망 낙동강정비 후 경관 최고 예상
- 가액: 3억 8천 5백만원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랍니다

010-4600-0408

포교원안내

- 위치: 의정부역에서 8분거리 대한생명옆 현재 운영중
- 약 70평, 5층건물의 5층
- 법당, 삼존불, 탱화, 집기일절, 방2
- 거실1, 입식부엌1, 도시가스, 살림가능
- 화장실 남,녀 각 1개씩
- 보증금 1천만원 월50만원
- 4억불사이룩하여,스님이나보살님께양도

010-8667-1200

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기 군포시 당동
- 가액: 1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최저양도
- 면적 65평 방8개 법당공양간 및 시설완비
- 즉시 입주 가능
- 주지소임관계로 급 양도

031)408-4766

사 찰 안 내

- 경북 영천시 고경면 논실
- 대지 230평, 법당25평
- 공양간 25평(방1, 욕실) 요사채 2동 . 집기일체
- 가액 : 상담 후 절충

054)334-6698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유구읍 연종리 21-6번지 세종시에서 40분거리
- 임야 840평, 대지 종교용지 683평, 전 150평 - 계 1673평
- 대웅전, 목조 , 외5포, 내7포, 설선당, 삼성각, 석굴암, 기타참고, 해우소 등
- 2006년 신축 경관 화려
- 가액: 6억 5천

041)551-8672

011-9413-804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 임야 총 2천평
- 현재 불사중
- 법당 16평, 요사채 30평
- 가액: 2억 5천만원

010-8681-1574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단양 가곡면
- 대지 300평, 법당 40평
- 요사채 60평, 방 10개, 화장실 3개
- 뒤는 기도처로 좋고 돌탑 앞에는 계곡물이 흐름
- 산신각, 심야보일러 2개
- 가액: 2억(절충가능) (융자 3,000만원 포함)

010-8993-3596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동구 범일동
- 보림극장 뒷산북도로
- 대지 : 98평
- 건물 100평
- 법당, 요사채, 텃밭(도심속 산사)
- 가액: 3억 5천만원 (은행융자 5000만원)

010-2563-555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춘산면 사미리
- 대지 220평, 법당 20평
- 창고1, 방1, 공양간1
- 전기 수도 시설완비
- 몸만 들어오시면 됨
- 가액 : 6천만원(가격절충)

010-8562-789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수정산 등산로 전망 좋음
- 대지 50평
- 2층 법당 30평, 1층 요사채 40평
- 방4개, 창고 10평, 주차장 넓음
- 가액: 3억 5천만원(조정가능)

010-4601-7881

농가주택(급)안내

경북 영양읍 관내

대지 95평

건물 포함 2500만원

급 양도

010-3538-2211

도심사찰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 건평 75평, 대지 67평, 마당, 창고10평
- 법당 50명 이상 법회가능
- 가액: 6천만원(융 6천만원)
- 시비 소액
- 현재 법회중

010-6561-650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 총 800평, 법당20평, 요사채 3 방 4, 큰 창고, 관상용 양어장
- 주차시설 완비
- 비구니스님 기도처로 최고명당
- 가액 : 2억

010-3138-489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진구 서면 지하철 출구 앞
- 4층에 3층, 법당 4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 부처님 삼불 청동, 시설완비
- 즉시법회가능

010-8216-1525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진주 상대동
- 평수 : 34평
- 3층 중 2층
- 삼존불 모셔있고 방 1, 주방, 화장실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 최고시설

010-7476-900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금천면
- 대지 150평
- 법당 15평,산신각
- 대중방2.공양주방
- 주방,스님방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가액 2억(조정가능)

010-8585-138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대명5동 . 2층
- 평수 60평
- 방3, 주방1, 화장실1, 다용도실1, 공양간
- 시설 A급 ,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1천 5백만원

010-3381-0800

임법당(토굴)안내

- 위치 : 경상남도 창녕군
- 대지 약 150평
- 건물2동, 방3개, 삼존불 모심
- 시설집기일체
- 총가액: 5500만원

010-9545-9444

사찰 전세 구합니다

5천~7천만원 사이

경상도 지역

010-3531-7216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 중구 시내 도로변 버스 정류장 앞
- 평수 : 40평
- 3층 중 2층
- 시설 : 법당 25평, 방2, 주방, 욕실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약간(절충가)

010-9984-979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팔도시장 내
- 평수 : 33평
- 상가건물 3층중 2층
- 법당, 삼존불, 시설완벽
- 전세 1천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1천 2백만원

010-7307-95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북한강 주변 (대성리역 주변)
- 평수 140평, 대웅전(삼존불), 산신각, 요사채, 주지실
- 일체 시설완비
- 가액: 4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별도 상담)

011-289-2719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소재
- 대지 150평, 전 170평, 건물 18평 (조립식 심야전기)
- 특징: 산세수려 산 아래 마을 끝 제일 높은 곳
- 바다보임, 교통편리, 마당 차량진입 가능
- 비구니 스님 수행처 적합
- 가액: 9000만원

054)787-2697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 임야 전답 총 15000평
- 법당 25평
- 요사채 10평
- 가액 1억 9천만원

010-9967-9832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부지 : 90평
- 법당 : 20평
- 요사 : 30평
- 시세 : 7억

- 위치 : 서울
- 부지 : 80평
- 법당 : 25평
- 요사 : 65평
- 가액 : 7억

※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전국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매물접수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급)안내

- 경북 영천시 북안면 유하리
- 대지 400평(종교용지, 주차장)
- 대웅전 20평, 요사채 20평
- 수세식 화장실, 부엌 시설완비
- 교통용지, 편리, 투자가치 높음,
- 가액: 9천 5백만원

010-2407-5899

054)336-977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 야촌리
- 대지 125평 조경완벽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10평, 공양간 15평, 연못
- 석물- 5층석탑, 해태 1쌍
- 가액: 1억 3천만원

011-9004-1492

사 찰 용 도 안 내

- 위치 : 강원도 홍천군 남면 월천리
- 경치 좋고 교통편리
- 대지 58평, 황토목재집
- 건평 23평, 방 3칸
- 다용도실1, 화장실1, 거실1, 기름보일러
- 국유지 800평 사용허가 필
- 가액: 1억 5천만원

010-4030-5989

토 굴 안 내

- 위치 :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비산비야 지대
- 부지: 대지 198평, 전답 2056평, 임야 2938평
- 건물: 현대식 30평 2채, 방8개, 큰주방 1개
- 방5개는 취사실, 화장실 병설 곳간 1개
- 환경: 춘양시장 2km반, 풍수학적으로 동향이고 좌청룡 우백호 뚜렷, 주변 조용 인근무
- 가액: 2억 4천만원 예정 . 꼭 하실 분 전화요망

010-3875-7195

포 교 원 안 내

- 대구 남구 봉덕1동 봉덕시장 내
- 2층, 3층 각70평씩. 합 140평
  2층 : 공양실,휴게실, 찜질방, 강의실, 화장실
  3층 : 법당, 삼존동불, 종무실, 주지방1,부전방1,보살방1
- 시설최상, 단청되어 있음
- 보증금 1천5백만원,월100만원. 합5500만원

010-2878-3380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 내동초등학교 앞
- 1층 38평, 2층 38평
- 법당 내부 홍송으로 처리 A급 시설
- 옥상38평, 대지67평
- 가액 2억 9천만원

010-3569-3021

010-2659-5830

도심과 산속의 만남 포교원

현대식건물과!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불심의 고장!

- (역 도보 5분거리, 시장 5분)
- 몸만 오시면, 경제가 살고 불사가 이루어집니다
- 현재 법회중이며 3층 건물(50평) 옥상(50)
- 법당(20평) 방1, 친견실1, 주방(집기일체)
- 부처님(金)삼존불, 신중, 칠성각, 영가단, 각단후불도
- 모두(5천) 부족하더라도 오세요!
- 불사관계로 양도함

010-2812-484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시 길안면 고란리
- 대지 48평, 전 100평
- 도로접, 뒤에는 산
- 양명환남양
- 가액 : 3천만원
- 가액 조절 않됨

010-8890-6869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창원시 봉곡동 2층 30평가량
- 최고위치, 최고시설
- 삼존불, 맞춤탱화
- 보증금 500만원,월25만원 시설비 1200만원

055)277-0146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근교
- 토지: 무상임대 약 700여평
- 건물: 법당 20평(등기)
- 요사 방2개, 식당방 1개
- 산을 끼고 물좋은 마당까지 차량 진입
- 가액: 1억
- 꼭하실분만, 장난전화사절

010-2692-5967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문경시 시내 중심
- 3층건물 3층 (옥상 단독 사용)
- 평수 50평, 방3, 주방1, 거실 등
- 시설: 아미타불, 108약사소불 108탑인등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A급 시설비 절충가능
  ※시청, 시외터미널, 홈플러스등 교통요지로써 철학가능 스님이나 종단사무실 요망

010-5258-114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2층)
- 구조: 삼존불 모셔있고, 방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최고 시설

010-4668-7380

사 찰 안 내

- 위치 : 여수 돌산 분전리 여수시내에서 20분거리
- 땅 : 총 250평, 요사채 1동
- 대웅전 1채, 산신각 2층 1동
- 양도가액 : 2억(절충가능)

꼭 하실분만 전화 요망

011-9765-5302

사 찰 안 내

- 위치: 양산시 명동
- 대지 평수 4천평
- 대웅전, 요사채, 산세수려
- 계곡 접합
- 가액: 12억(절충가능)

010-2692-137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북 포항시
- 3층건물 중 2층 25평
- 불보살 및 탱화, 집기류 일체
- 최고시설위치(주차양호) 시장근접
- 작은방1개, 실내화장실 (살림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300만원(총 800들어감)
- 즉시법회, 몸만 오시면 됨(기름 보일러)

010-3772-5431

사 찰 안 내

- 위치: 강원도 강릉시
- 부지: 2,500평
- 별도부지 230평(심야보일러) 사용가능
- 신축임법당 30평외 3동
- 천연 약수 있음
- 가액: 2억 7천

011-9901-3530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순종해 주면 마음이 교만해지나니, 내 뜻에 맞지 않은 사람들로써 숲을 삼아라 – 보왕삼매론 –

그럼 그렇지. 뭐 쉬운 게 하나도 없다니까

수리아의 검-Ⅳ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철의 산 차크라발라 (3)



삽화 : 김흥인

"그럼 칸타카가 날 수 있게 됐는지 알려면 절벽 밑으로 떠밀기라도 해봐야 한다는 거야?" 무니가 칸타카의 등에서 내려오며 물었다. 난다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상황은 칸타카가 알아서 혼자 날아보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까부터 살펴본 결과 하는 짓이 망아지 때랑 별반 달라진 게 없었다.

"그럼 그렇지. 뭐 쉬운 게 하나도 없다니까."

무니는 툴툴거렸다.

"그런데 그대로 절벽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해?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

난다는 자기도 모르겠다는 듯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

그때 "아, 저기! 저기 좀 봐!"라는 외침이 들렸다. 두 사람은 데비가 가리키고 있는 쪽을 쳐다봤다. 꽤 높은 절벽이 보였다. 그리고 그 절벽과 푸른 바다가 이루는 경계 위로 붉은 태양이 점점 솟아오르고 있었다.

"절벽이 저기 있다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는 건가봐."

무니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데비를 바라봤다. 난다도 마찬가지였다. 데비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아이였다. 무니와 난다의 행동이나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았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입을 열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러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대화에 불쑥 끼어들어오곤 하는 것이었다.

데비는 어느 새 칸타카의 등에 올라타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무척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이제 칸타카도 데비를 자기 등에 태우는 걸 익숙하게 여기는 듯 보였다. 무니는 그 모습이 왠지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런데 움직이는 방향이 좀 이상해보였다. 데비가 칸타카를 끌고 가는 곳은 분명 절벽 쪽이었다. 그제야 무니는 데비가 뭘 하려는지 알 수 있었다.

"야. 너 거기서 안 내려와!"

무니가 쫓아오기 시작하자 데비는 깔깔 웃으며 오히려 속도를 냈다. 조금만 더 가면 정말 절벽이었다. 불안해진 난다도 남카에 올라타 그들의 뒤를 쫓아갔다.

이윽고 세 사람과 두 마리의 말이 절벽 끝에 아슬아슬 멈춰 섰다. 정면으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자 무니와 난다는 순간적으로 눈을 감았다. 데비만이 아랑곳없이 신나서 목소리를 높였다.

"뛰자, 칸타카! 뛰어 내리자!"

금방이라도 정말 뛰어내릴 것 같은 목소리였다. 깜짝 놀라 눈을 뜬 무니는 데비의 발목을 재빨리 붙잡았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좋은 말 할 때 얼른 못 내려와!"

데비는 잡힌 발목을 빼내려 요동을 쳤다.

"난다 네가 얘 좀 말려 봐."

"그래. 데비. 일단 내려와. 뛰어내리는 건 좀 있다가 하자."

난다의 그 말 한 마디에 데비는 칸타카에서 폴짝 뛰어 내려왔다. 너무 순순한 그 반응에 어이없는 표정이던 무니가 난다에게 말했다.

"야. 그런데 정말 절벽 위에서 뛰어내리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거야?"

"아니. 일단 저기 평지에서 다른 방법들을 시도해봐야지.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방법을 써야겠지만."

난다는 칸타카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친구의 말에 무니는 절벽 아래를 내려다봤다. 까마득한 저 아래 바다가 무서울 정도로 깊어 보였다.

어느 새 해가 하늘 저 높이까지 올라가있는 한낮이 되었다.

"괜찮겠어?"

남카 위에서 바다를 바라보던 난다가 무니의 뒷모습을 향해 다시 한 번 확인하듯 물었다.

"응. 준비 완료야."

무니의 말투는 비장했다. 눈앞엔 바다와 아득한 수평선 말고는 아무 것도 없었다. 아침도 먹지 못하고 내내 칸타카를 날게 해보려 했으나 계속 실패였다. 이제는 정말 절벽 위에서 운명을 시험해보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난다는 또 다시 불안해졌다. 아무리 봐도 칸타카는 자신이 날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무니 역시 잔뜩 긴장한 상태였다. 오로지 데비만이 기대에 찬 눈빛을 반짝거릴 뿐이었다.

무니가 칸타카에게 뭐라고 속삭이더니, 뒤돌아서 난다를 향해 고개를 한 번 끄덕여 보였다. 그런 다음 난다가 뭐라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절벽 끝을 향해 뛰어갔다. 정말 순식간이었다. 아래로 사라진 그들은 다시 비상하지 않았고, 바람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난다는 깜짝 놀라 남카의 등에서 떨어지듯 내려왔다. 절벽 저 아래에도 무니와 칸타카는 보이지 않았다. 순간 아찔해졌다. 왜 자신은 아래쪽을 내려다본 것일까. 난다는 얼른 고개를 들었다.

"저기 봐. 칸타카야! 칸타카가 날고 있어!"

데비의 외침이 들려왔다. 난다는 데비의 시선이 향한 곳을 따라갔다. 바다와 수평선 사이에 걸려 있는 건, 분명 무니와 칸타카였다. 희미하게 무니의 "으하하!" 하는 웃음소리도 들리는 거 같았다. 난다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비행의 흥분이 사그라지자 그들은 부지런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나저나 저 둘은 어쩌지?"

자신의 책과 도구 가방을 칸타카의 등에 싣는데 여념이 없는 난다를 보며 무니가 말했다. 훌쩍 커버린 칸타카의 덩치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까닭에 낑낑대던 난다는 대답 대신 남카와 남카에게 매달리다시피 하고 있는 데비를 쳐다봤다.

"데비를 여기 혼자 둘 순 없지. 하지만 남카는 어차피 데리고 갈 수 없는 형편이잖아. 아쉽지만 말이야."

"역시 두고 갈 수 밖에 없는 건가."

난다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남카의 검고 순한 눈동자가 그를 쳐다보았다. 난다는 처음에 마을 사람들이 두 사람을 사막에 보내기 위해 말 위에 태울 때나 남카네 아빠가 말을 가지고 가도 된다고 고개를 끄덕였을 때, 어쩐지 남카가 원래 그들 소유가 아닌 거 같다는 느낌을 받았었다. 말을 다루는 게 능숙치 않아 보였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 같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오늘을 기다리며 이 책 저 책에서 그들이 남카라고 이름 붙인 말에 대해서 찾아봤다. 하지만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는 못했다. 용이 변하여 말이 되었다는 '의마'가 가장 들어맞는 듯 했지만, '의마' 역시 칸타카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흰색이며 드물게 검은 색이 있는 정도라고 했다. 남카는 분명 흔히 볼 수 있는 갈색 말이었다.

"그럼 이제 안녕이로구나. 그 동안 정말 고마웠어."

남카의 얼굴을 쓰다듬는 무니의 말투에 아쉬움이 묻어났다.

비데하까지 해 안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서둘러야 했다. 칸타카가 일행과 짐까지 싣고 얼마나 빨리 날 수 있을 지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칸타카 위에 가장 먼저 올라탄 건 데비였다. 자신을 남겨두고 떠난다는 걸 알고 있다는 듯 남카가 칸타카 옆에, 더 정확히 말하자면 데비 옆에 섰다. 그렇게 말과 소녀가 작별 인사를 눈빛으로 나누는 사이, 무니와 난다도 말에 올랐다. 세 사람 모두 꽤 두툼하게 옷을 챙겨 입고 있었다. 책에서 고도가 높을수록 기온이 떨어진다고 설명해 놓았기 때문이다.

"칸타카, 괜찮겠어? 무겁지 않아?"

자신 다음으로 난다까지 칸타카에 올라타자 무니가 걱정스럽다는 듯 갈기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칸타카는 걱정 말라는 듯 꼬리를 흔들어 보였다. 무니는 마지막으로 옆에 얌전히 서 있던 남카도 다시 한 번 쓰다듬어 주었다. 이윽고 잠부주를 떠날 시간이었다. 무니가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 달아놓은 고삐에 힘을 주며 말했다.

"자, 가자. 칸타카."

칸타카가 힘차게 발돋움하기 시작하자, 그들 일행은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 위로 날아올랐다. 그건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다. 심장이 부웅하고 공중으로 떠오르는 느낌이었다. 현기증을 느낀 난다는 눈을 질끈 감았다.

"남카가 콩이 됐어."

무니와 난다 사이에 끼어 가고 있던 데비가 목을 쭉 빼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제 더 작은 콩이 됐네!"

"데비. 위험하니까 고개 내밀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하고 있던 난다가 데비의 몸을 자신의 팔로 고정시키며 주의를 줬다.

"야. 이러고 몇 시간을 날아갈 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꿈쩍도 안할 수가 있냐. 너야말로 아래 좀 내려다 봐. 정말 멋지다구!"

고삐를 쥐고 있는 무니가 외치듯이 말했다. 그제야 난다는 실눈을 뜨고 슬쩍 아래를 슬쩍 내려다봤다. 자신들이 서있던 절벽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데비의 눈에 콩 크기로 보였다던 남카는 티끌 만하게 보이더니 이내 시야에서 사라져갔다. 이제 그들 발밑으로 보이는 것은 오로지 바다뿐이었다. 아찔한 광경이었다. 난다는 또 다시 눈을 질끈 감았다. 아무래도 이런 이동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꽤 필요할 거 같은 예감이 들었다.

한편 남카는 자신을 쳐다보던 일행이 저 멀리로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 그 자리에서 미동도 없이 서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시야에 보이지 않는다는 걸 확인한 후에야 인간이 어깨를 으쓱하듯 몸을 살짝 뒤틀었다. 갈기가 부드럽게 출렁거렸다. 그러자 놀랍게도 털 색깔이 갈색에서 흰색으로 서서히 변해갔다. 흰 말로 완전히 변한 남카는 앞발을 들어 허공에 대고 힘차게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다. 몸이 하늘 위로 떠올랐다.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⑲

슬프도다! 이것은 가을의 소리구나

근세 한국화의 대가 상당수가 즐겨 그린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방야독서도(方夜讀書圖)이다. 어두운 밤 촛불을 켜 방을 밝히고 책을 읽는 선비가 잠시 독서를 멈추고 창밖의 동자를 바라보며 뭔가를 주문하는 그림이다.

아담한 서재는 기와집에 달린 별채로, 책을 펼친 것이 밖에서도 보이는 독특한 상황을 그리고 있다.

공간적 배경으로는 대나무, 소나무 등 숲이 둘러싸인 인가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고가(古家)인데, 수염이 난 점잖은 선비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동자에게 뭔가를 물어보고 있고, 동자는 심부름을 가는 길인 듯하다.

때로는 동자는 졸고 있고 선비는 무언가 생각에 잠긴 그림이 있기도 하다. 이 방야독서도는 마치 민화처럼 여덟 폭의 병풍을 그릴 때 반드시 한 폭을 함께 그려 넣는데, 때로는 현판으로 그려져 독자적인 화가 개인의 풍성한 상상력과 화풍을 보여줄 때도 적지 않다.

휘영청 밝은 달이 마치 대낮처럼 집 주변을 밝힌다. 가을을 알리는 듯한 시든 풀이나 고목들이 여기저기 심어져 있기도 하는데, 촛불과 달은 항상 대조적으로 서로 빛을 경쟁이나 하듯이 촛불은 실내에서 둥근 달은 온 하늘을 차지하고 밝고 또 밝게 세상을 비추고 있다.

밤을 세워 글을 읽던 이 문사(文士)는 누구일까? 이 등장인물이 바로 당송팔대가 중에서도 으뜸가는 동파(東坡) 소식(蘇軾)의 스승이었던 구양수(歐陽修)이다.

이 그림은 당대에 유명한 문학의 한 형태인 부(賦)의 형식을 빌어 쓴 그의 작품 추성부(秋聲賦)를 묘사한 그림이다.

부(賦)는 한문문체의 하나로 본래 시경(詩經)의 표현방법의 하나이다. 작자의 생각이나 눈앞의 경치 같은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는 것이다.

유협(劉塒)에 의하면 문심조룡(文心雕龍)에서 "부란 펼친다는 뜻이다. 아름다운 채색을 펼치고 무늬를 이룩해 사물을 묘사하고 뜻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부의 문체를 정의한다.

이 글은 구양수가 52세 때에 가을의 쓸쓸한 바람소리가 숲속의 나무들을 스치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감흥을 동자(童子)와의 대화형식으로 쓴 글이다.

가을바람의 처량함과 만물이 시드는 경치를 보고, 자연의 변화와 인간의 삶을 관련시켜 인생의 덧없고 무상함을 안타까운 탄식을 통해 노래하고 있다.

추성부의 뛰어난 묘사를 방야독서도는 그대로 그려내고 있다. 발군(拔群)의 원문을 감상해야 그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다. 추성부의 원문 일부를 발췌하며 이제는 비가 그만 내리고, 풍성한 가



이당(以堂) 김은호(金殷鎬)의 방야독서도

> 근세 한국화가 즐겨 그린 '방야독서도'
> 어둔 밤 촛불을 켜고 책 읽던 구양수가
> 잠시 독서 멈추고 창 밖 동자 바라보며
> "가을소리구나. 어찌하여 온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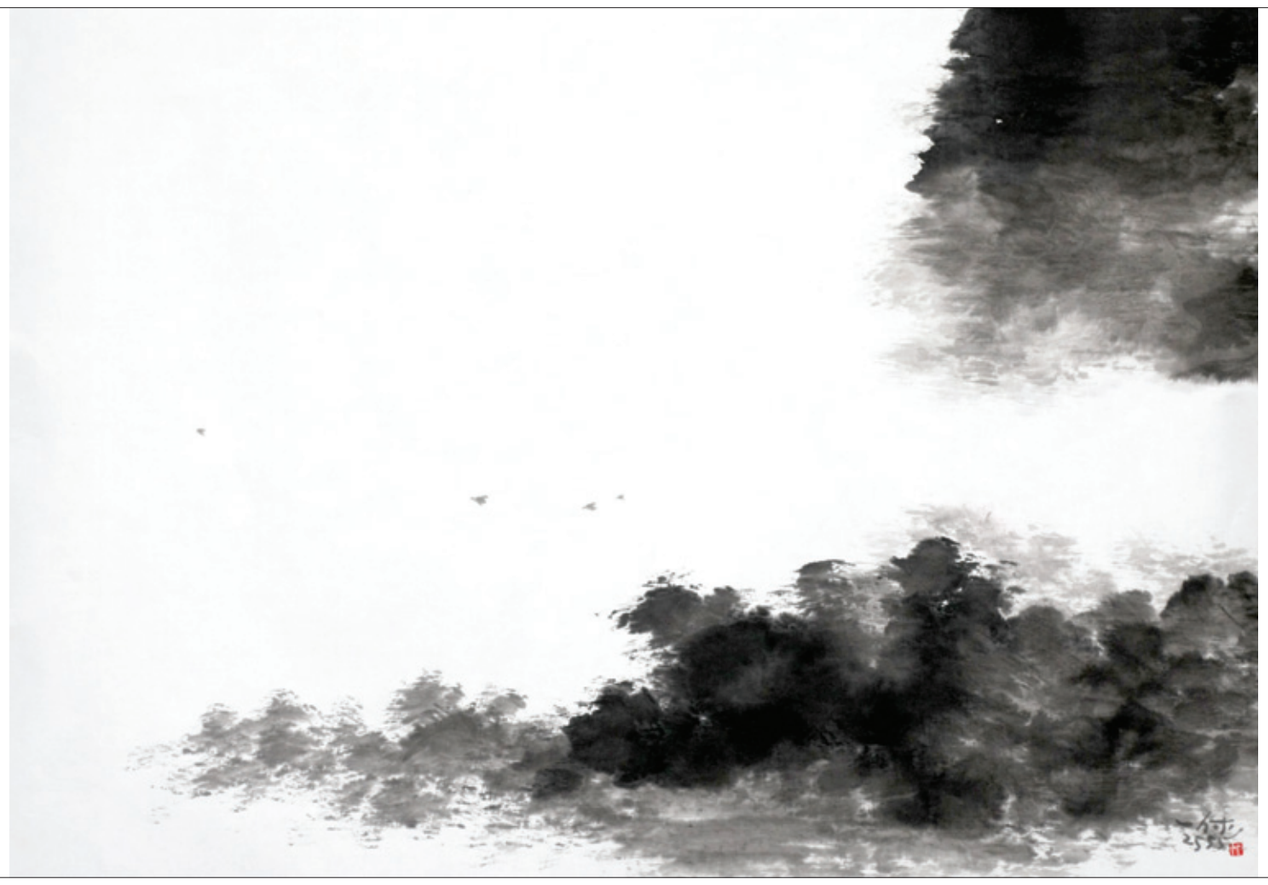
을이 오기를 기원하고자 한다.

「구양자(歐陽子)가 밤에 책을 읽고 있다가 서남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흠칫 놀라 귀기울여 들으며 말했다. "이상하구나!" 처음에는 낙엽지고 쓸쓸한 바람부는 소리더니 갑자기 물결이 거세게 일고 파도치는 소리같이 변했다. 마치 파도가 밤중에 갑자기 일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 같다. "이게 무슨 소리냐? 네가 좀 나가 보아라." 동자가 말했다. "별과 달이 밝게 빛나고 하늘엔 은하수가 걸려 있으며 사방에는 인적이 없으니 그 소리는 나무사이에서 나고 있습니다." 나는 말했다. "아, 슬프도다! 이것은 가을의 소리구나. 어찌하여 온 것인가? 저 가을의 모습이란, 그 색(色)은 암담(暗淡)하여 안개는 날아가고 구름은 걷힌다. 가을의 모양은 청명(淸明)하여 하늘은 드높고 태양은 빛난다. 가을의 기운은 살이 저미도록 차가워 피부와 뼛속까지 파고들며, 가을의 뜻은 쓸쓸하여 산천이 적막해진다. 그러기에 그 소리가 처량하고 애절하며 울부짖는 듯 떨치고 일어나는 듯한 것이다. 풍성한 풀들은 푸르러 무성함을 다투고, 아름다운 나무들은 울창하게 우거져 볼 만하더니, 풀들은 가을이 스쳐가자 누렇게 변하고, 나무는 가을을 만나자 잎이 떨어진다. 그것들이 꺾여지고 시들어 떨어지게 되는 까닭은 바로 한 가을 기운이 남긴 매서움 때문이다.」



동화사 포교국장

김양수의 **선화(禪畵) 읽기**



아침

안개가 산을 덮었다
때론 산도 쉬며 청정심을 유지하나 보다
산은 안개를 품고 안개는 산을 품고
그렇게 함께 간다.

계곡물 흐르는 소리, 개들의 날개짓 소리만
들리는 이른 아침
산을 바라보는 나도 산이 된다.



한국화가(동국대 미술학부 겸임교수)

한국의 **선시감상** ㉓ 조선 허백명조 선사의 '비 그침(雨霽)'

낮이면 밭 갈고 밤이면 잠자네

夕陽疎雨過 (석양소우과)	석양에 성근 빗방울 지나니
風景更精明 (풍경경정명)	풍경이 더욱 조촐하네.
花笑千峰色 (화소천봉색)	온 산봉우리는 핀 꽃 색이요
溪鳴万壑聲 (계명만학성)	온통 계곡은 시냇물 소리구나.
月昇驚宿鳥 (월승경숙오)	달이 떠오르자 잠든 까마귀 놀래고
風動感人情 (풍동감인정)	바람이 불자 사람의 정을 흔드네.
珍重晴陰味 (진중청음미)	소중한 비 개인 맛
群萌盡發榮 (군맹진발영)	온갖 싹이 다 싹트고 윤기 나네.

사대부 명문 출신인 허백명조(虛白明照; 1593~1661)스님은 13세에 사명 대사에게 구족계를 받은 뒤 여러 스승을 찾아다니며 법을 결단했다. 34세 때 후금의 침범이 있자 강원 감사의 천거로 의병대장의 임무를 맡았다. 이때 스님은 항상 효도와 충성의 큰 길임에는 틀림없으나 부처님의 청정한 자비 행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갈등을 하게 되고 아수라장이 되는 전장에서 슬픔의 눈물을 적시기도 한다. 이 시기 심정을 표현해 놓은 시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전란의 소재 외에 서경을 읊은 시들에서는 선사로서의 면목을 볼 수 있다.

위의 시는 비가 그치고 난 뒤 경관을 맑고 경쾌하게 그려내고 있다. 처음 두 구에서는 비 그치고 난 뒤 바라보는 맑게 갠 풍경으로 시제를 열었다. 핀 꽃이 온 산봉우리를 뒤 덮고, 불어난 계곡물소리가 온 골짜기를 흔들어 놓는다. 색과 소리로써 비온 뒤의 조촐한 경치를 모조리 다 보여주었다. 이제 시간은 석양이 지고 달이 떠오를 때다. 이때 둥지에서 졸던 새가 푸드덕 거린다. 이러한 달밤에 바람까지 부니 인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담담한 서경이 가져다 주는 감동이다. 움직임이 고요함으로 승화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제 시선은 다시 비온 뒤 생동하는 푸릇한 새싹으로 옮겨진다.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비갠 뒤의 가장 값진 맛임을 강조한 것이다. 비온 뒤의 경치를 감상하며 전장에서 피폐해진 자비심과 청정한 구도열을 윤택하게 살찌우고 싶었는지도 모를 스님에게서 나를 본다.



원법 스님(운문사 · 문학박사)

불기 닦는일 힘드시죠!!
쉽고 빠르게 깨끗하게...
친환경 다목적 금속광택제 이지 골드
EASY G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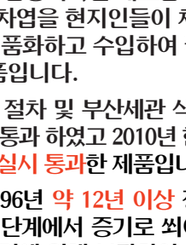
촛대, 향로, 위패, 유기, 제기, 놋쇠, 은, 동, 신주 등 모든 금속류

특 징
1.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2. 타제품 보다 닦기가 쉬워 시간이 절반이상 절약됩니다.
3. 코팅 광택약이라서 흠집이 나지 않고 광택도 오래 유지됩니다.
4. 습기에 강해 광택이 장기간 유지됩니다.
5. 인체에 해롭지 않게 피부보호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국제품질 시스템 ISO 9002 규격에 따라 제조되었습니다 (인증번호 AC-01808)

영일상사 홈페이지 참조 www.yiss.co.kr
문의 070-8262-9291. 010-5462-3620
영일상사

전국 사찰전문 공급업체
다영보이 茶瑩普珥
순수 자연 야생보이차



1. 중국 운남성과 접경지역인 베트남 북부 청정지역의 야생차엽을 현지인들이 채취하여 현지 공장에서 제품화하고 수입하여 국내에서 소분, 포장한 제품입니다.
2. 정식 수입통관 절차 및 부산세관 식약청의 무농약 · 중금속 검사를 모두 통과 하였고 2010년 한국식품연구소에서 무농약 입증검사 실시 통과한 제품입니다.
3. 다영보이는 1996년 약 12년 이상 정성을 다해 산차로 숙성하여 마지막 단계에서 증기로 쐬어 숙차병차로 만들었으며 철저한 관리에 의해 보관하여 부드럽고 깊은 보이차만의 맛과 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산차 45,000원 38,000원
산차 70,000원 65,000원
병차 165,000원 (500개 한정) 99,000원

• 판매원 : 마하몰 02)732-1520
• 제조원 : 다 영 보 이 02)959-8874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67 토마토파르코오피스텔 1507호
www.dayoungtea.co.kr
www.다영보이.kr



여래원 천연 초제비누
아토피 · 건선 · 고질적피부병
"아토피(피부병)는 불치병이다???"
"세상에 나을 수 없는 피부병은 없습니다.
6년여의 효과적 임상실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여래원 해파스님의 6년여 임상을 거쳐 탁월한 치료효과가 검증된 약제 비누입니다. 불치병이라 생각하는 아토피(피부병)를 풍부한 임상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질환 개선을 불자님 눈으로 직접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재료 : 서자초, 홍난석화, 초용피, 종려초, 용부향, 하로근 등 천연생약 30여종 (중화제,방부제,인공향유,인공색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효과 :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건선, 두피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체질 개선과 치료.
⊙ 사용방법 : 전신에 1~2회 마사지 하듯 골고로 발라준다. 타올로 꼼꼼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과 각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보관방법 : 사용상 편의를 위해 비누처럼 굳혔기 때문에 수분에 약한 성질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습성분을 다량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보습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된다.

♣ 직접 방문하시면 1회에 한하여 무료치유 체험(씻는 방법 시연)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하시면 6년간의 효과적 임상실험 책자를 직접 보내드립니다.
※ 다음까페 '아토피체험방' http//cafe.daum.net/yeoraewon



여래원 천연 초제 비누▷
여 래 원 원장 해파 합장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전화 02)429-5093 / 010-8875-5454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3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1kg 35,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4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대행 스님

왜 그렇게 습에 얽매여서 자유스럽게 살지 못하십니까!

(지난 호에 이어서)

그런데 여러분도 한 가정에서 말입니다, 아버지다 어머니다 하더라도 한 몸을 가지고 여러 얼굴을 하지 않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금방 남편이 됐다가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되고, 금방 아들이 됐다가 사위가 되고 아, 몸 하나에 몇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생각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러니 부처님께서 그 뜻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형상으로 해 놓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이 동방에 아촉이요 서방에 아미타요, 이 사바세계에 관세음이요 지천국에 지장이요, 물에서는 용신이요 흙에서는 지신이요, 명이 길게 해 달라고 하는 칠성이요, 여러분이 다 칠성이에요. 육근에 마음이 하나 들어서 칠성이라고요. 그래서 죽으면 칠성판을 한다고 그러죠. 잘난 애들이면 "어, 칠성이 참 잘 생겼구나. 칠성판이 참 좋구나." 이러죠.

이 모두를 연구하고 생각해 봐서 모두를 알아야, 인간으로 화해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의 수레 굴레바퀴에서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하는 무명의 굴레를 벗어날 겁니다, 아마.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릴 때에 쳇바퀴 바깥으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아니 하고 여러분이 마음의 발전을 시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부처입니다. 마음이 잘 지혜롭게 나간다면 부처고 망종으로 나간다면 바로 마구니입니다. 아수라장이 되죠.

내가 말로만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지원이고 본원이고 이 공부를 해 나가면서 체험을 하시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면서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세세생생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원력의 자유를 얻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데 관습에 걸리고 습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수억겁을 거쳐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되면서 화해서 이렇게 인간까지 오는데 짐승은 안 돼 봤겠습니까, 그 어떤 벌레는 안 돼 봤겠습니까. 어떠한 미물의 짐승은 안 돼 봤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구르면서 쫓기고 쫓으면서 먹히고 먹으면서 이렇게 인간까지 나와서 인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자세하게 한마디 할 것은, 여러분이 꿈을 꿨다든가 이사를 간다든가 집을 짓는다든가 뭐 집안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든가, 안 좋은 조짐이 생긴다든가 어떤 느낌이 온다든가 이렇더라도…, 마음은 자유스럽게 쓸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허! 도대체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은 마음을 제가끔 가지고 있습니다. 천차만별의 모든 것은 바뀌지고 변천하고 일어나고 가라앉고 합니다. 우주의 섭류가 다 이렇게 일어났다 가라앉고 가라앉았다 일어나고 합니다. 별성의 모든 것도, 은하계의 모든 것도 말입니다. 어떠한 혹성도 달도 태양도, 그 모두가 작용하는 것이 인간의 작용과 같습니다.

마음이 모든 작용을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의 근본, 이 자체가 영원한 씨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마음을 쓸 수 있는 건데 그 습으로 인해 얽매여서 살아요. '아이고, 이사를 가야 할 텐데 어느 방향에 손이 있다더라.' 이런 거 말입니다. 그리고 '아이고, 올해는 삼재가 들어서 물에도 갈 수가 없고 뭐 어디고 다 조심을 해야 한다더라.' 이런 습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습이지 누가 그렇게 나쁘다고 했습니까? 나쁘게 된다고 했습니까? 네? 좋게 된다고 했습니까, 나쁘게 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의 관습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림 · 최주현

어떤 사람이 "스님! 집을 지어야 할 텐데 구랑신이 내렸답니다. 집을 못 짓겠는데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 사람아, 당신이 태어나고부터 이 세상이 있고 집도 짓는 거지 누가 구랑신이 내렸다고 못 짓게 하던가? 구랑신이 내렸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구랑신을 내리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네 마음이 구랑신을 내리게 할 수 있는 귀신이야! 네 마음이 귀신 노릇을 하니 어찌 귀신이 안 덤빌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네 마음이 귀신이 아니라면 그대로 지을 것이고 네 마음이 바로 구랑신이라면 못 지을 것이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 해에 집을 짓고도 아무 일 없이, 탈 없이 잘 지냈다고 고맙다고 하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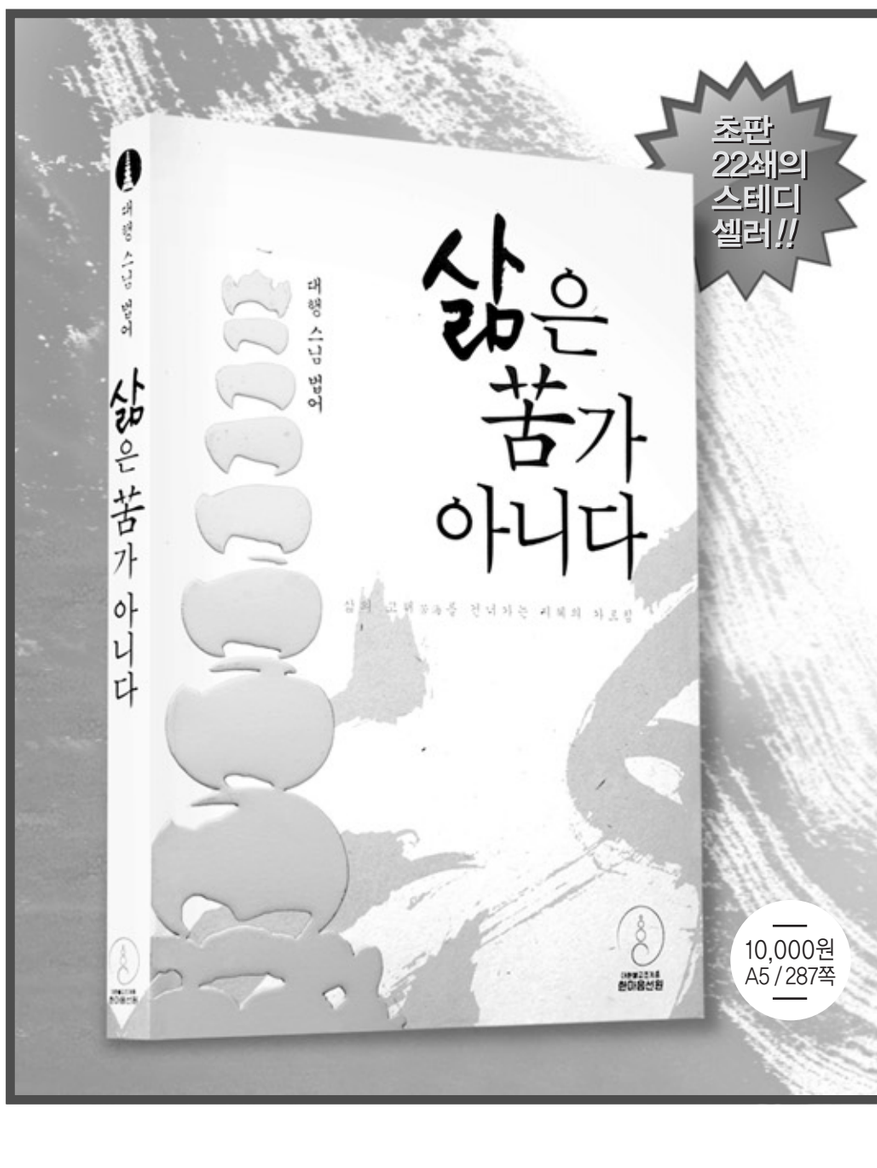
마음 하나에 그렇게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으로 발발발발 떨면서 삼재가 들었으니까 부적을 해다 붙여야지, 또 물어봐야지 하면서 온통 난리를 치고 또 살림을 해 나가면서도 잘못될까 봐 겁이 덜컥덜컥 나고, 꿈만 조금 잘못 꿔도 온통 난리가 나죠. 마음으로 말입니다. 지금 먹고살기도 바빠서 죽겠는 세상에 종교마저도 그렇게 허덕지덕 하고 괴로움이 많으니,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니 그게 바로 감옥이지요. 그게 바로 지옥이지 딴 데 지옥이 있고 감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네들 마음을 마음대로 못해서 창살 없는 감옥에다가 쳐넣어 놓고 산하대지를 마음대로 할 수 없이 만들어 놓는 것에 바로 귀신들이 있는 것이지 아니, 누굽니까? 누가 귀신을 만듭니까? 여러분이 귀신을 만들고 귀신을 섬기고 또 귀신한테 말리고 이러는 거죠. 하늘이나 땅이나 산하대지의 일체 만물만생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살라고 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살라고 강요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49년 설하시면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삼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때도 여러분이 계셨고 지금도 여러분이 계신 겁니다. 그러니 마음을 너희 맘대로 하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을 알고 몸뚱이로 부딪치는 걸 알고, 육근 육진 육식을 다 알아서 모든 물질세계나 정신세계에 둘이 아니게끔 다 돌아가면서 잘 생각을 해서 너에게 이익하도록 해라. 이익하도록 생각하지 이익하지 않도록 생각하지 말라. 남을 이익하게 생각하면 내게 이익하게 돌아오고 내가 이익하게 생각하면 남도 이익하게 생각해 주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바로 그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산하대지의 일체 만물만생이 마음과 마음을 전달해서 돌아가는 이 마음이 그대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불국토가 될 것이고, 악한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바로 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말세 말입니다. 말세가 된다 이 소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정의 화목을 지키고 마음의 계발을 숭상함으로써 마음의 발전을 해서 우리가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악행이 벌어지지 않고 모든 애고가 벌어지지 않고, 유전성 영계성이 벌어지지 않게끔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진짜 발전만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정말이지 감사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이지 일체 만물만생이 내 스승 아님이 없음을 알게 되고 일체 만물만생의 아픔이 내 아픔 아님이 없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이 보지도 말고 낮게 보지도 말고 자기같이만 본다면 바로 우리가 중용을 하는 것입니다. 정신계와 물질계를 둘로 보지 않는 중용 말입니다.

조선조 때에 불교를 탄압해 가지고 생긴 기복

☞ 30면으로 계속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고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 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신행요전 (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 (한글/영어)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 (독송용)

*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2004-8215~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떼려야 뗄 수 없는 영원한 자기 불성을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 29면에서 계속

이 개선되지 않고 내내 이렇게 나간다면 우리는 불국토는 커녕, 허허허…, 아마 우리의 삶의 터전을 잃을 겁니다. 우리가 마음공부를 한다면 지구의 수명도 우리의 수명도, 태양의 수명도 은하계의 별성의 수명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도리를 알게 되고 어떠한 문제도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바로 부처이자 법신이자 바로 보현신입니다. 생각을 쉬고 봤을 때는 부처인 것이고 한생각을 일으켰을 때는 법신인 것입니다. 잘 생각을 해서, 즉 말하자면 아픈 것도 '네 속에서 아픈 것도 나온 거니까 네 속에서 낫게 할 수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아량과 지혜가 바로 법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했으면 바로 몸이 움죽거리게 되니 보현신이자 화신이자 바로 응신입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모든 자생중생들부터 제도를 해야만이 모두 천백억화신으로서 화하게 되면서 제도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뚱이 속의 모든 자생중생들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여러분이 성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서 화를 내게도 하고 '배고프다, 좀 빨리 가져오너라.' 하면 입으로 넣기도 해야 돼요. '나는 요런 게 부족하니까 요런 걸 달라.' 그러고 '채소가 부족하니까 채소 달라.' 하면 채소를 빨리빨리 요리해서 먹죠?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시장에 나가서 빨리빨리 사다가 해 먹고 또 한 가정에 잘 먹는 사람이 있으면 '아! 요런 거를 잘 먹더라.' 하고 사다 드리죠? 그것이 그분이 먹는 게 아니고 내가 먹는 게 아니에요.

내 속의, 그분 속의 모든 생명들이 '내가 요런 게 부족하니까 요런 걸 좀 다오.' 하기 때문에 고런 게 맛있고 먹고 싶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이 먹고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했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그렇게 많고,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게 많고, 여러분의 마음 의식이 그렇게 천차만별로 많은데 어찌 여러분이 '여러분'이라고, 그냥 '나'라고 하나로 결정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얘긴데 말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말을 해야 여러분이 쉽게 알아들을까 하고 지난번부터 고심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 드리는데 말입니다, 몸의 내부에 있는 의식들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행을 저질렀든지 선행을 했든지 그대로, 입력된 것대로 그대로 나옵니다. 이러고저러고가 없어요. 그러니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한다는 소리가 나오죠. 그러니 나온 데다가 되넣으면서, 되입력을 하면서 거기다가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놓으면 벌써 그것은 입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 노래가 좋아서 카세트에다가 녹음을 했는데 나중에 다 알고 나니까 그 노래는 이제 그만 한물이 갔죠. 그래서 새로, 듣기 좋고 하기 좋은 노래를 또 녹음을 하려니까 테이프가 아까워요. 돈을 주고 또 사자니 뭐하고 그러니까 그 테이프를 가지고 또 녹음을 하게 되면 앞서 노래 넣었던 거는 다 없어지고 새로이 노래가 입력이 돼서 들어가는 거죠.

우리 살림살이가 모두 천차만별이죠. 닿다가도 이런 게 닥치고 닿다가도 요런 생각이 나고, 닿다가도 요런 행이 나오고, 그 요상하지 않아요? 마음이 요상한 거죠. 요상하기 때문에 부처죠. 요상하기 때문에 법신이고요. 요상하기 때문에 굴레를 벗어날 수도 있고, 아주 벗어나지 못하게 지옥에 꽉 잠겨서 나오지도 못하게끔 되는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된 거니까 뭐 이러고저러고 그럴 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든 것을 믿고 맡겨 놓으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뿌리와 나무를 떼려야 뗄 수 없듯이 여러분의 영혼의 근본과 지금 육체를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 나무가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푸르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생명의 근본이 없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앉아 계실 수도 없습니다. 왜냐? 송장이니까요. 그러니 떼려야 뗄 수 없는 영원한 친구, 영원한 자기 불성을 진짜로 믿어야 되는데 '아이구, 아리송해서 모르겠어. 도대체 주인공이라는 게 뭐 말라빠져 죽은 거야?' 한다면 자기더러 자기가 욕을 하는 거죠.

주인공이라는 것은 정맥 동맥이 돌아가듯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자체입니다. 간장이나 위장이나 방광이나 콩팥이나 척수, 척추나 심장이나 모두가, 눈 가는 데 귀 가듯이 귀 가는 데 입 가듯이 이렇게 같이 돌아가는데 아니, 주인공이 아닙니까? (동그라미를 그려 보이시며) 공했다 이거죠. 너 나가 없이 그냥, 아까도 없고 지금도 없이 돌아간다 해서 '공이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자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한 사람이 생겼으니까 주인이다. 주인이자 공했다. 마음도 고정된 것이 없고, 마음먹는 것도 마음을 하나만 갖는 것도 아니다. 아니, 한 가지 마음만 쓰고 삽니까?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가고 오는 것도 먹는 것도 모두가 고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공했죠. 그래서 여러분 몸이 공체입니다, 공체! 내면에서도 공체요 외부에서도 공체입니다. 그리고 공심이요 공용이요 공식화하고 돌아가는 바로 그 자체인데 내가 있다고 하고 내가 했다고 하고 내가 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네가 했단 말을 하지 마라. 왼손으로 할 때 바른손이 몰라야 하고 바른손이 할 때 왼손이 몰라야 하느니라. 그 도리를 알라. 네가 혼자 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느니라. 네가 죽어야 너를 보지 죽지 않으면 너를 볼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죽어야 하는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죠.

옛날에 선지식들께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예." "너희들 오늘서부터는 모든 곡기를 끊어라. 음식을 하나도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하나도 먹지 말랬다고 하루 종일 굶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거 정말이지 머리가 영 안 돌아가는 거죠. 하하하…. "음식을 아주 영원토록 먹지 마라." 이랬거든요.

아, 그랬는데 머리가 영 안 돌아가잖아요. 먹는 사이 없이 먹는다면, 내면에서나 외부에서나 그런 줄 안다면 먹는 사이 없이 먹게 되죠. 공식(共食)이니까요. 그런데도 그 머리가 안 돌아가니 굶어서 그냥 쓰러지더랍니다. 모두들 쓰러져서 일어나질 못하니까 또 "먹지 않고도 육체가 죽지 않는 법을 알아라." 하셨단 말입니다. 육체를 안 죽이려니 먹어야 하긴 하겠고, 허허허…, 먹는 사이 없이 먹으라니 도대체 먹어야 할지 안 먹어야 할지 모르겠더랍니다.

그래서 서로 입을 대고 이야기를 해 봐도 이거 먹어야 할지 안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거죠. 그러니 이거를 어떡합니까? 한 사람이 드러누웠다가 착 일어나면서 하는 소리가 "아무렴 아무렴, 그렇고 말고!" 하고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렴 아무렴, 그렇고 말고!'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고 벌떼처럼 일어나면서, 그냥 몸을 가누지를 못하면서 일어나서 물으니까 "흥! 내가 없으니 말이야."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네들은 '내가 없으니 말이야.' 이 소릴 또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 옛날에 선지식들이 가르치려고 얼마나 애쓰셨나 하는 생각을 가만히 해 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물리적인 문제를 알뜰히 알려주고 이해를 시켜서 모든 거를 놓을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너무 머리가 잘 돌아가서, 모두 물질세계로 잘 돌아가기 때문에 웬만큼 해서는 도무지 신청도 안 하고 돌아가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술 더 떠서 '허! 요 몸속에도 네가 많기 때문에 네가 했다는 소리를 할 수 없다. 혼자 먹었다고도 할 수 없다.' 이렇게도 가르칩니다. 그러니 내가 없지 내가 먹은 사이가 어디 있고 내가 준 사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 그렇게 깨닫고 본다면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다. 조건 없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즉 '여래의 자비를 베풀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가 이름은 각각일지언정 어찌 뜻이야 각각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절대 어떠한 애로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솟구치는 울음이 나오더라도 '주인공! 너와 같이 울고 있잖아.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같이 붙들고 울지언정 바깥으로 끄달리면서 울지 마세요! 바깥으로 찾지 마세요! 바깥으로 구걸하지 마세요! 바깥으로 달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법당에 들어갔을 때는 바로 그 형상이 내 형상이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이요 그 생명이 내 생명이니 둘로 보지 않는 마음, 항상 둥글게 둘로 보지 않는 마음으로써 한다면, 바빠서 일 배를 하더라도 천 배가 될 것이요, 일 배를 하더라도 삼배를 하더라도 만 배가 될 것이요, 삼만 배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내가 말을 해도 통신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전화하는 데 전화 코드를 빼 놓고 아무리 거기다 말을 해 보세요, 상대방이 들을 수 있나! 전화 코드를 끼우고서 말을 해야 상대가 들을 수 있죠? 그렇듯이 내 속을 빼 놓고는 절대로 일체제불이나 일체 만물의 그 모든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양 무제가 달마 대사더러 "그렇게 많은 시주를 하고 많은 보시를 했는데 얼마나 공덕이 되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넌 공덕 될 일 하나도 한 게 없느니라." 했더니 약사발을 안겨서 죽였지 않습니까? 죽였는데 죽은 사이가 없어! 달마 대사는 지금까지도 죽지 않았어요. 부처님도 지금까지도 죽지 않았고 여러분도, 그때 당시에 있던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죽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한 찰나에 모습을 갈아서 나오고 한 찰나에 모습을 갈아서 또 나오고 이럴 뿐입니다.

멸하고 생하는 것도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태어나고 이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어디 따로 있습니까? 생함이 어디 따로 있고 멸함이 어디 따로 있습니까? 그냥 영원하게 돌아갈 뿐입니다. 이 우주 자체가 그대로 영원히 돌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수명이 짧으니 기니 합니다.

물론 수명이 짧고 길고가 있죠. 사람의 수명은 좀 긴가 하면 어떤 짐승의 수명은 짧고 이렇죠. 그것도 그래요. 하지만 사람의 수명보다 지구의 수명이 더 기냐? 또는 산천초목의 수명이 더 기냐? 이런 것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수명이 길고 짧고 이런 도리가 막상 모두가 평등하게 돌아갈 때는 내 마음이 수명을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 불국토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이 모두를 그렇게 해서 깨달은 사람은 나쁘게 하는 일이 없고 남한테 해롭게 하는 일이 없고, 이익하게 하는 그런 일밖에는 안 합니다.

만약에 나쁘게 하고 마음 도리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자꾸 달아나간다면 달아나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만두지 않으면 부러지니까요. 내버려 둬서 막다른 골목까지 경험을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면 했지 억지로 막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익을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죽이는 것도 법 살리는 것도 법, 죽이는 것도 건지는 거요 살리는 것도 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내가 여러분처럼 학식이 많고 이렇다면 아주 이쁘게 다듬어서 말을 잘해 드릴 수 있을 텐데 내가 이쁘게 다듬을 줄을 몰라요. 허허허…. 그러니까 다듬지 않은 이 소리지만 진실한 소리로 아시고 실천해 보고 이러신다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위 법문은 1993년 8월 22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공부를 한다면
지구의 수명도 우리의 수명도, 태양의 수명도 은하계의 별성의 수명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도리를 알게 되고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부처이자 법신이자 보현신입니다.

찬덕불교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전선(케이블)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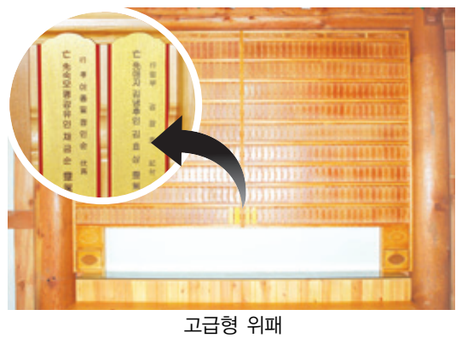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고급형 위패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아름다운등


팔각접등영가등



만월영가등


공 단 등


오색공단등


만 월 등


종 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불자 세상보기

'정중동' 의 남북관계 복원모색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남북대화 미뤄지면
6차회담도 늦어지고
북한 핵능력 향상될거란
딜레마 해결해 내야
"

올해로 광복 66돌, 아직도 우리는 진정한 광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남과 북이 분단됐기 때문이다. 남측 지도자들은 광복절이 되면 예외 없이 '통일을 이뤄야 광복을 완성할 수 있다' 는 취지의 경축사를 되풀이 하면서 대북정책과 관련한 통 큰 비전을 제시하곤 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는 아직 민족사의 가장 큰 숙제를 풀지 못했다"고 하면서 "통일은 겨레의 소원"이고, "통일은 광복의 완성"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결의 시대' 를 뛰어넘어 '평화와 협력의 시대' 를 열기 위해 "책임 있는 행동과 진정한 자세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획기적인 대북제안이나 통일담론을 기대했던 이들에게는 다소 미흡한 경축사이지만, 그렇게 밖에 말할 수 없었던 것은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반영했기 때문일 것이다. 원론적인 수준에서 남북문제를 언급한 데 그친 것은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일 것이다. 집권 4년차 후반기를 지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새로운 통일비전이나 대북제안을 내놓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다. 지난 6월 초 북측이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한 접촉 내용을 까밝히면서 남북 당국 간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 비밀접촉 폭로로 남북관계는 자체의 힘으로 복원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됐다.

지난 7월 발리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남북접촉이 이뤄지고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물밑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8월 들어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역도' 란 표현사용을 자제하면서 대화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이 대통령도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지난 8월 12일 통일고문회의를 주재하며 "남북이 어렵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것이 아니"며 "어쩌면 좋을 때보다도 어려울 때 길을 열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 대통령이 그동안의 대북정책 원칙을 고수하지 않고 상호신뢰구축을 강조한 것에서도 대북정책의 변화 조짐을 읽을 수 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지난 8월 17일 "6자회담과 천안함이 100% 연계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여러 차례 말했다"면서 남북관계 복원과 6자회담 재개 노력을 투 트랙으로 동시병행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지금은 북한이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 을 비난하면서 '자위적 핵억제력의 질량적 강화' 를 주장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군사훈련이 끝나면 대화움직임을 본격화할 가능이 있다. 이렇게 볼 때 남과 북은 관계복원 희망을 버린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남북갈등이 지속되는 동안 북한의 핵능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점, 한미공조를 강조하면서 미국의 핵 비확산 노력에 제동을 거는 것도 한계에 달했다는 점,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고 있다는 점,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야 하는 북한의 조급함 등을 고려할 때 조만간 남북대화와 6자회담을 위한 외교노력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대화가 미뤄지면 6자회담 재개도 어려워지고 북한의 핵능력은 향상될 것이란 딜레마를 해결해야 한다. 늦었지만 정부는 남북관계 차원을 넘어선 동북아차원과 세계적인 비확산차원의 대북전략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社說

그래도 길 내준 보광사가 낫다

'길' 이 문제다.

양양 휴휴암에서는 법당 앞을 가로막은 길이 문제가 돼 사람이 다쳤고, 파주 보광사에서는 새로 부임한 주지스님이 곤경에 처했다. 휴휴암은 땅주인인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이 길을 안내줘서 사건이 터졌고, 보광사는 교회에 길을 내줘서 구설에 오른 경우이다.

양양 휴휴암 회주 홍법 스님은 "법당 앞을 막고 있는 울타리는 알박기, 불교탄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부그룹 측이 길을 내달라는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어짜피 쓰고 있지도 않는 땅, 제발 사람만이라도 지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동부그룹 측에 땅을 팔라고도 해봤고, 대토해주겠다고도 했다. 신도들과 함께 동부그룹 보험 상품을 1만건 가입해주겠다는 제안도 해봤다고 한다. 그러나 김준기 회장 측은 묵묵부답이었다. 김 회장을 면담하기 위해 동부그룹 본사를 찾았지만, "총무원장스님도 못만났다"며 문전박대 당했다.

그러던 동부그룹은 나무를 심겠다며 새벽 3시에 난데없이 경내에 진입해 물리적 충돌을 빚기까지 했다. 왜 새벽 3시인지, 타협의 여지는 없었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파주 보광사 주지 스님은 길이 없어 납골당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새문안교회를 배려해사찰소유지의 사용을 승인해 곤욕을 치루고 있다.

보광사 측은 "인수인계 과정이라, 승인해줘야 하는 줄 알았다." "주지스님이 잘 몰라 종단 승인을 받아야 하는 줄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제25교구 신도회는 "이교도의 시설물이 들어서지 못하게 막지는 못할망정 동조한 꼴이다. 해종행위이다"라며 크게 비난하고 있다.

보광사 측은 "무상으로 사용 승인을 내준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새문안교회가 보광사 토지를 진입로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보광사 측에 제공한 것은 사용토지 전체에 대한 보증료 · 임대료와 보광사 주차장에 들어선 새 화장실이었다. 교회로서는 수백억원짜리 사업이 짜투리 땅이 모자라 이도저도 못하던 심정이었으니 더 큰 요구조건도 수락했을지 모른다.

역지사지(易地思之)하라 했다. 법당 앞에 길이 막힌 답답함이나, 목돈 들여 마련한 사업이 길이 없어 차질을 빚는 안타까움이나 당사자에게는 고통스럽기는 매 한가지이다.

절 일이라고 뭐든 돼야 하고, 교회 일이라고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은가?

공교롭게도 비슷한 때에 벌어진 휴휴암과 보광사 사건에서 철조망을 치며 길을 막고 있는 동부그룹보다는 그래도 길을 내준 보광사가 낫다고 고개 끄떡여지는 이들이 많을 것으로 안다. 역시 자비문중이다.

많은 불자들이 파주 보광사의 결정을 보며, "바보스럽다"며 흉보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더 거세게 항의하지 못하는 것은 이유는 무엇일까? 분통 터지는 진심(嗔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구름이지만, 자비심은 태양과 같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매를 피해 도망 온 비둘기를 보호해주려 자신의 살점을 떼어주기도 했다. 하물며, 사람이 다닐 길 좀 내준 것이 대수인가.

이런 가운데 토지 사용승인과 관련한 파주 보광사의 잡음이 '초임주지 길들이기' , '표적감사' 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파주 보광사 사건을 조사 중인 조계종 호법부와 관할교구본사인 봉선사는 설사 종법상 위반이 있더라도, 사사로이 이익을 본 증거가 없다면 정상참작해 주길 바란다.

사부대중 칼럼

고(苦)의 수용과 삶의 지혜



도각 스님
태고종 종정예경실장
자연치유학 박사

"
질량 불변의 법칙처럼
고통불변 법칙 있어
고통은 장애물경기서
만나는 장애물 같은 것
"

오늘날 같이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마음치유의 경험적 지혜조차 점차 무시되고 빠른 변화만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지되고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인생은 경쟁의 연속이라고들 말한다. 그렇지만 사회가 갈수록 경쟁이 심해지는 까닭에 쉽게 자절감에 빠질 수 있으며, 자기비하와 학력 등의 콤플렉스로 마음의 상처를 받기 쉽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 시대의 삶은 심리적 스트레스에 의한 고통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고통이 심화되면 피해의식이 강화되고 불만이 증폭되어 살맛이 없거나 증오의 불길이 불타올라 고소, 고발 또는 각종 투서 등의 행동이 나타나거나 반대로 삶에 대한 집착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증가되어 각종 질병에 대한 증세를 호소하는 건강염려증(hypocondria) 등을 호소할 수도 있다.

부처님은 "불교의 실천적 원리인 사성제(四聖諦)에서 제일 먼저 인간의 태어남이 고통이며, 삶 자체가 번뇌와 업연의 출발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것이 괴로움으로 표현된다"고 말했다.

고(Dukkha, 苦)란 무엇인가? 정신에너지인 고란 생각이 육체에 나타날 때는 고통이라는 물질에너지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것은 없앤다고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에너지 불변(질량불변)의 법칙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의 삶에는 마치 질량불변의 법칙과 같은 고통 불변의 법칙이 있는 것이다. 마치 장애물경기에서 반드시 당연히 만나게 되는 각종 장애물이라고 보면 된다.

유식불교에서는 인간에게는 고통과 불안을 주는 근본번뇌가 있어 이것이 고란 생각, 즉 삶이 고달프고 괴롭다. 병에 걸리면 괴롭다. 죽음은 더욱 두렵고, 괴롭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삶의 괴로운 문제제기에만 그치지 않고, 그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나아가 근본진리에 대한 깨달음의 길. 즉 고통의 번뇌가 없는 열반의 길로 인도 한다는 점이 불교의 위대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마음을 황폐화시키고, 동물적 행동을 자제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번뇌 망상인 고통(苦)의 원인들을 무명업식(無明業識)으로 인한 집착(集)과 욕망에 있다고 보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멸(滅)하는 심리치료법이자 수행법으로 팔정도(道)를 제시하여 고통을 내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얻도록 하였다는 것이 신앙적인 종교로서 뿐만 아니라 고통에 대한 치유처방이자 일반적인 삶에 대한 신뢰와 희망적 매력이다.

고통의 수용과 극복에 머물지 않고, 대승적 차원에서 더 나아가 실천덕목으로 육바라밀을 행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는 내면세계를 조명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을 인지하고, 정신의학자 설리반이 말하는 반영적 자기평가(객관적 평가) 능력이 증가 되어 제 8아뢰야식에 고착된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 또한 그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의 일상생활은 장애물경기와 흡사하여 당연히 너무나 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 어떨 때는 해결이 잘 되지만 보편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장애물을 이해와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항상 불만과 불편의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경기를 멈출 수는 없지 않는가? 경기가 끝나면 등수는 나오지만 모두 편히 쉴 수 있기 때문이다.

선사들이 암흑에서 빛을 찾아 전 생애를 투자하듯이 우리도 고통을 수용하고, 함께 하면 그 가운데서 삶의 지혜가 샘솟아 날 것이라는 희망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화제의 신간
21c 자평 명리학의 신화...
사주풀이의 법수

정통사주 자평 명리학의 신화 ....!

오랜 세월의 침묵을 깨고 일어나라
정통 사주명리학의 핵심적인 용신과 격국의 패러다임을 찾았다.

사주명리학은 사람이 태어난 출생년.월.일.시 사주팔자를 음양 오행인 자연이치로 분석하여 정해진 명(命)이라고 하는 운명적 요소와 성품적 요소를 분석하여 활용적 가치를 찾자는 학문이다.

음양 오행철학은 역(易)의 신비로써 이치를 규명하므로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천기누설을 잘하면 모두가 복을 받게 되며 잘못하면 재앙을 부르게 된다.



나의 이력서며 전생기록이며 미래의 설계도인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나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다.

사주명리의 "핵심"을 찾아라 !

누가 운명(運命)을 논(論)하고 숙명(宿命)을 운운(云云)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왜 사주풀이의 법수를 애타게 기다리는가?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오늘날 음양 오행 철학은 지구촌 생활 속에 멘토링이다.
배우지 않아 운명을 알수 없어 교만해지고
이것저것 너무 배워 본성은 어두워지고 있다.

송월스님의 제2탄 드디어 출간!

■ 송월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616쪽 / 정가 75,000원

육임이 보인다 功念 지음/ 4×6배판/양장본/70,000원
新 사주학 핵심비결 송월 스님 지음/신국판/양장본/50,000원
한국인의 별점 자미두수 비법 4×6배판/高山 엄창용 지음/양장본/4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신국판/양장본/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권 680쪽/각 권 50,000원
전국 서점 판매중!
풍수 양택통론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절대 옻이 타지 않는 옻의 원조
농업법인 (주)옻가네

2010년 대한민국식품 발명대상 "최우수상 수상" (12월 17일)

헐은 위, 지친 간 토종참옻으로 다스린다!!

위와 장을 편안하게 속을 따뜻하게



십년묵은 체증도 녹이는 참옻

피를 맑게, 냉적(冷積), 적취를 풀어주는 참옻

옻은 독성만 제거하면 산삼보다 좋은 명약

20세기의 기인으로 인산죽염과 유황오리의 창시자 김일훈선생은 그의 저서 『구세심방』과 『신약』에서 "옻은 산삼과 비견할 만큼 중요하고 효과가 높다"고 하였다.

동양에서는 옻이 식용과 약용으로 이용되어 왔고 어혈제거, 위장질환, 여성의 생리불순 등 민간요법에 이를 이용한 처방이 전래되었다.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보면 옻의 우루시올 성분이 항암, 항산화(노화방지) 및 항균활성이 강하며, 옻나무에서 추출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혈관형성 억제작용으로 암세포의 증식, 전이를 억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분화를 유도하는 항암 효과가 확인되는 등 옻은 옛부터 한방과 민간요법에서 혈액순환 촉진, 위산과다. 생리통 등에 널리 쓰여 왔습니다.

손발이 차고, 저리고, 추위나 더위를 많이 타십니까?

원인을 모르는 반복되는 고통...
냉적(冷積)이 아닐까?

우리 몸에 뭉쳐진 차가운 기운, 냉적(冷積)이란, 차가운 것이 뭉쳐있는 것인데 위장, 대장, 자궁이 냉하여 순환이 안되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자궁과 장이 딱딱하게 굳어진상태를 말합니다.

1)자궁에 차가운 기운이 쌓여 있으면 혈액 순환이 안되고 어혈이 생겨 자궁물혹, 근종, 생리통, 냉대하 등의 각종 여성 질환이 유발되고

2)위와 장이 차가우면 소화기능 뿐만 아니라 장의 연동운동도 안되서 배변장애가 생긴다.

3)복부비만의 가장중요한 원인도 복부에 냉적(차가운 기운)이 있어서 대사기능이 떨어지고, 붓고, 저리고, 비만을 유발 하는 하체 순환장애의 원인이 된다.

우리몸에 뭉쳐진 차가운 기운 즉 냉적은 각종질환 특히 여성질환을 유발하며 만성소화장애, 비만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특히 복부비만과 하체비만, 여성의 생리통 냉대하 등의 경우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여 하체의 순환이 잘되도록 해야 한다.

농업법인 옻가네는 국내산 토종 참옻을 이용하여 누구나 옻이 타지 않고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참옻식품을 개발하여,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을 수상, 2010년 제천국제 한방바이오 엑스포 공식지정 상품으로 선정되었다.
국내에서는 식약청(KFDA)에서 안전성을 인증받았으며, 그 까다롭기 유명한 미국의 FDA에서도 안전성을 인정한 **검증받은 제품**입니다.

발효기술을 접목한 "발효참옻제조" 특허기술

콩을 그냥 먹어도 좋지만 발효시켜서 청국장이나 된장으로 먹으면 훨씬 더 몸에 좋듯이 토종참옻도 발효시키면 몸에 이로운 효과가 훨씬 많아집니다. 옻을 식품에 첨가하여 요리하면 독특한 효과가 있는데, 모든 육류에 첨가하면 고기특유의 누린내를 없애주고, 육질을 부드럽게 하며 기름기를 녹여 고기맛을 부드럽게 하여 고기맛을 더욱 좋게하며, 건강에 매우 좋고 피부미용에도 효과가 아주 좋다.
옻은 천연항균, 살균력이 있어 심한 발냄새, 무좀, 피부질환에도 효과가 좋다.

본초강목

만성위장병	피부 질환, 아토피	부인병, 자궁근종, 생리통	어혈제거, 혈액순환	뼈가 저리고 쑤시고 허리가 아프다
耗小將(이소장) : 장의 기능을 좋게함.	療咳樹(료해수) : 가래, 기침병	女子紅蔴(여자산구) : 부인병 하복통 치료.	除風(제풍) : 중풍을 다스림.	折傷(절상) : 뼈가 부러지고 다친데.
保中(보중) : 소화기관, 위장병 고침.	風寒濕痺(풍한습비) : 감기, 고뿔, 뼈통증.	主女人經脈不通(주여인경맥불통) : 여자의 생리를 순조롭게 함.	消瘀血痛結腰痛(소어혈비결요통) : 허리 아픈데를 풀어줌.	續筋骨(속근골) : 근육, 뼈, 힘줄을 이어줌.
			削年深堅結之積滯(삭년심견결지적체) : 병덩어리를 없애줌.	九服經身耐老(구복경신내노) :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음.
			破日九凝結之瘀血(파일구응결지어혈) : 피를 맑게 함.	眞髓腦(진수뇌) : 뼈속, 머릿속골을 채워줌, 골다골증 치료.

옻이절대 타지(오르지)않는 가족건강 지킴이 토종참옻

- MBC 이재용 홍은희의 기분 좋은 날 2010.11.17
- KBS 동의보감, 그 의학적 진실은? 2009.8.6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2006.6.19 2)"옻으로 건강을 다스린다" 2007.4.20
- KBS 싱싱 일요일 "계절의 보석" 2006.8.20
- KBS 무한지대 큐 "돈이 되고 약이 되는 팔방미인 옻나무" 2006.10.31
- KBS 환경 스페셜 "약이 되는 독" 2006.11.22
- 중앙일보 "다양한 옻의 개선 효과" 2010.9.9
- 동아일보 "옻은 어혈제거, 만성간염, 간기능 개선" 2008.10.27
- 한국경제 (작지만 강한기업) 10년 묵은 체증 녹이는 참옻

2010 서울국제발명전시회 2010년 대한민국 식품발명대전

(12월 17일)



금상-옻안타는 옻을이용한 숙취해소 음료개발

은상-옻안타는 참옻발효진액 제조 방법 개발

우수발명 기업선정 (2011년 2월 17일)

최우수상 수상



FDA 미국식품안전청 FCS/SD 제조업체등록, 공정자격등록
KFDA 식품의약품안전청
특허청



▲방송협찬중인 옻가네참옻제품

옻가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체험수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양한 효과를 보신 것에 저희도 무척 놀랐습니다.
더욱 열심히 정성을 다해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손발저림, 황금색변 (2011년 3월 28일) 역삼동 에서 세무사 윤ㅇㅇ

저는 50대 중반의 남성이고 어머님은 70대후반의 여성입니다. 평소에 업무상 술을 자주마시는 저는 다음날 화장실을 여러번 다녀오고, 양 엄지 발톱의 무좀으로 고생을 해왔습니다. 또한 어머님은 목에 가래가 낀듯한 느낌과 손발 저림으로 고생을 하시고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실 정도이며, 농삿일을 하시는 관계로 농사철 때는 손바닥과 발바닥에 거북등처럼 갈라져서 고생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어머님는 체질적으로 옻나무 금방에만 가도 옻이 오르는 알레르기 체질이며, 저는 옻닭집에서 약은셨고 옻닭을 먹었다가 삼성의료원 응급실에 가서 주사를 4대나 맞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는 지인으로부터 옻을 먹어보라는 권유를 받고 손사래를 쳤으나 (주)옻가네에서 개발한 '위간보'라는 제품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에 용기를 가지고 음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간보'라는 제품을 음용한지 3일도 안되어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즉 대변의 색깔 부터 황금색으로 변하고 화장실에 가는 횟수도 음주를 하지 않은 날과 같아지게 된것 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달쯤 음용한 후에는 발톱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 했는바 무좀에 다 허물어진 발톱안쪽에서 전혀 새로운 발톱이 나게 시작했고, 현재 약 2개월정도 음용한 저는 완치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또한 손발저림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님 생각에 여름휴가때 시골에 가서 어머님께 권유드렸으나, 처음의 저와 마찬가지로 손사래를 쳤으나 저의 음용결과를 설명드리면서, 우선 한봉지만 드셔보신것을 간청하니 아들의 진심어린 걱정에 보답해주는 맘으로 음용해보시고, 바로 다음날 저에게 '애비야 목에 낀 가래가 없어진것 같이 상쾌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주문해주신것을 부탁해서 택배로 보내드렸더니 한 열흘정도 드시고 부터는 손발 저림이 완화되고 잠도 잘주무신다고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5개월정도 음용하신 결과 손발저림과 손발바닥에 갈라지는 현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젊은 사람의 손발처럼 되어 정말 좋아 하셔면서 온동네 사람에게 자랑하시고 친인척에도 자랑하며 이제는 동네주민과 친인척이 모두 (주)옻가네의 제품인 '위간보'의 팬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주)옻가네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동료 또한 역류성식도염도 저의 권유로 음용후 완치가 되었습니다

혈액순환 장애의 초기증상

① 손, 발이 차고 저리며, 쥐가 잘나고 경련이 자주 일어난다.
② 옆구리, 등, 허리에 담이 잘 걸린다.
③ 피로감이 심하고 눈이 충혈된다.
④ 어지러움, 두통, 불면증이 있으며 가슴이 답답하다.
⑤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흥분을 잘 하고 초조감을 느낀다.

농업법인 (주)옻가네

는 산업자원부 지정 전통의약산업센터 한국건강기능 식품협회 정회원, 한방클러스터 회원업체, 농협과 제약회사에서 '옻 안타는 옻, 옻진액기술'을 이용한 옻원액을 공급하여 간편한 포장의 참옻진액을 제조합니다. 믿음이 있는 기업, 믿음을 주는 기업, 옻가네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자 합니다. 동의보감, 본초강목, 구세심방, 향약집성방, 방약합편등 전통의약서적에서 독성만 제거하면 산삼에 비견된다는 토종참옻을 누구나 안전하게 염려없이 드시고, 진가는 예전 옻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독성은 빼고 몸에 이로운 것만 담았습니다.

토종참옻 100% 국내산

옻가네 참옻제품 불만즉시 100% 환불보장제 실시



(삼계탕은 1.5리터 한병으로 8마리 이상 가능합니다.)
참옻발효진액 (패트병 = 1.5L)
6병 93,000원 12병 168,000원



참옻진액(일반형)
참옻진액 : 2박스(80ml × 60포)
2개월분 198,000원



참옻진액(고급형)
참옻진액 : 2박스(80ml × 60포)
2개월분 260,000원

참옻, 만들레, 인진쑥이 듬뿍! 신제품 토종참옻환 옻가네 10주년 기념 파격 사은품 증정

고급형구입시 100명 선착순 한정으로 사은품 토종참옻환을 드립니다.



토종참옻환 3개월분 69,800원

몸에 좋은 참옻과 민들레, 인진쑥을 더해 가족의 건강을 간편하게 지킬 수 있는 **토종참옻환**

옻 농업법인 (주)옻가네 제천약초특구 제 2010-서울영등포-0212호

상담전화: 080-810-8100

• 주문하시면 2~3일내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